



티베트족 복식

IV



티베트족 복식

IV

티베트족 복식 문화 총서

པ་ཏེ། བྱིད། རྒྱན། །སོ

티베트족 복식 IV

ཕྱེ་ཁོ་རེ་ཡ།

한국어

ཐུག་མགོ་ཏི་དར་བོད་ཀྱི་གོས་རྒྱན་རིག་གནས་བཞུམས་སྟོན་ཁང་།

루훬 더다 티베트 복식 문화 박물관

머리말

인류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언어와 문자, 음식, 그리고 의복은 언제나 각 민족 문화를 지탱하는 영혼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상징이 사라진다면 그 어떤 민족도 명목만 남은 뿐 실체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급속한 세계화로 인해 수많은 민족의 전통문화가 극심한 변화를 겪으며 심지어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외딴 오지조차 현대 문화의 충격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많은 티베트인들이 이러한 전례 없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점차 버린 채 속되고 천편일률적인 유행을 좇고 있습니다. 그 결과, 훌륭한 전통은 통째로 버려지고, 민족 문화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입던 의복과 부모님 세대의 풍습은 불과 수십 년 사이에 거의 사라졌으며, 이 기억을 간직한 어르신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며 저는 깊은 슬픔을 느꼈고, 심사숙고 끝에 의복과 장신구를 시작으로 전통 문화를 구하고 보호하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습니다.

티베트 복식을 구성하는 요소는 매우 다채로우며, 그 색채는 자연과 깊이 호응합니다. 파란색은 푸른 하늘과 호수를, 빨간색은 불을, 노란색은 땅을, 초록색은 초원을 나타내며, 이처럼 대자연은 인간에게 다양한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아울러 티베트 장신구에 자주 쓰이는 금, 은, 산호, 마노, 호박 등 ‘칠보’는 단순한 장식적 기능을 넘어,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몸을 보호하며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티베트 고원의 자연환경은 지역별 복식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지대 목축 지역에서는 두꺼운 가죽 외투를 입고, 반농반목 지역에서는 양모 재질의 푸루 등을 주로 사용합니다. 저지대 농업 지역에서는 가볍고 얇은 천으로 옷을 지어 입습니다. 이처럼 의복은 단순한 문화의 투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생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발휘한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또한, 선대 어르신들께서는 티베트의 의복이 관세음보살의 화신인 송첸 감포, 문수보살의 화신인 트리송 데첸, 금강수보살의 화신인 트리랄파첸 등 역대 찬푸와 파드마삼바바, 비말라미트라, 산타락시타와 같은 위대한 성취자들의 가피를 받고 전해 내려온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청정한 민족 복식을 입는 것은 추위를 막고 몸가짐을 장엄하게 하며 보살의 신성한 가피를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티베트 복식 문화를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해, 저는 2018년 1월 ‘더다 티베트 복식 문화 박물관’을 설립하고, 많은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수차례 캄, 암도, 위짱 등 지역으로 조사단을 보내 고대 티베트 복식을 수집하고 현지 어르신들과 인터뷰하며, 이러한 복식의 제작 과정, 재질 분류, 역사적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수집된 유물은 박물관에 진열, 전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식을 수집하는 것은 단지 첫걸음일 뿐입니다. 관련 자료가 문서화되지 않는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미래에 널리 전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사 결과, 국내외 티베트 복식 연구는 대부분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티베트 전역의 복식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2020년 9월 ‘티베트 고원 복식 연구소’를 설립하여 티베트 각지의 복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총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한 권씩 출간하여 지역별 티베트 복식을 소개할 계획이며, 제 고향인 루훬부터 시작해 점차 티베트 전역으로 범위를 넓혀갈 것입니다. 또한 그 내용을 여러 언어로 번역하여 전 세계에 티베트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편집 과정에서 우리는 1차 자료를 바탕으로, 티베트 어르신들이 구술한 제작 기법, 배경 이야기, 관련 속담과 수수께끼 등을 충실히 기록하여 자료의 엄밀성을 확보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인위적으로 꾸미거나 추측성 내용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복식에 대해서는 한 지역의 특색 있는 복식을 기준으로 소개하며 다른 지역의 책에서 중복하여 다루지 않도록 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연구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미숙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 학계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금, 우리 세대가 이러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이를 기억하고 이해할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티베트 복식은 티베트 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인류 문화 다양성을 증명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티베트 문화를 보호하는 것은 곧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티베트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원하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공동 노력 덕분에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소달지

2024년 6월 4일

서언

티베트족 복식 문화 시리즈 총서의 하나인 《티베트족 복식④》에서는 청장고원 동부 가장자리에 위치한 자룽(嘉绒) 18토사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복식과 바이마(白马), 얼쑤(尔苏), 뒤쉬(多续) 티베트인들의 복식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상세히 기술하였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지역 주민들은 토번 시기 국경을 지키던 군사들의 후손이라고 한다. 오랜 역사적 변천을 거치면서 그들의 복식은 고유한 지역 문화의 전통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 간 상호 교류가 미친 영향을 투영하고 있다.

본서 집필 과정에서 다양한 지리적 환경과 문화적 배경 속에서 발전된 각 복식 고유의 공예 및 관련 문화를 발굴하기 위해, 우리는 반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관련 자료 수집과 현지 조사를 하였다. 현지 주민들이 자신의 복식을 설명한 내용을 1차 자료로 하여 음성 녹음과 문헌 기록을 진행하며 전체적인 틀을 구성하였고, 동시에 관련 문헌과 영상 자료 등을 참고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후 반복적이고 세심한 교정과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를 확정하였다.

이 책에서는 20여 종의 대표적인 복식을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단바현(丹巴县) 중루(中路)와 바디(巴底)의 여성 복식, 진촨현(金川县) 마나이(马奈)와 러우(勒乌)의 여성 복식, 마얼캉(马尔康)의 남녀 복식, 대(大)헤이수이 및 소(小)헤이수이 유역의 여성 복식, 윈촨현(汶川县)의 남녀 복식, 리현(理县) 간바오(甘堡)와 미야뤄(米亚罗) 여성 복식, 샤오진현(小金县) 제쓰(结斯)와 자이룽(宅垄)의 여성 복식, 바오싱현(宝兴县) 차오치(磽磧) 남녀 복식, 캉딩(康定) 위통(鱼通)의 남녀 복식을 다루었다. 또한 주자이거우(九寨沟), 윈현(文县), 핑우(平武) 등지의 바이마(白马) 남녀 복식, 량산주(凉山州) 간뤄(甘洛)와 웨시(越西) 등지의 얼쑤(尔苏) 남녀 복식, 멘닝(冕宁) 뒤쉬(多续)의 여성 복식을 망라한다.

이 중 자룽(嘉绒) 복식의 소개는 여성 복식을 위주로 하였다. 자룽 대다수 지역의 남성 복식이 마얼캉 남성 복식과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서에서는 마얼캉 남성 복식

및 기타 특색이 선명한 남성 복식만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나머지 각지의 남성 복식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서술하지 않았다.

자롱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머릿수건을 쓰고, 바이마 티베트인 남녀는 펠트 모자에 깃털을 꽂으며, 얼수 남녀는 검정과 흰색 머릿수건을 감는다. 뒤쉬 여성들은 앞치마에 정교한 자수 무늬를 놓는다.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각 문화권 복식의 독특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환경 측면에서 보면, 해발고도가 높은 바디, 마얼캉, 미야뤄 등지 주민들은 양모와 우모직 등 두꺼운 소재의 의복을 주로 입는다. 바이마와 얼쑤 등 산간 지역 주민들의 의복은 삼베와 비단류를 주로 사용하며, 모직 천으로 된 각반을 두르는데, 이는 산지 집단 복식의 공통된 특징이다. 반면 해발고도가 낮은 위통, 워룽, 뒤쉬 등지에서는 천으로 만든 의복이 많으며, 다른 민족과 함께 거주하는 영향으로 의복이 간편하고 실용적이면서도 타 문화의 요소가 일부 반영되어 있다.

이 책은 복식을 소개하면서 소재와 공예, 색상 조합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어떤 재료로 어떻게 제작하는지, 언제 어떻게 착용하는지 등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또한 관련 속담과 민요 등 민속 문화 자료를 곁들여 설명을 보완하였다. 서술 순서는 먼저 모자에서 신발까지 의복을 설명한 후, 머리장식에서 하체 장식까지 장신구를 설명하는 방식을 따랐다. 각 지역 의복과 장신구의 명칭은 현지 고유의 호칭을 그대로 보존하되, 방언적 특색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티베트어 공용어로 전환하였으며, 한자어 성격의 어휘 또한 가능한 현지 원음을 살려 보존하였다.

초기 티베트어 원고를 한문과 영문 등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정밀한 교정을 진행하였으며, 객관적인 기술 방식을 통해 복식의 실제 모습을 충실히 재현하고자 하였다. 이후 관련 전문가의 세심한 검토를 거쳐 내용의 사실성을 확보하였다.

책에 수록된 모든 사진은 전문 팀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현지인의 초상권 허가를 받은 뒤 올바르게 복식을 착용한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며, 각 복식의 개별 구성품들도 별도로 촬영하였다.

복식은 풍습과 미적 감각 등 다양한 문화를 담고 있는 매개체이다. 본서에서 다루는 전통 복식의 특징과 관련 문화는 이들 지역에 깊이 뿌리내린 민속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복식의 착용 방식이나 머리를 닿는 방식 등을 통해 혼인 여부, 가족 내 사람이 죽었는지 여부, 성년이 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지역들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복식 문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우수한 전통문화의 보호와 계승에 기여하고자 하며, 학술적으로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티베트족 복식 연구의 지역적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기초 원고 작성부터 최종 출간에 이르기까지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을 주신 전문가와 학자, 지역 민속 문화 전승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어르신 등 모든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본서의 내용이나 표현에 부족함이나 오류가 있다면 독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위원회

2026년 1월 21일

목 차

머리말	001
-----	-----

서언	003
----	-----

제1장. 자룽(嘉绒) 티베트족 복식	009
----------------------------	------------

01. 단바 중루(丹巴中路) 여성의 복식	010
------------------------	-----

02. 단바 바디(丹巴巴底) 여성의 복식	031
------------------------	-----

03. 진촨 마나이(金川马奈) 여성의 복식	051
-------------------------	-----

04. 진촨 러우(金川勒乌) 여성의 복식	064
------------------------	-----

05. 마얼캉(马尔康) 여성의 복식	079
---------------------	-----

06. 마얼캉(马尔康) 남성의 복식	108
---------------------	-----

07. 대헤이수이(大黑水) 여성의 복식	121
08. 헤이수이 즈무린(黑水知木林) 여성의 복식	142
09. 원촨 워룽(汶川卧龙) 복식	159
10. 리현 간바오(理县甘堡) 여성의 복식	171
11. 리현 미야뤄(理县米亚罗) 여성의 복식	195
12. 샤오진 베쓰만(小金别斯满) 여성의 복식	214
13. 샤오진 자이룽(小金宅垄) 여성의 복식	232
14. 바오싱 차오치(宝兴硃碛) 복식	251
15. 캉딩 위통(康定鱼通) 복식	278

제2장. 바이마(白马) 티베트족 복식 **305**

16. 바이마 여성의 복식 306

17. 바이마 남성의 복식 334

제3장. 얼쑤, 뒤쉬(尔苏, 多续) 티베트족 복식 **349**

18. 얼쑤(尔苏) 여성의 복식 350

19. 얼쑤(尔苏) 남성의 복식 379

20. 뒤쉬(多续) 여성의 복식 393

용어집 403

제 1 장

ཀུལ་མོང་གོས་ཀྱི།

자룽(嘉绒)

티베트족 복식

01

སྒྲོ་སྒྲུང་བྱུང་མེད་ཀྱི་གོ་ས་རྒྱུ།

단바 중루(丹巴中路)
여성의 복식





- | | | | | |
|--------------------|--------------------|------------------|--------------------|-----------------------------|
| ① ལྷུང་ཁྲོག་
쥬콧 | ② དཀྱིལ་ཐེག་
길턱 | ③ མགོ་གོར་
고코 | ④ མཇུ་བ་གོར་
쭈코 | ⑤ བ་མེའི་མཐེབ་གོར་
상아 고리 |
| ⑥ བགས་རས་
머릿수건 | ⑦ ལུ་ཐེ་
푸웨 | ⑧ ཀར་གོར་
끼끼 | ⑨ ཉེ་ཕྱི་
헤리 | ⑩ ལྷོང་འཕོག་
스피복 |
| ⑪ ལྷོ་ཕྱི་
마로 | | | | |



중루 티베트족 마을은 단바현(丹巴县) 중심지에
서 북동쪽으로 약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머
얼둬(墨尔多) 신산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
은 자룽(嘉绒) 18토사(土司) 시기 명정(明正) 토사의
관할 지역이었으며, 현재까지도 역사 깊은 고대 성루
80여 기가 남아 있다. 웅장하고 장관을 이루는 티베
트식 석조 건축물 또한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해발고도 약 2,100m의 고원 계절풍 기후에 속하며,
주된 생활 방식은 농업이다. 다른 티베트 지역과 비
교했을 때, 이곳은 협곡 지대에 위치하여 기후가 비
교적 온화한 편이며, 복식 역시 독특한 특성을 보이
고 있고 현지 기후에 잘 적응된 형태를 띤다.

중루 지역 여성의 복식은 착용하는 장소와 상징
적 의미에 따라 일상 복식, 명절 복식, 그리고 성인식
복식의 세 가지로 나뉜다. 전체 복식은 셔츠, 앞치마,
뒷치마, 주름치마, 허리띠, 티베트 장화 등 의복과 더
불어 머리장식, 귀걸이, 가우함, 카자갑슈 등의 장신
구로 구성된다.

과거 이곳의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머리를 길게
길렀으며, 머리를 땋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었다. 하
나는 머리를 세 가닥으로 나누어 하나의 세 가닥 땋
은머리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머리를 좌우
로 고르게 나누어 각각 세 가닥 땋은머리를 만드는
것이다.

머리장식은 머릿수건, 머리실, 가발 땋은머리,
상아 고리, 소폭 등으로 구성된다.



머릿수건

현지 여성들은 보통 머릿수건을 착용하며, 이는 현지 복식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접은 후의 머릿수건은 대개 길이가 약 50cm이며, 폭은 길이의 절반 정도이다. 과거에 머릿수건은 통상적으로 2~6겹으로 접어서 사용했으나, 오늘날에는 접지 않고 바로 착용할 수 있는 형태도 있다. 연령과 얼굴형에 따라 머릿수건의 두께와 크기도 다양하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예전에는 머릿수건 표면에 주로 산 모양 문양을 수놓았으나, 현재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꽃과 잎 무늬를 수놓으며 자수 무늬는 대부분 수건의 왼쪽 후면에 위치한다. 대다수 젊은 층의 머릿수건 앞쪽 가장자리에는 서로 다른 색상의 실 2~6줄이 위아래로 배열되어 마감 처리되어 있으며 왼쪽 및 뒷면 가장자리 역시 색실 마감이 되어 있다. 일부 머릿수건은 표면에 금이나 은으로 만든 작은 원형 방울을 꿰매 장식하고, 뒤쪽 양 모서리에는 은판으로 장식한다. 반면, 연장자들의 경우 앞쪽 가장자리에 색실 마감을 거의 하지 않으며, 자수 자체가 없거나 매우 간단한 경우가 많다. 머릿수건 왼쪽의 앞뒤 양 모서리에는 작은 구슬이 꿰어진 두 가닥의 색실 술이 매달려 있다. 현지 노인들의 말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 술이 매우 짧았으나, 현재는 이전보다 길어졌다고 한다. 젊은 층의 머릿수건은 앞쪽 술이 가슴까지, 뒤쪽 술은 허리 부근까지 내려오는데 반해, 연장자들의 술은 상대적으로 짧다. 술의 색상은 연령에 관계없이 주로 노란색, 분홍색, 녹색 등이다. 오늘날 머릿수건의 재질은 대부분 검은색 벨벳이다. 다만 여름철 노동 시에는 햇빛 차단을 위해 흰 천으로 된 머릿수건을 착용하기도 한다.





과거, 여성들은 두 갈래의 세 가닥 땃은머리로 만든 뒤, 땃은 머리에 털실을 섞어 땃아 머리 위로 감았올렸다. 현재는 가발 땃은머리와 머리실을 함께 머릿수건 위에 감아올린 뒤, 양끝을 뒤통수 부분에서 매듭지어 머리 수건을 고정한다. 머리실 색상은 젊은 여성들은 분홍색과 빨간색을 선호하며, 40~60세는 주로 파란색을, 60세 이상은 검은색을 사용한다.

소폭은 산호와 터키석이 박힌 은제 고리 장식으로, 상아 고리와 함께 땃은머리에 차례로 끼워 양쪽 귀 위에 위치시킨다. 명절 의복을 입을 때 여성들은 보통 2~4개의 소폭을 착용한다. 연장자 여성들의 평상시 머리 장식은 비교적 소박한 반면, 젊은 여성들은 땃은머리에 상아 고리 한 쌍과 소폭을 함께 착용한다. 오늘날에는 과거처럼 땃은머리에 합사실을 넣어 머리를 땃은 뒤 장식을 끼우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장식이 달린 가발 땃은머리를 머리에 바로 착용한다.

성인식 머리장식

현지 소녀들이 만 14세 또는 16세가 되면, 현지에서 '지사'라 불리는 성대한 성인식 의식을 거쳐야 한다. 이 의식에서 소녀는 특정한 머리장식을 착용해야 하며, 나머지 복식은 현지의 명절 복식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성인식 머리장식은 빵된도, 줍코, 고코, 줍콕, 상아 고리 등으로 구성된다.





머리장식을 갖추는 때는, 먼저 머리를 깨끗이 씻어 가다듬은 뒤 가르마를 탄다. 이마 한쪽부터 머리카락 전체를 가느다란 세 가닥 땋기 방식으로 땋아 내린 후, 이를 좌우로 균등하게 나눈다. 그다음 각각의 머리에 검은색 합사실(윗부분은 가발 형태의 땋은머리, 아랫부분은 모직 실)을 이어 붙여 굵고 긴 두 갈래의 세 가닥 땋은머리를 완성한다. 과거 여성들은 머리카락이 길고 풍성하여 합사실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머리카락이 적고 짧아 합사실을 사용한다.

땋은머리 양쪽에는 각각 뽕된도 1개와 줍코 2~3개를 착용한다. 뽕된도는 반지 모양의 은제 장식과 여의보 형상의 장식이 연결된 복합 장신구로, 그 위에 산호와 터키석이 박혀 있다. 줍코는 은제 장식 고리로, 역시 산호와 터키석이 박혀 있다.



머리 뒷부분에는 은박으로 감싼 가느다란 나무 막대 한두 개를 가로로 배치한 뒤, 두 갈래의 땃은 머리를 막대에 한 바퀴 감아 돌린다. 이마 부분에는 가로와 세로 두 부분으로 구성된 고코 장식을 착용한다. 가로 부분은 붉은 양모천을 바탕으로 표면에 산호 구슬을 촘촘히 박아 장식하며, 중앙에는 ‘꺄툽’이라는 여의보 모양의 은 장식을 부착하며, 그 위에도 산호와 터키석이 박혀 있다. 붉은 양모천 양끝에는 붉은 끈이 달려 있어, 뒤통수에서 매듭을 지어 고정한다. 세로 부분은 비단 등으로 바탕을 삼고, 그 위에 밀랍석, 산호 등 보석을 장식하며, 머리 꼭대기에서 자연스럽게 등 뒤로 늘어뜨린다. 이 장식은 소녀들이 자신의 취향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제작하는데, 과거에는 흰색의 천이나 양모 바탕에 자수 무늬만 놓았으며 장식용 보석은 달지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밀랍석 등 다양한 보석으로 장식한다. 고코 장식을 마친 후, 두 갈래의 땃은머리를 머리 위에서 교차하여 감고, 중앙에 산호 구슬이 가득한 ‘쥬콥’을 얹어 땃은머리를 고정한다. 마지막으로 나무 막대 양끝에 각각 상아 고리를 끼워 마무리한다.





모든 머리장식을 마친 후에는, 상의 바깥쪽으로 세 가지 다른 색상의 하다(哈达)를 가슴에서 어깨를 거쳐 등 중앙까지 돌려 매듭을 짓는다. 이는 보살이 내려 준 것으로 여겨지며, 길상과 행운을 상징한다. 과거 이 복장은 평생 단 한 번만 착용하였고, 현지인들은 이를 아름답고 신성한 차림으로 여겼다. 소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반드시 성인식 의식을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길하다고 여겨졌다. 전통 풍습에 따르면, 의식 기간 동안 머리장식은 사흘 동안 벗지 못하며, 매일 토사 관채 앞에서 춤을 추어야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행사가 반나절에서 하루로 간소화되었고, 의식 자체도 약 1시간 정도로 줄어들었다. 의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마을의 모든 성인식을 준비하는 소녀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덕망 있는 노인이 축사를 낭독하고, 친지들이 하다를 선물하며, 귀장무(锅庄舞)를 추고 의식을 마친다. 이 시점부터 소녀들은 자유롭게 연애하고 약혼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에는 설이나 명절, 귀장무를 추는 경우 등 특별한 행사에서 여성들이 이러한 장신구를 착용하기도 한다.



일상 복식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은 상의로 현지에서 ‘푸웨’라 불리는 셔츠를 입는다. 색상은 주로 흰색 또는 주황색이며, 깃과袖 가장자리는 대개 비단으로 테두리를 두른다.





하체 뒤편에는 ‘끼끼’라 불리는 사각형의 벨벳 뒤틀치마를 두르며, 하체 앞쪽에는 ‘헤리’라 불리는 벨벳 앞치마를 착용한다. 뒤틀치마의 폭은 앞치마의 두 배 정도 넓고, 길이도 앞치마보다 약간 길다. 두 치마의 표면에는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으며, 아래단의 양 모서리에는 삼각형 모양의 비단 조각이 장식과 함께 흰색 또는 분홍색 모직 실로 만든 짧은 술이 달려 있다.

과거 뒤틀치마와 앞치마의 재질은 주로 면직물과 우모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검은색 벨벳을 주로 사용한다. 앞, 뒤로 분리된 이런 디자인은 시원하고 가벼우며 걷기와 노동에 편리하다. 하체의 앞치마, 뒤틀치마, 그리고 머릿수건은 일상적인 필수 복장으로, 평소에 이를 착용하지 않으면 남편과 친지에 대한 예의가 없는 행동으로 여겨진다.

명절 복식

상의, 주름치마

법회, 명절 등 성대한 행사 시 복식은 다음과 같이 갖추어 입는다. 상의는 현지에서 ‘스퇴복’이라 불리는 긴 상의를 입는데, 깃과 소매부리, 섶에는 비단 테두리를 두르거나 자수 무늬로 장식하며, 아래단에는 술이 달려 있다. 하의는 현지에서 ‘마로’라 부르는 주름치마를 입는데, 원피스형과 스커트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주름치마 옆면의 주름은 여러 가지 색상으로 표현되며, 나머지 주름은 대체로 붉은색과 파란색이 주를 이룬다. 치마는 앞쪽에서 여며 허리띠로 묶어 고정한다. 전해지는 바로는, 과거에 주름치마를 만들 때 108개의 주름을 잡아야 했으나 오늘날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과거에는 주름치마가 일상복이었으며 주로 삼베나 모직으로 만들었다. 당시에는 옷감이 귀했고 노동에 편리해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치마는 짧은 길이의 스커트형이 대부분이었다.





허리띠

허리띠는 일상용과 명절용 두 가지로 나뉜다. 일상용은 주로 연장자가 착용하며, 명절이나 춤을 출 때는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 긴 술이 달린 납작한 허리띠를 착용한다. 술은 뒤쪽으로 늘어져 장식 효과를 낸다. 현지의 허리띠는 대부분 수공으로 짜며, 매고 나면 평평하고 가지런한 상태를 이루고, 표면에는 다양한 문양 장식이 있다.

티베트식 장화

여성들은 현지에서 ‘겔람’이라 부르는 티베트식 장화를 신는다. 밑창은 가죽으로 만들고, 발등 부분은 검은 가죽, 아래 발목 부분은 붉은 양모천, 위 발목 부분은 검은색 코듀로이 소재로 제작한다.



기타 장신구

귀에는 은 재질의 긴 귀걸이를 착용한다. 다른 티베트 지역과 마찬가지로, 목에는 육각형, 원형, 해와 달 모양의 가우함과 은목걸이, 산호 목걸이 등을 착용한다. 허리 양쪽에는 ‘카자갑슈’이라 부르는 바늘집 등 은제 소형 장신구를 단다.





이처럼 복잡한 공정을 거쳐 완성되는 이 지역의 복식은 중루 여성들의 정체성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녀들의 지혜와 근면함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표이기도 하다.

02

བླ་མ་སྒྲིབ་བྱེད་མེད་ཀྱི་གོ་སྐབས་སྐྱོད།

단바 바디(丹巴巴底)
여성의 복식





① སུམ་ལག
숨락

② བ་སེའི་མཐེབ་གོར།
상아 고리

③ ད་མྱེ་ཏུན་ཐུ་ཅོ།
다네/똥투조

④ དར་ཉི།
다르티

⑤ སྒྲོད་འབོག།
스뛰복

⑥ གུམ་ཡོགས།
꿈옥

⑦ ལྷན་པོ།
랜포

⑧ རུ་ཟེད།
두베

바디진(巴底镇)은 단바현 북부, 진촨(金川) 아래쪽, 다두허(大渡河) 강가에 위치해 있으며, 평균 해발고도는 약 3,700m로 고원 계절풍 기후에 속하며 주로 농업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 지역은 원래 자룽 18토사 중 하나인 바디 토사의 관할 지역이었다. 예전에 토사의 관저는 부락 아래쪽의 바위 위에 있었으나, 이후 부락 중심으로 옮겨졌는데, 이러한 이유로 현지인들은 토사의 이름을 '바디 토사'라고 부르게 되었다. '바디'는 티베트어 음역어로 '바위 위'라는 뜻이다.

바디 지역의 복식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한 벌의 복식은 상의, 앞치마, 뒷치마, 주름치마, 허리띠, 망토, 자룽 부츠 등 의복과 머리장식, 가우함 등의 장신구로 구성된다.

현지에서 머리에 두르는 머릿수건은 '다르티'라고 불리며, 머리에 묶는 실가닥은 '다네' 또는 '똥투조'라고 부른다. 또한 땀은 머리에 끼우는 반지 모양의 장식은 '숨락'이라 한다.

과거, 여성들은 머리를 길러 세 가닥으로 땀은 후, 그 위에 숨락, 상아 고리 등으로 장식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장식품들을 미리 두꺼운 가발 땀은머리에 끼운 후, 가발과 실가닥을 함께 머리에 감아 고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현지의 머리장식 착용 방식은 단바 중루 지역과 거의 유사하다.



머릿수건

과거에 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머릿수건을 착용해야 했으며, 착용하지 않을 경우 교양이 부족하거나 행동이 어긋났다고 여겨져 주변의 비난을 받곤 했다. 초기에는 햇빛과 비를 막기 위해 짚으로 만든 물건을 썼으나, 이후 머릿수건이 보온과 머리 보호 기능을 갖추게 되면서 점차 천 등의 소재로 만든 검은색 머릿수건 착용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후에는 머릿수건 위에 지역에서 자생하는 철쭉, 국화 등의 꽃무늬를 수놓아 장식하기 시작했다. 나이 든 여성은 머릿수건에 수놓은 무늬가 비교적 적은 반면, 젊은 여성들은 다양한 밝고 아름다운 꽃무늬를 수놓는 것을 좋아한다.





과거 현지 여성들은 자수에 매우 능숙했는데, 이는 어릴 때부터 집안 어른들로부터 자수 기술을 배웠기 때문이다. 현지 자수는 10여 가지 이상의 바느질 기법을 사용하며, 기술이 뛰어난 자수공은 자수용 천 위에 도안을 그리지 않고도 마음속 이미지로 바로 자수를 놓을 수 있다. 2022년, 단바 자수는 성(省)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현지에는 ”바늘을 들면 온갖 꽃이 피어난다”는 속담이 전해진다.

과거에는 머릿수건 끝에 술을 다는 풍습이 없었으나, 이후 점차 머릿수건 왼쪽 앞뒤에 짧은 술 한 가닥씩을 달기 시작했고, 이후 긴 술을 다는 유행이 생기기도 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머릿수건 네 모서리에 모두 술을 달기도 한다.





상의

현지 여성들은 분홍색 또는 흰색 셔츠를 즐겨 입으며, 그 위에 현지에서 '스뽀복'이라 부르는 긴 상의를 착용한다. 겨울철 상의는 주로 펠트, 양모, 야크 털 등의 소재로 만들며, 일부 상의는 깃과 밑단을 수달 가죽이나 티베트 직물로 장식한다. 여름철 상의는 면직물, 마직물, 금사 벨벳, 명주 등으로 제작한다. 현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양모로 의복을 만들며, 보통 4근의 양모로 한 벌의 상의를 짜낼 수 있다. 색상은 검은색, 흰색, 갈색 등이 주를 이루며, 어깨에 두르는 망토 역시 주로 양모로 짜서 만든다.





앞치마, 뒷치마

일상생활에서 현지 여성들은 하체에 ‘꿈욕’과 ‘랜포’를 착용한다. 꿈욕은 앞쪽에 두르는 앞치마 모양의 천이며, 랜포는 뒤쪽에 두르는 천이다. 단바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뒷치마가 앞치마보다 크기가 더 크다. 일상용은 대부분 장식 테두리가 없으며, 다소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앞치마와 뒷치마의 양쪽 끝과 밑단에 비단 테두리를 두른다. 착용 시에는 먼저 뒷치마를 두르고 그 다음 앞치마를 착용한다. 두 치마의 색상은 주로 검은색이며, 일부 형태는 밑단 양쪽 모서리에 매우 짧은 술을 달기도 한다. 다르티, 꿈욕, 랜포는 현지 일상 복식의 주요 구성 요소이다. 과거 여성들은 앞치마와 뒷치마를 항상 착용할 뿐 아니라, 걸을 때도 작은 보폭으로 천천히 걸어야 했는데, 이는 부모와 어른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예법의 한 표현이었다.

주름치마

법회나 명절 등 격식 있는 자리에 여성들은 ‘두베’라 불리는 주름치마를 착용한다. 예전에는 치마에 108개의 주름이 있었다고 전해지며, 현재는 반드시 그 수를 따르지는 않는다. 치마 양옆의 주름에는 몇 가지 서로 다른 색이 나타나며, 그 밖의 부분은 비교적 단일한 색조를 이룬다. 초기에는 천을 절약하고 노동에 편리하도록 비교적 짧은 일상용 치마를 제작하였다. 바디 지역의 주름치마는 단바현 다른 마을의 양식과 큰 차이는 없으나,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치마의 여밈이 중앙이 아니라 몸의 왼쪽이라는 점이다.





치마의 보관 과정은 비교적 복잡하여, 숙련자나 경험자가 아니면 대개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해야만 완성할 수 있다. 먼저, 접기와 오염 방지를 위해 큰 천 위에 주름치마를 펼쳐 놓고, 모든 주름의 겹을 하나하나 가지런히 정리한다. 치마 길이의 절반 지점에 납작한 나무 막대를 놓고 그곳에서 반으로 접은 후, 겹을 천으로 덮어 뒤집는다. 만약 상의 부분이 포함된 형태라면 상의를 안쪽으로 접어 넣고 다시 천을 덮어 한 번 더 뒤집어 준다. 그다음 나무 막대를 빼내고, 그 자리에 접힌 치마 길이와 같은 크기의 나무판이나 골판지를 등을 넣는다. 이어서 치마로 그 나무판을 감싸 한쪽에서부터 차례로 말아 올린다. 말은 후에는 위에서 아래로 끈으로 단단히 묶는다.





허리띠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현지에서 ‘떼수탁’이라 부르는 허리띠를 착용한다. 이는 납작한 형태의 직조 띠로, 뒤쪽 중앙에는 장식용 술이 늘어져 있다. 이 허리띠는 앞치마와 뒷치마 위에 매거나 주름치마 위에 둘러맬 수 있다. 과거에는 흰 양모로 짠 ‘따잡’이라는 허리띠도 있었는데, 이는 술 다발의 폭이 비교적 크고 위쪽은 흰색, 아래쪽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으며 몸 앞쪽으로 늘어뜨려 장식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형태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망토

주름치마와 상의 위에는 현지에서 ‘샌박’이라 부르는 긴 망토를 걸친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 바디 지역의 한 여성 토사가 자신의 장신구가 가진 아름다움을 과시하기 위해 망토를 착용하지 않았고, 다른 여성들이 화려한 장식으로 자신의 미모를 능가할 것을 우려해 관내 여성들에게 망토를 착용해 장신구를 가리도록 규정하였다. 이로써 망토를 착용하는 풍습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망토의 색상과 형태는 연령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젊은 여성은 흰색 망토를 걸치며, 혼례 등 의례적인 자리에서는 양모로 짠 흰색 상의에 흑백이 섞인 망토를 착용한다. 50~60세는 양모와 야크 털로 만든 가장자리 장식이 없는 망토를, 60~70세는 티베트 직물로 가장자리를 두른 야크 털 망토를, 70세 이상은 붉은 망토를 착용한다. 망토의 크기는 착용자의 체형에 따라 달라진다. 성대한 의례가 아닌 일상생활에서는 여성들이 망토를 착용하지 않는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상의는 주름치마를 덮어 무릎 아래까지 내려와야 하며, 망토는 상의와 주름치마를 모두 덮어야 한다. 여성이 망토를 착용하지 않을 때는 긴 상의의 오른쪽 소매를 벗어 내리는 풍습이 있다. 이러한 복식은 단바의 바왕, 진찬의 마나이 등지에서도 착용된다.

망토는 또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는데, 여성이 사망하였을 때 관 위를 붉은 망토로 덮고, 남성의 관에는 붉고 검은 티베트 직물로 덮는 것이 현지의 풍습이다.

과거 이 지역의 의복은 주로 마직물로 제작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모직 천, 야크 털, 양모 등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전설에 따르면, 과거 이 지역에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끼치는 독사가 있었는데, 인도에서 날아온 대붕이 이를 물리쳤다고 한다. 이에 자롱 사람들은 대붕을 신조로 숭배하게 되었고, 토사 관채의 문과 각 가정의 문미에 대붕 문양을 그려 기념하였다. 바디 여성 복식의 형태 또한 대붕과 유사하다고 여겨지는데, 상의는 대붕의 깃털을, 망토는 양 날개를, 치마는 꼬리깃을 상징한다고 한다.

이 지역 여성들은 자롱 부츠라고 불리는 소가족 밀창의 장화를 신는다.



기타 장신구

장신구는 티베트 문화권의 다른 지역과 유사하며, 여성들은 귀걸이, 팔찌, 가우함, 은사슬 등을 착용한다.

바디의 복식은 여성의 단정하고 신중한 품성과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미덕을 드러내며, 동시에 지역의 깊은 전통문화를 담아내고 있다.





03

མར་སྤམ་སྒྱེས་མའི་གོས་རྒྱ།

진찬 마나이(金川马奈)
여성의 복식





① མགོ་ཅས།
고체

② བགས་རས།
머릿수건

③ ལུ་རིང་།
장삼

④ སྐྱ་རགས།
허리띠

⑤ བར་གདན།
앞치마

⑥ རོད་ལྷུ་མ་མཐེལ་བཞེགས་མ།
여러 겹 밑창을 댄 장화

마나이진(马奈镇)은 진촨현(金川县) 남부에 위치하며, 현청 소재지에서 약 40km 떨어져 있다. 이곳은 2019년, 기존의 마얼방향(马尔邦乡)과 마나이향(马奈乡)이 합병되면서 설립되었다. 이 지역의 평균 해발고도는 약 2,100m이며, 대륙성 고원 계절풍 기후에 속하고 생활 방식은 농업 중심이다. 마나이 지역은 민속 문화의 전통이 깊고, 돌을 쌓아 올리는 석포 건축 기술이 뛰어나며, ‘중국의 누각 왕’이라 불리는 웅장한 고대 누각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다두허 상류의 마나이, 거얼(咯尔), 허둥(河东), 허시(河西), 두송(独松) 등지의 여성 복식이며, 이 글에서는 마나이 지역을 대표 사례로 삼는다. 한 벌의 복식은 장삼, 허리띠, 앞치마, 신발 등 의복과 머리 장식, 귀걸이, 팬팬 등 장신구로 구성된다.



머리장식

과거 여성들은 먼저 양쪽 두 갈래 땃은머리를 각각 털실과 합쳐 땃은 뒤, 산호를 박은 반지 모양의 금은 장식과 상아 고리 등 장신구를 끼웠다. 그다음 머릿수건 위에서 뒤통수 뒤편으로 교차하며 매듭을 지었고, 끝부분은 등 뒤로 늘어뜨렸다. 이러한 일련의 장식을 현 지에서는 ‘고체’라 부른다. 오늘날 대부분의 여성들은 더 이상 머리를 땃지 않고, 대신 가발 땃은머리를 사용한다. 가발 땃은머리에 장신구를 달고, 털실이나 비단실로 만든 합사실과 함께 머릿수건을 고정한다. 과거에는 장신구가 주로 은으로 제작되었고 개수도 적었으나,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현재는 금 장신구도 흔히 볼 수 있고, 보통 5~7개 정도 착용한다. 전해지기로는, 과거 연장자는 주로 검은색 털실을 합쳐 땃았고, 젊은 여성들은 파랑, 보라, 분홍색 등을 주로 사용했다. 오늘날에는 나이에 따라 색상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현지 머릿수건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두송 등 진찬현 도심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마얼캉 지역과 유사하게, 수건 전체에 꽃무늬와 기하학적 문양이 수놓아져 있다. 둘째, 마나 이 등 단바현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재질과 수놓는 방식이 바디 지역과 유사하지만, 크기가 약간 작고, 머릿수건 왼쪽 앞뒤 두 모서리에 노랑, 분홍 등 두 가지 색실로 만든 짧은 술이 달려 있다.

여성들은 주로 검은색 머릿수건을 착용하며, 재질은 벨벳이나 면직물이 주를 이룬다. 보통 길이 약 1.5m의 검은 천을 접어, 가로 약 40cm, 세로 약 25cm의 직사각형 형태로 만든다. 전통적으로는 모서리에 모란꽃, 매화 등 자수 문양을 장식하며, 착용 시 자수 문양이 머리 꼭대기에 잘 보이도록 하고, 파랑색 합사실로 단단히 묶어 고정한다. 오늘날에는 접지 않고 바로 착용할 수 있도록 표준 크기로 제작된 머릿수건도 있다. 머릿수건을 착용하면 보온 효과와 함께 머리카락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식적인 역할도 한다. 또한 과거에는 여성들이 머리에 넓은 흰색 또는 검은색 천을 느슨하게 두르는 풍습도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보기 드물다.



장삼(长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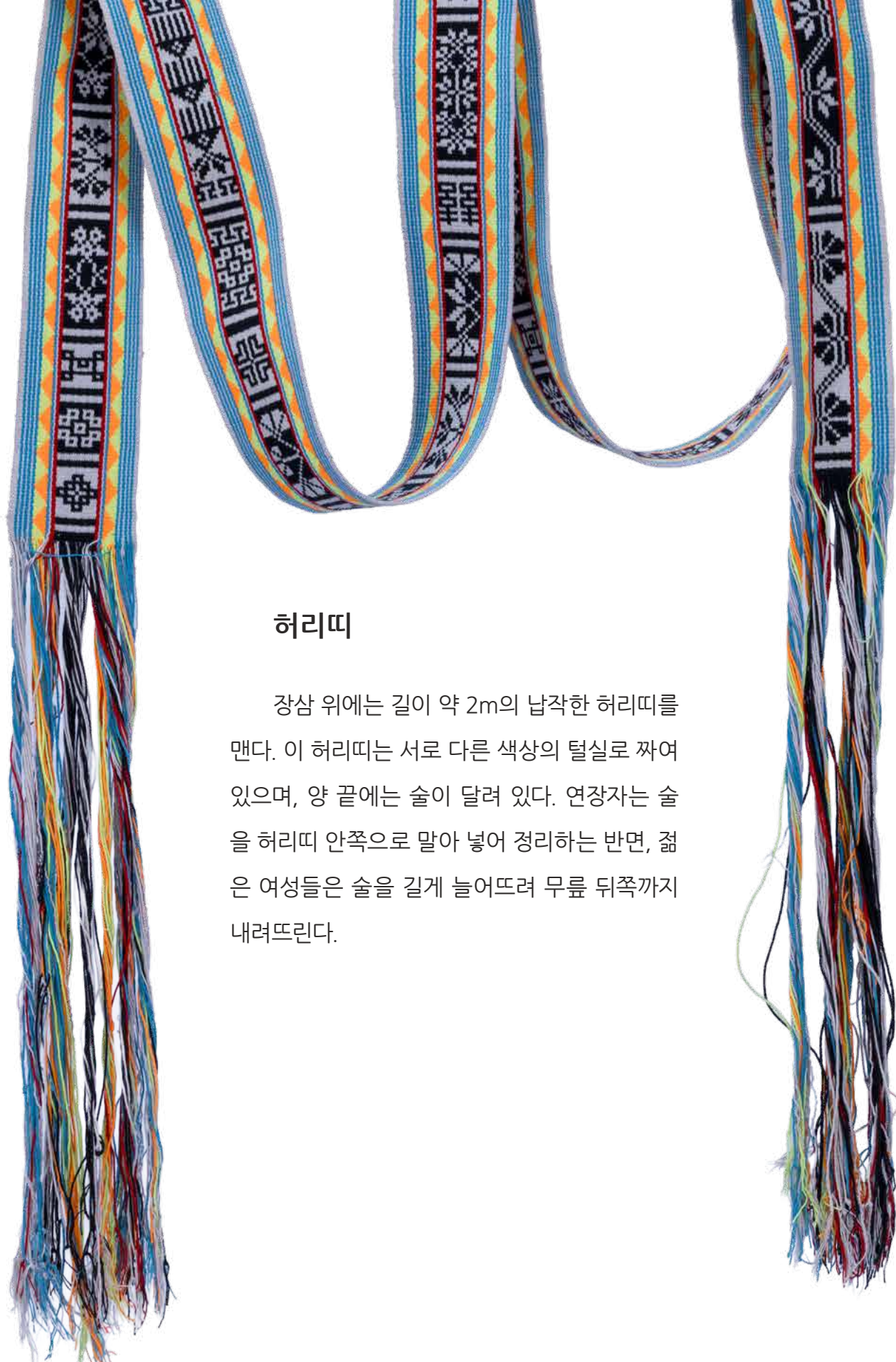
과거 장삼(긴 상의)은 주로 삼베나 야크 털 등으로 제작되었다. 오늘날 여성들은 겨울에는 모직이나 펠트 등으로 만든 장삼을 입으며, 봄, 여름, 가을에는 면마 혼방이나 일반 천으로 만든 장삼을 착용한다.

색상은 파랑과 검정이 많으며, 목둘레, 소매 끝, 앞섶에는 폭 약 5cm의 비단과 꽃무늬 자수 장식 천을 순차적으로 덧댄다. 장삼은 오른쪽 여밈의 사선 깃 구조로, 목과 몸통, 겨드랑이 부분에 달린 단추를 순서대로 채운 뒤 허리띠를 매어 고정한다. 걷기와 작업이 편하도록 장삼의 아랫부분 양옆은 엉덩이 부근까지 길게 트임을 두었다. 전통적인 티베트식 겹옷인 장포(藏袍)는 안팎 섶의 길이가 거의 같은 것과는 달리, 이 지역의 장삼은 안쪽 섶이 허리까지만 오고, 겉자락의 밑단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진관현 주변의 나이 든 여성들은 평상시 소박한 단색 장삼을 즐겨 입으며, 목둘레, 소매, 셔 가장자리에 자수나 비단 장식을 하지 않는다. 색상은 주로 파랑과 검정이며, 착용 시 장삼의 색과 대비되는 색의 조끼와 앞치마를 함께 착용한다. 머리에는 시장에서 구입한 분홍색과 흰색이 섞인 세안용 천수건을 두르며, 수건 표면에는 송이 모양의 꽃무늬 등이 장식되어 있다.





허리띠

장삼 위에는 길이 약 2m의 납작한 허리띠를 맨다. 이 허리띠는 서로 다른 색상의 털실로 짜여 있으며, 양 끝에는 술이 달려 있다. 연장자는 술을 허리띠 안쪽으로 말아 넣어 정리하는 반면, 젊은 여성들은 술을 길게 늘어뜨려 무릎 뒤쪽까지 내려뜨린다.

앞치마

허리띠 위에는 검은색 앞치마를 두르는데, 그 형태는 다양하다. 일부 앞치마는 가장자리에 분홍색 또는 파란색 천 조각으로 장식을 하며, 일부는 자수로 꾸며지고, 또 일부는 자수와 장식 테두리를 모두 갖춘 형태도 있다. 앞치마 밑단의 양쪽 모서리에는 보통 삼각형 모양의 비단 조각으로 장식한다. 앞치마 끈은 흰색 천으로 만들어 평평한 형태를 가지며, 양 끝에는 꽃무늬가 수 놓아져 있다. 앞치마를 매면 끈이 허리띠의 술과 함께 자연스럽게 뒤로 늘어진다.



신발

장삼 아래에는 검은색 통바지를 착용한다. 과거에는 여러 겹의 밑창을 댄 전통 장화를 신었으나, 오늘날에는 꽃무늬를 수놓은 검정 또는 붉은색 천 신발을 신는 것이 유행이다.

기타 장신구

장신구는 비교적 간소한 편으로, 귀에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한 쌍의 귀걸이를 착용한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에는 허리에 ‘팬팬’이라 부르는 은장식을 달았는데, 이 장식에는 은 구슬이 일렬로 박혀 있고, 양 끝에는 짧은 은 사슬 술이 달려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장식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오늘날 젊은 여성들은 예복을 입을 때 주름치마와 비단 상의를 입는 경우가 많고, 장삼을 입는 경우는 드물다. 장삼은 보통 연장자의 전통 의복으로 여겨진다.

이 지역은 과거 라오단(饶丹) 토사의 관할 지역이었으나, 이후 다른 민족과의 교류가 깊어지면서 복식에도 일부 다른 민족 요소가 스며들었다. 이런 복식은 자연스럽게 현지 기후와 풍속에 적응하면서도 소박하고 실용적인 스타일을 형성하였으며, 역사적 변천 과정 속에서 민족 융합의 흔적을 보여준다.



04

ལིག་ཕེར་གྱི་སྐྱེས་མའི་གོས་རྒྱུ།

진찬 러우(金川勒乌)
여성의 복식





① མགོ་ཙམ།
고체

a རུམ་དྲུ་འབག།
둠다두박

b ཀ་ཀོ་ཅི།
카꼬찌

② དར་ཉི།
다르티

③ ཐུ་རེས།
투리

④ ལྷ་ཤོག།
따폭

c མོ་སྒ།
모파

⑤ སུ་རེ་སུ་ཐགས།
푸게수탁

⑥ དར་བེ།
다베

⑦ རུ་བེད།
두베

⑧ ཉེ་སུ་ཐགས།
떼수탁

⑨ མོང་ལོ་བླུང་བེ།
홍로중페

러우진(勒乌镇)은 진촨현 동북부에 위치하며, 진촨현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라오단 토사의 관채가 있던 곳이다. 과거 러우왕(勒乌王)의 관할이었기에 ‘러우’라는 이름이 유래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일부에서 이를 ‘도우(朵乌)’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마을은 고원 온대 몬순 기후대에 속하고 평균 해발 약 2,200m에 이르며, 주민들의 생활 방식은 주로 농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한 벌의 복식은 상의, 술, 주름치마, 앞치마, 신발 등의 의복과 머리장식, 귀걸이, 가우함, 조각 장식이 새겨진 허리띠, 땃사 등의 장신구로 구성된다.





머리장식

과거 여성들은 머리를 두 갈래로 나누어 각각 세 가닥으로 땋은 뒤, 땋은 머리 끝에 ‘투리’라 부르는 털실 합사실을 덧붙였다. 이어 땋은 머리에 은장식 등의 머리 장식을 끼운 뒤 이를 머릿수건 위로 교차하여 감아올렸다. 오늘날에는 장식이 이미 꿰어진 가발 땋은머리를 투리와 함께 머릿수건 위에 직접 감아 두르기도 하며, 일부는 투리의 양 끝을 목뒤로 길게 늘어뜨리기도 한다. 투리에는 주로 두 가지 형식이 있다. 하나는 이미 세 가닥으로 땋아 완성된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실을 풀어놓은 채 땋지 않은 형태이다. 투리의 색상 선택에 있어, 60세 이상 노년층은 주로 남색이나 검은색을 사용하고, 50~60세는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하며, 50세 이하 여성은 주로 붉은색이나 청보라색을 사용한다.

머리에 감아 올린 가발 땋은머리의 가운데에는 현지에서 ‘똥다두박’이라 부르는 타원형 은장식이 놓이는데, 그 위에는 터키석과 산호가 박혀 있다. 양옆에는 ‘카꼬찌’라 불리는 반지 모양의 은장식을 보통 네 개에서 여섯 개 정도 착용하며 이 역시 터키석과 산호로 장식된다. 이 밖에도 양쪽 관자놀이 위쪽에는 터키석과 산호를 꿰어 만든 짧은 짧은 구슬 장식을 여러 줄 매단다. 이러한 장식들은 현지에서 통칭하여 ‘고체’라 부른다. 과거에는 이마 양쪽의 머리카락을 따로 땋아 은장식을 달기도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차림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머릿수건은 현지에서 '다르티'라 불리며, 이는 단바 지역의 머릿수건과 전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지역의 머릿수건은 길이가 비교적 짧고, 네 모서리에 술을 달지 않으며, 접은 뒤 바깥쪽 면에는 꽃무늬와 기하문 등 다양한 문양을 수놓은 것이 많다. 앞뒤 가장자리의 마감 방식도 일정하지 않아, 색실로 처리하거나 장식 없는 소박한 상태로 두기도 한다. 일부 머릿수건은 뒤쪽 가장자리에 나뭇잎 모양의 플라스틱 장식을 달기도 한다. 여성들은 주로 벨벳이나 면직물로 만든 검은색 머릿수건을 착용하며, 흰 천에 꽃무늬 등을 수놓은 머릿수건도 사용한다. 이러한 머릿수건은 머리를 보호하고 햇빛과 비를 막는 기능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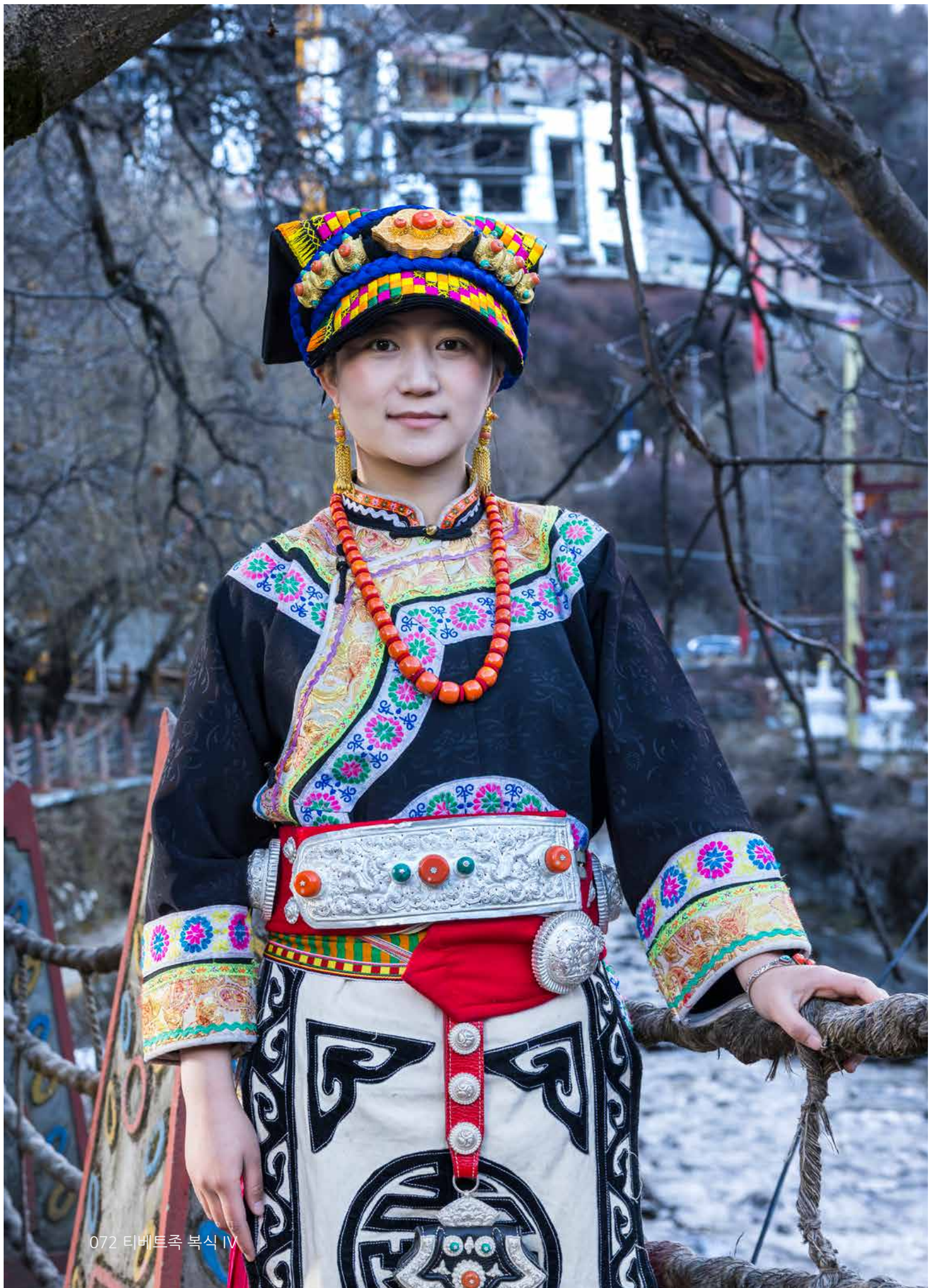


이 지역 사람들은 대봉을 신령한 새로 숭배하기 때문에 머릿수건에 대봉 문양을 수놓는 경우가 많다. 머리 장식 전체가 대봉의 형상을 본떠 설계된 것이라 전해지는데, 머릿수건을 고정하는 머리끈은 대봉이 제압하여 입에 문 뱀을 상징하며, 현지에서 '카꼬찌'라 부르는 은제 장식은 대봉의 날카로운 발톱을 상징한다. 또한 머릿수건에 장식된 여러 색상의 문양은 공작의 깃털을 모방하여 디자인된 것이라 한다.



상의

상체에는 현지에서 ‘스퇴복’이라 부르는 상의를 착용한다. 사선형의 오른쪽 여밈을 가진 구조이며, 밑단 앞뒤와 양옆에 트임이 있다. 목둘레와 소매부리, 섹, 밑단에는 비교적 넓은 비단 테두리를 두르고, 그 안쪽에는 꽃무늬 등의 문양을 수놓은 천 테두리를 한 겹 더 덧댄다. 이 천 테두리는 너비가 일정하지 않고 색채 또한 하려하다. 이러한 장식 테두리를 ‘모파’라 부른다. 재질은 과거에는 주로 비단을 사용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검은색 금사 벨벳 소재를 많이 사용한다. 겨울철에는 스퇴복 위에 ‘따각’이라는 조끼를 덧입기도 한다.





솔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스피복 위에 ‘다베’라 부르는 솔을 걸치며, 길이는 허리까지 내려온다. 과거에는 색상과 크기가 서로 다른 두 장의 천을 위아래로 겹쳐 걸친 형태였으며, 아래로 늘어지는 길이도 서로 달라 무릎 뒤쪽까지 내려오기도 하고 그보다 약간 짧기도 하였다. 오늘날의 다베는 색상과 너비가 다른 두 조각의 비단을 위아래로 겹쳐 꿰매어 제작하는데, 윗단의 비단에는 몇 줄의 큰 주름을 잡고 가장자리에는 짧은 솔을 단다. 아랫단의 비단에는 꽃무늬를 수놓은 천을 덧대고 밑단에는 붉은 실 등 여러 색상의 긴 솔을 늘어뜨린다. 다베는 혼례나 명절 등 특별한 행사 외에는 평소에 하지 않는다. 연령에 따라 다베의 형태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오늘날에는 주로 연장자가 귀창무를 출 때에만 착용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주름치마

여성들은 ‘두베’라 불리는 주름치마를 입는데, 이 치마는 원피스형과 치마형 두 가지가 있다. 과거에는 주로 현지에서 생산된 삼베나 모직물로 만들었으나, 오늘날에는 일반 천이나 비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치마 양쪽의 일부 주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색조가 비교적 통일되어 있다. 착용 시에는 여밈이 몸의 왼쪽에 오도록 돌려 허리띠로 단단히 묶는다.



앞치마

주름치마 바깥에는 ‘떼수탁’이라 부르는 납작하게 짠 허리띠를 매는데, 양 끝에는 술이 달려 있다. 그 위에 다시 ‘홍로중폐’라는 앞치마를 두른다. 이 앞치마는 흰 면포를 바탕으로 하며, 양옆과 밑단에는 검은 천으로 만든 넓은 문양 장식을 더한다. 중앙에는 고대 문자로 알려진 원형 문양을 장식한다. 앞치마 밑단 중앙은 한 뼘 정도 트여 있으며, 그 가장자리에는 붉은 비단실 술이 달려 있다.

신발

과거에는 삼베로 엮은 짚신과 여러 겹 밑창을 덧댄 티베트 장화를 주로 신었으나, 오늘날에는 수공으로 만든 자수 천 신발이나 시장에서 구입한 가죽 신발을 주로 신는다.





기타 장신구

장신구는 티베트 문화권의 다른 지역과 유사하다. 귀에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귀걸이를 하고, 목에는 육각형 가우함과 터키석과 산호 목걸이를 건다. 손목에는 은 팔찌나 상아 팔찌를 착용한다. 허리에는 ‘푸게수탁’이라 불리는 은으로 조각을 새긴 허리띠를 두르는데, ‘푸게’는 은을 뜻한다. 요즘은 도금된 허리띠 등도 사용한다. 허리 앞쪽에는 ‘뎅사’라 불리는 은장식을 착용한다. 이는 산호가 박힌 육각형 가우함과 원형 가우함 모양의 두 개의 장식물을 위아래로 은사슬로 연결한 형태이며, 그 끝에는 약 세 가닥의 은 술이 달려 있다. 뎅사는 본래 여성들이 사용하던 부싯돌 장치에서 유래하였다고 하나, 지금은 순수한 장식품이 되었다. 뎅사를 착용하지 않을 때에는, 우유를 짤 때 사용하는 갈고리 모양과 유사한 작은 은장식을 착용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산호를 박고 끝에 은 술을 단다.

이 복식은 설날, 명절, 귀왕무 행사 등 성대한 의례나 축제 때에만 착용한다. 일상생활에서는 여성들이 주로 장삼을 입거나, 단바 지역의 앞치마, 뒷치마와 유사한 복식을 착용한다.

복식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금기도 있다. 부모 등 집안의 어른이 사망한 경우, 여성은 100일 동안 머리장식과 각종 장신구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이 기간에는 미리 엮어 둔 푸른색 합사 실로 흰 머릿수건만 고정하며, 특히 49일 동안은 머리를 감지 않는다. 남성 역시 100일 동안 머리와 수염을 깎지 못하며, 흰색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오늘날 이러한 복식은 진촨현의 지역적 특색을 대표한다. 홍로중페, 머리장식, 다베 등 전형적인 의복과 장신구는 지역 주민들의 신앙과 미적 취향을 반영하며, 전체 복식 체계는 그들의 인식과 문화적 가치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



05

འབར་ཁམས་བྱད་མེད་གྱི་གོས་རྒྱ།

마얼캉(马尔康)
여성의 복식





① དར་རྒྱ། དར་སྒྲ།
다르티/다르따

② ཁྱོམ་འཛོམ།
똥조

③ སུམ་ལག།
숨락

④ ཉ་སྒྲིང་ཐགས། ཉ་སྒྲིང་མདོ།
따닝탁/따닝튀

⑤ འུམ་རྒྱ། དུམ་རྒྱ།
똥또/다고파

⑥ འགྲོང།
샤또

⑦ འག་ཅི།
샌찌

⑧ མིང་ཀ་ཅི། ལག་སྒྲེ།
랜카찌/락게

⑨ སྒྲོང།
또

⑩ ཐགས་སྒྲ། ཉེ་སྒྲིང་ཐགས། འཛམ་རྒྱ།
탁짜/떼수탁/자리

⑪ འུམ་ལ། འུམ་ལེ།
똥파/똥페

⑫ འཛོག།
복

⑬ གུམ་པ་སྒྲིང་ཐགས།
꿈파 뿌락

⑭ རུལ་ལེན།
응굴렌

⑮ ར་སྒྲ།
라남

⑯ འུ་ལེང།
두베

마얼캉시(马尔康市)는 아바주(阿坝州)의 마얼캉진을 중심으로, 쉰모허(梭磨河) 유역을 주된 범위로 하는 지역이다. 평균 해발고도는 약 3,500m로 고산 협곡 지대의 입체적 기후를 나타낸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은 주로 쉰모(梭磨), 주커지(卓克基), 송강(松岗), 당바(党坝)의 네 대(大) 토사가 관할하였다. 이들의 통치 영역은 대체로 오늘날의 마얼캉시 행정구역과 일치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마얼캉은 흔히 '사토(四土) 지역'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 지역의 전체 복식은 사뽀, 뽀, 장포, 치마, 허리띠, 앞치마, 보, 장화 등의 의복과 머리장식, 귀걸이, 가우함, 조각 장식 허리띠 등의 장신구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장식

과거 여성들은 긴 머리카락에 ‘따닝탁’ 또는 ‘따닝튀’라 불리는 합사실을 함께 엮어 한 가닥 또는 두 가닥의 땃은머리를 만든 뒤, 이를 ‘다르티’ 혹은 ‘다르따’라 부르는 머릿수건 위에 감아올렸다. 이때 땃은머리에는 별다른 장식을 많이 더하지 않았다. 오늘날에는 이미 만들어 놓은 따닝탁과 가발 땃은머리에 ‘숨락’이라 불리는 반지 모양의 은 장신구로 꾸미는데, 이 장신구에는 터키석과 산호가 박혀 있다. 장식한 뒤에는 머릿수건 위에 직접 감아 두르고, 합사실의 양 끝은 목뒤에서 자연스럽게 등 뒤로 늘어뜨린다. 나이에 관계없이 여성들은 대체로 파란색 합사실을 즐겨 사용한다.





땃은머리에 착용하는 장식의 수와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숨락을 3개 장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중앙에 ‘덩주’라 불리는 장식을 달고 양쪽에 각각 2~3개의 숨락을 끼우기도 한다. 덩주는 타원형, 육각형, 구름 모양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대개 터키석과 산호가 장식되어 있다. 또는 ‘탁꼬알’이라 불리는 구슬 장식을 숨락 대신 사용하여 양쪽 관자 부위에 배치하기도 하는데, 탁꼬알은 터키석과 산호를 꿰어 만든 것이다. 이 밖에도 숨락과 구슬 장식을 번갈아 배치하여 착용하는 방식도 있으며, 일부 여성은 땃은머리에 상아 고리 등의 장식을 더하기도 한다. 현지인에 따르면, 과거 마얼캉 일부 지역에서는 이마 앞머리를 여러 가닥의 가는 땃은머리로 만들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마 양쪽에 ‘둠또’ 또는 ‘다고파’라 불리는 가발 땃은머리를 착용한다.





여성들은 평소 머리에 머릿수건을 착용한다. 이 머릿수건은 면직물이나 벨벳을 주된 소재로 하며, 보통 네다섯 겹으로 접어 사용한다. 표면에는 꽃무늬와 기하학적 문양 등 다양한 문양이 수놓아져 있으며, 착용했을 때 왼쪽 또는 오른쪽 가장자리에는 안쪽을 향한 톱니 모양의 문양이 나타난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문양은 대역사 베로자나(贝若扎那)의 가르침에 따라 수놓은 것으로, 불탑을 상징한다. 일부 머릿수건의 뒤쪽 가장자리에는 노란 잎사귀나 물방울 모양 등의 작은 장식이 달려 있으며, 앞쪽 가장자리에는 여러 개의 작은 은방울이 장식되어 있다.

일부 나이든 여성들은 평소 머릿수건을 착용할 때 바깥쪽 자수 문양을 안쪽으로 접어 넣어 전체적으로 소박한 검은색으로 보이게 하며, 숨락 장식도 적게 착용한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예전에는 나이 든 여성과 임산부들이 붉은 머릿수건을 착용했으나, 오늘날에는 검은색이 주를 이루고 붉은색은 보기 드물어졌다. 또한 이 지역 여성들은 흰 바탕에 검은 실로 자수를 놓은 형태의 머릿수건도 착용한다.





샤똌

상체에는 '샤똌'라 불리는 속옷형 상의를 입는데, 길이는 무릎까지 내려 오며 소매가 길어 평소에는 걷어 올리고 있다가 춤을 출 때에만 내려 펼친다. 이러한 상의는 보통 치마와 함께 입는다. 과거에는 삼베나 면포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비단을 사용한다. 가란(궤란) 지역에서는 이 옷을 '워린(沃林)'이라 부른다.





띠

속옷 위에는 ‘띠’라 불리는 겹옷을 입는다. 과거에는 깃 가장자리를 수달 가죽으로 장식했으나, 오늘날에는 붉은색 모직물 등을 사용한다. 섹 부분에는 목단추, 중앙 단추, 겨드랑이단추 세 개가 차례로 달려 있다. 겨울철에 입는 띠는 대개 펠트 원단으로 만들어 두툼하며, 그 밖의 계절에는 천이나 비단 등으로 제작한 것을 입는다.





장포

몸에는 ‘샌찌’라 불리는 장포를 입는다. 깃은 주로 푸루(티베트 모직물)나 비단으로 만들며, 옷은 오른쪽 여밈 구조이다. 쇠 가장자리에는 목단추와 겨드랑이단추를 각각 하나씩 달며, 무릎에서 발목까지 트임을 두고 트임 가장자리는 비단으로 마감 처리되어 있다. 장식 기법에 있어 나이든 여성은 주로 목둘레와 소매부리에만 비교적 좁은 비단 테를 두르지만, 젊은 여성은 폭이 넓은 비단 테를 두르고 겹자락 가장자리에도 장식선을 둘 거 꾸미는 경우가 많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샌찌는 과거에는 양모를 짠 흰색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소재가 다양해졌고 주로 검은 천으로 제작한다. 나이 든 여성들은 샌찌 위에 ‘랜카찌’ 또는 ‘락께’라 불리는 긴 기장의 조끼를 덧입기도 한다. 이는 푸루로 만들고 깃 가장자리에 자뤄(嘉洛) 푸루로 덧대어 장식하는데 대개 검은색 앞치마와 함께 착용한다.







치마

여성은 ‘두베’라 불리는 주름치마를 입는다. 치마는 원피스형과 스커트형 두 가지로 나뉜다. 원피스형은 상반신이 민소매로 되어 있으며, 치마 양쪽의 주름은 여러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전체적인 색조는 통일되어 있다. 착용할 때에는 치맛문을 왼쪽에서 여민 뒤 허리띠로 고정하며, 치맛문 가장자리에는 비교적 넓은 비단 장식이 둘러져 있다. 주름치마의 재질은 면·마·비단·펠트 등이 주를 이루며 사계절 착용이 가능하다. 겨울에 입는 펠트 소재의 치마는 ‘골바’라 하고, 여름에 천이나 비단으로 만든 치마는 ‘라남’이라 부른다.







일부 여성은 스커트형 치마를 입기도 하는데, 치마 양쪽에 큰 주름이 하나씩 있고 주름 아랫부분에 트임을 둔다. 이러한 트임은 보행과 활동을 편하게 하고 통기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장식적 효과도 지닌다.





허리띠

허리에는 ‘탁짜’, ‘떼수탁’ 또는 ‘자리’라 불리는 평평한 편직 허리띠를 두르는데,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실용형 허리띠로, 옷을 여미고 고정하는 기능이 중심이며 주로 나이든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착용한다. 다른 하나는 장식형 허리띠로, 옷을 여미는 기능과 장식 기능을 겸하며, 띠 전체에 여러 색상의 실로 만든 술이 달려 있다. 술은 치마 밑단까지 내려와 몸의 움직임에 따라 사방으로 흔들리며 장식 효과를 낸다. 이는 주로 젊은 여성이 명절이나 축제 때 착용한다.





또한 격식 있는 복장을 할 때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꿈파 뿌락’이라 불리는 장식용 허리띠를 착용한다. 이 허리띠는 편직 기법으로 만든 넓고 평평한 형태이며 양 끝에는 술이 달려 있다. 차오딩(草登) 지역에서는 허리띠 술을 허리 앞쪽으로 늘어뜨리는 경우가 많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허리 뒤쪽으로 늘어뜨려 장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치마

앞치마는 현지에서 ‘꿈파’ 또는 ‘꿈베’라 불리며, 원래는 일할 때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착용하던 것이 점차 장식적 요소가 강한 복식으로 발전하였다. 소재는 다양하여 펠트천, 꽃무늬 펠트천, 비단, 시장에서 구입한 일반 천 등이 사용된다. 나이 든 여성들은 주로 검은색 천 앞치마를 두르고, 젊은 여성은 색상이 화려한 비단 앞치마를 선호하거나 검은색 앞치마 밑단 양쪽 모서리에 비단 장식으로 더하기도 한다. 앞치마의 착용 방식은 다음과 같다. 여름용 상의인 샤되에 주름치마만 입을 때는 치마 위에 앞치마를 두르지만, 샤되 위에 겹옷인 뽕을 덧입을 때에는 앞치마를 매지 않는다. 또한 샌찌를 입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앞치마를 함께 착용한다.

복(博)

이 밖에 차오덩, 가란 등지의 여성들은 허리에 ‘복’이라 불리는 장식물을 두르기도 한다. 복은 네모난 천을 접어 삼각형으로 만든 것으로, 삼각형 표면에는 다양한 색상의 모직천 조각을 꿰매거나 다양한 무늬를 수놓는다. 장식된 면이 엉덩이를 덮으며 자연스럽게 아래로 늘어지도록 착용한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복은 과거 ‘고까’라 불리는 귀한 원단으로 만들었으나, 오늘날에는 일반 천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격식 있는 자리에 착용한다.



부츠

신발로는 코가 위로 들린 장화나 천으로 만든 신발 등을 신는다. 코가 올라간 장화는 밑창을 소가죽으로 만들며, 장화의 몸통과 윗 부분은 검은 가죽이나 붉은색 펠트 등으로 제작한다.





기타 장신구

장신구는 대부분의 티베트 문화권 지역과 유사하다. 귀에는 터키석과 산호가 박힌 ‘규함’이라 불리는 술이 달린 귀걸이를 착용한다. 목에는 경제적 형편에 따라 산호 목걸이와 한 개에서 세 개의 가우함을 건다. 손목에는 은팔찌나 상아 팔찌를 착용한다. 허리에는 허리를 한 바퀴에서 세 바퀴 정도 감을 수 있는 조각 띠를 두른다. 이 띠는 검은 가죽을 바탕으로 여러 개의 은화나 은방울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으며, 한쪽 끝에는 터키석과 산호가 박힌 타원형 은 장식을 단다. 허벅지 부위에는 산호가 박힌 은집 단검을 차고, 허리 앞쪽에는 주머니 등의 장식물을 단다.

마얼강 일대에는 많은 향과 진이 있으며 각 지역은 깊은 문화적 전통을 지니고 있으나, 복식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차이가 적고 통일된 양식을 보인다. 지역 주민들의 의복 착용 방식과 장신구 패용 방법을 통해, 소마강 유역의 다원적 문화가 잘 계승되고 보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06

འབར་ཁམས་སྐྱེས་པའི་གོས་རྒྱ།

마얼캉(马尔康)
남성의 복식





① དར་ཏྲི
다르티

② གཤོང་།
샤똬

③ རོང་ཕག
롱삭

④ གུམ
가우함

⑤ རྒྱུ་ལྷག
복주머니

⑥ རྒྱལ་རོང་འཕེག་ཅན།
겔롱 빅짜

⑦ རུག་ཅན།
득짜

마얼강 남성의 복식은 전체적으로 티베트 지역 다른 곳의 남성 복장과 큰 차이는 없지만, 세부적인 면에서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낸다.

한 벌의 복식은 모자, 셔츠, 긴 겹옷, 바지, 신발 등의 의복과 귀걸이, 가우함, 허리칼 등의 장신구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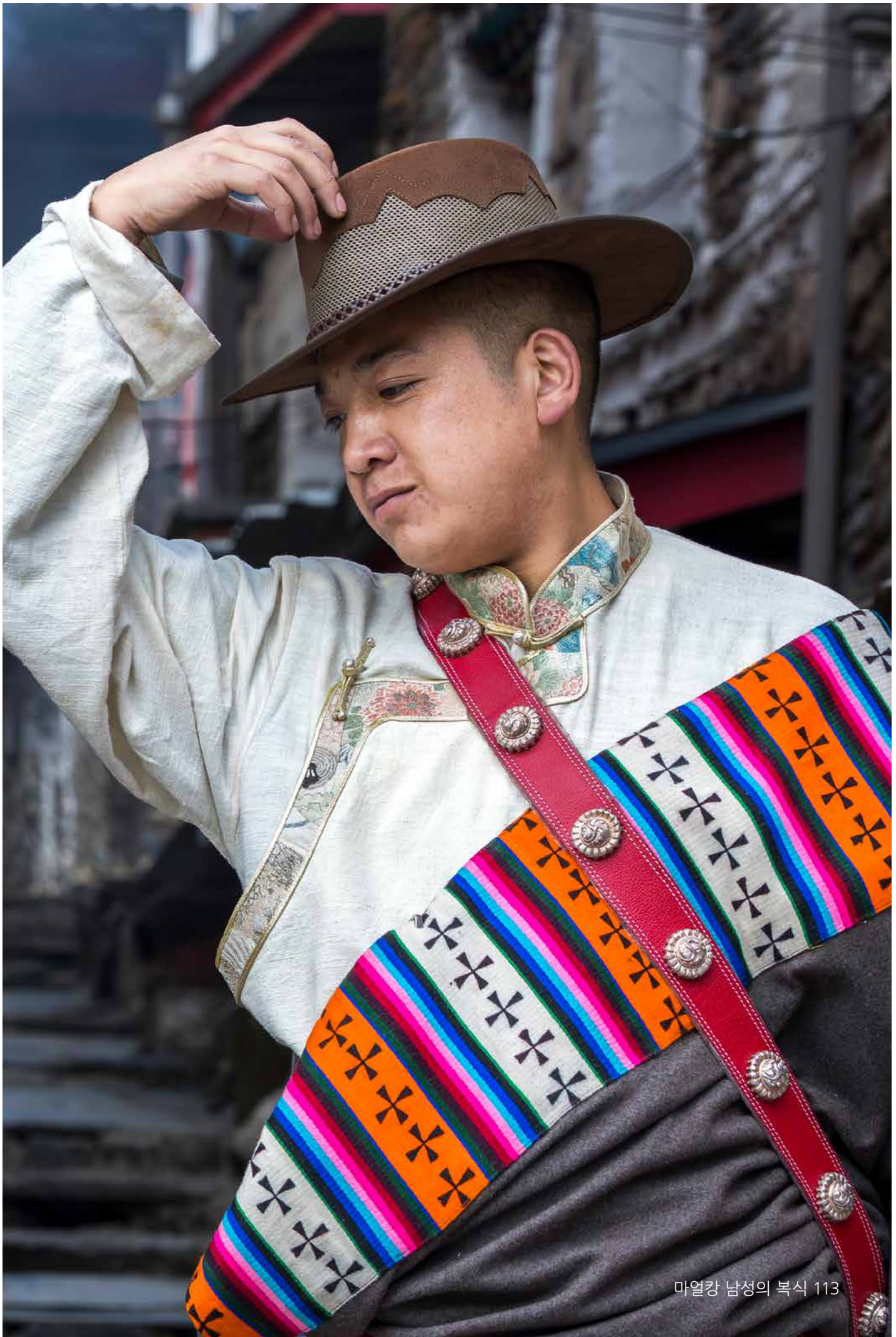
머리 스타일

과거 남성들은 머리를 길러 한 갈래 또는 두 갈래의 세 가닥 땡은머리를 하였다. 땡은머리 끝에는 검은 비단실이나 소의 털실 등으로 만든 합사실을 섞어 땡았으며, 그 끝에 다시 붉은 비단실을 엮어 머리 위에 감아올리고, 끝부분이 정수리 좌우에서 자연스럽게 늘어지도록 하였다. 격식 있는 자리에는 땡은머리 위에 상아 고리 등의 장식물을 더했으며, 머리 전체를 검은 수건으로 감쌌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오늘날 남성들은 대체로 단발을 하고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자

모자는 통칭하여 ‘다르티’라 하며, 그 종류에는 금화모, 양모, ‘거티즈디’라 불리는 여우 가죽 모자, 몽골식 펠트 모자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금화모는 검은 펠트를 바탕으로 한 원통형 모자로, 겉면을 비단으로 감싸고 상단에는 금사로 수놓은 세 층의 물결무늬 등을 장식한다. 모자 꼭대기에는 둥근 비단 조각을 덧대고, 가장자리에도 금사 물결무늬를 두른다. 네 개의 귀덮개는 토끼 등 작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며 겉을 덮지 않는데, 이 모자는 주로 겨울에 착용한다. 양모(洋帽)는 외지에서 구입한 예절용 모자로, 주로 격식 있는 자리에 착용하며 평상시에는 햇빛 차단 모자로도 사용한다. ‘거티즈디’ 여우가죽 모자는 여우 가죽 한 장을 통째로 사용하거나 가죽 겉면을 비단으로 감싸 제작하며, 겨울철 예복 차림에 주로 착용한다. 몽골식 펠트 모자는 양모로 만들며, 몸체가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이다. 꼭대기에는 붉은 비단실 술을 단다. 바깥쪽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파란색과 붉은색 두 줄의 장식띠를 두르며, 챙은 위로 접혀 올라가며 앞부분의 챙이 약간 넓다. 이 모자는 명절이나 귀창무를 출 때 착용하였으나, 지금은 보기 드물다.



셔츠

상체 안쪽에는 현지에서 ‘샤뎬’라 부르는 티베트식 셔츠를 입는데, 고치실 비단이나 일반 비단으로 만들며 대체로 흰색이다. 깃과 앞섶 가장자리에는 비단 장식을 덧댄다.



장포

여름에는 면포, 코듀로이, 모직 등으로 만든 가볍고 넉넉한 장포를 입으며, 이를 ‘롱샷’이라 부른다. 색상은 붉은색, 회색, 검은색, 파란색이 주를 이룬다. 겨울에는 양가죽이나 새끼 양가죽으로 만든 장포를 입는데 이를 ‘두슈조’라 하며, 양모나 소털로 만든 두꺼운 장포인 ‘푸동’을 입기도 한다. 양모로 만든 장포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 부드럽고 섬세한 양모로 만든 것은 예복으로 사용하고, 거친 양모로 만든 것은 일상복으로 입는다. 명절 등 격식을 차린 자리에서는 푸루나 비단 등으로 만든 장포를 착용한다.





한때 장포의 깃, 앞섶, 소매 끝, 옷자락에는 수달이나 표범 등 짐승가죽으로 만든 넓은 테두리 장식을 달았으나, 오늘날에는 꽃무늬 푸루나 비단을 사용하여 다섯 손가락 너비의 장식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이라면 최소한 꽃무늬 푸루로 가장자리를 두른 백갈색 장포 한 벌은 갖추어야 한다고 하며, 이를 ‘무산(毳衫)’이라고도 부른다. 착용할 때에는 옷자락을 무릎 높이까지 끌어올린 뒤 허리띠로 단단히 묶는다.

전통 허리띠는 양모를 붉은색이나 노란색으로 염색하여 짠 것으로, 양 끝에 술이 달려 있으며 허리에 세 바퀴 감아 매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늘날에는 시장에서 구입한 천 허리띠나 붉은색 계열의 비단 허리띠를 주로 사용한다.

바지

과거, 일상생활에서는 삼베나 면으로 만든 바지를 입었고,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에서는 명주로 만든 넓은 바지를 입었다. 바지 끝은 부츠 밖으로 늘어뜨렸다. 오늘날에도 명절 차림을 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여전히 흰색 명주 바지를 입는다.

신발

현지에서는 신발을 ‘독짜’라 부르며,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첫째, ‘딱싸짜’라 불리는 장화로, 밑창은 가죽으로 만들고, 발등 부분은 검은색과 붉은색 소가죽을 이어 붙였다. 발목 위부분은 꽃무늬 푸루를 사용하고, 몸통은 코듀로이로 제작하였다. 솔기에는 붉은 가죽으로 장식하였으며, 주로 격식 있는 자리에서 착용하였다.

둘째, ‘파락짜’라 불리는 장화는 발등 부분은 검은 소가죽으로 만들고, 솔기에만 붉은 가죽 장식을 더했으며, 나머지는 염색하지 않은 가죽을 이어 붙여 일상적으로 신었다. 과거 일부 지역에서는 족제비 가죽으로 밑창을 만든 검정 가죽신을 신기도 했다. 겨울에는 발을 보호하기 위해 장화 안에 양털이나 짚으로 만든 깔창을 넣었다. 이들 장화는 간쯔(甘孜)지역에서 특히 정교하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간쯔 장화’라고도 불린다. 여름에는 짚신이나 천 신발을 신는다.

장화 끈은 검은색과 흰색, 또는 붉은색과 노란색 실로 꼬아 만들고, 위아래 테두리에는 다양한 색실로 무지개무늬를 넣는다. 이 외에도 흰 양모로 꼬거나 천으로 만든 끈도 있다.



장신구

과거 남성들은 왼쪽 귀에 은으로 만든 고리형 귀걸이를 착용했는데, 귀걸이 윗부분 앞쪽에는 산호 세 개를 박은 여의보 모양 장식이, 아래쪽에는 모래시계 모양의 웅창(翁尙) 장식이 달려 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청과(靑稞, 티베트보리)를 닮았으며, 중앙에는 산호 구슬이 꿰어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와 같은 귀걸이를 착용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목에는 산호 목걸이와 가우함을 착용한다. 어깨에는 큰 가우함을 비스듬히 메는데, 어깨끈은 녹색 또는 붉은색 펠트를 사용하고, 그 위에는 은으로 만든 꽃 모양 장식과 은판 등을 장식한다. 허리 앞쪽에는 복주머니와 부싯돌 장식을 차고, 한 쌍의 뿔송(珞松) 장식을 함께 늘어뜨린다.



허리 왼쪽에는 ‘갯롱빅짜’라 불리는 특수한 단검을 차는데, 칼자루는 뿔로, 칼집은 나무나 가죽 등으로 만들며, 칼집 겉면은 은으로 장식하고 산호 여섯 개 정도를 박는다. 칼집 앞쪽에는 젓가락 한 쌍을 꽂을 수 있는 젓가락집이 달려 있다.

오늘날, 이 전통 복식은 주로 결혼식, 설날 등 큰 행사에서 착용하며, 일상에서 입는 경우는 드물어졌다. 시대가 변하면서 의복과 장신구의 일부 전통적 특징은 희미해졌지만, 전체적으로는 민족적, 지역적 고유한 특색이 여전히 유지, 전승되고 있다.





07

ཁྲོ་ཆུ་རི་རྒྱུད་ཀྱི་སྐྱེས་མའི་གོས་རྒྱུ།

대헤이수이(大黑水)
여성의 복식





① ཀུ་ནལ། རམ།
꾸달/알

② འོ་བ་ཟི། ཀུ་ནེ་ཟ།
솜찌/꾸데바

③ ཡེ་ས།
올

④ ཡེ་ས།
예사

⑤ ཅིག་སྒོ་སྒྲ།
척괴

⑥ འལ།
설

⑦ རམ། འལ་ལེས།
각시

a བོ་ར་ལོ།
골로

b མོ་ཡོག་ལང་ས།
모옥래파

c ལ་ཀུ་ལང་ས།
라꾸래파

⑧ སྒོ་སྒོ།
드로고

⑨ རིག་ལྷེ་སེ།
락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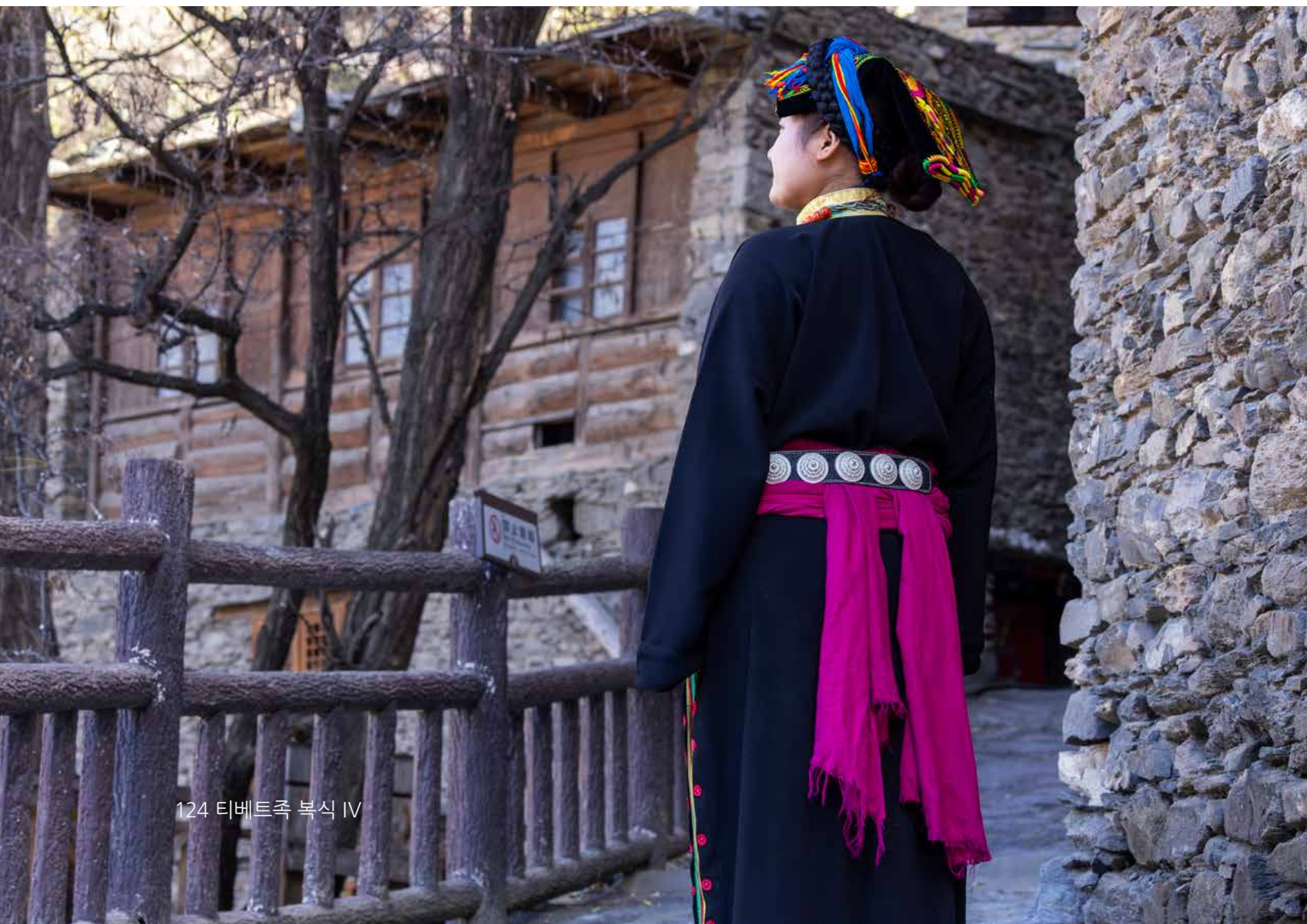
⑩ རིག་ཀ།
텍카

⑪ རྩ་ཟ། རྩ་དགོ།
주자/규게

헤이수이허(黑水河)는 야커샤 설산을 지나 동남 방향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티베트어 명칭은 ‘치지’, ‘초지’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이 하천이 흐르는 일대를 ‘대헤이수이 지역’이라 한다. 대헤이수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자룽 18토사 가운데 하나인 쉰모 토사의 관할 구역에 속하였다. 헤이수이허 유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헤이수이인이라 불리며, 이들은 토번 왕조 시기 국경을 지키던 군사들의 후손으로 여겨진다. 헤이수이현의 평균 해발고도는 약 3,500m이며, 고원 계절풍 기후에 속한다. 주민들의 생활 방식은 주로 농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서얼구(色尔古) 여성의 복식

한 벌의 복식은 셔츠, 장삼, 허리띠, 바지, 신발 등 의복과 머리 장식, 셸, 바늘질함 등의 장신구로 구성된다.



머리 스타일

과거 머리 땋는 방식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천 조각과 머리카락을 함께 세 가닥으로 땋은 뒤, 현지에서 ‘옐’이라 부르는 합사실을 추가로 엮어 넣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천 조각과 머리카락을 중간까지 땋은 뒤, 옐 실로 이어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땋은머리에는 장신구를 많이 달지 않았다. 오늘날에는 현지에서 ‘꾸달’ 또는 ‘왈’이라 부르는 가는 가발 땋은머리에 합사실을 연결한 뒤 머리 위로 머릿수건을 감아 고정한다. 합사실의 양 끝은 뒷목이나 관자놀이 쪽으로 늘어뜨리며, 주로 파란색 실로 만들고 때때로 여러 색의 털실로 감아 짧은 술 장식으로 꾸민다.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여성들이 가발 땡은머리에 ‘예사’라 부르는 금은 장신구를 끼운 뒤 머릿수건을 감는다. 예사는 반지 모양이며, 산호를 박아 장식한다. 때로는 예사를 합사실 위에 직접 끼우기도 한다. 일부 지역 여성들은 머리 땡은 곳에 밀랍 고리나 상아 고리 등의 장신구를 추가로 착용하기도 한다.





머릿수건

머릿수건은 현지에서 ‘솜찌’ 또는 ‘꾸데바’라 불리며, 노동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착용하였다. 과거에는 주로 면직물로 만들었으나, 오늘날에는 벨벳 등의 소재를 주로 사용한다. 색상은 검은색이 가장 흔하다. 머릿수건 표면에는 다채로운 실로 세 조각의 문양을 수놓는데, 각 문양 사이에는 세로 방향으로 다소 넓은 붉은색 펠트 띠 두 줄을 덧댄다. 펠트 띠 위에는 여러 개의 은제 꽃장식을 일정하게 배열하여 장식한다. 머릿수건 양쪽 가장자리에는 색실로 톱니 모양 문양을 안쪽으로 향하게 수놓고, 뒤쪽 가장자리는 색실로 감싸 마감한다. 앞쪽 가장자리는 가장자리를 감싸 마감한 형식과 그렇지 않은 형식 두 종류가 있다. 일부 머릿수건은 표면 전체에 꽃과 기하학적 문양을 촘촘하게 수놓고, 그 위에 작은 금색 구슬을 덧붙여 장식하기도 한다.

머릿수건 안쪽에는 털실로 짠 안감 수건을 덧대어, 겨울철에는 보온 효과를 주고 동시에 세척과 유지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장기간 착용 후에는 머릿수건 전체를 세탁할 필요 없이 안감만 교체하거나 세탁하면 된다. 오늘날 시장에는 다양한 색상과 재질의 안감 수건이 판매되며, 사용 시에는 네 귀퉁이를 머릿수건 안쪽에 간단히 꿰매어 함께 착용한다.





셔츠

상체 안에는 현지에서 ‘척괴’라 부르는 오른쪽 여밈 형식의 티베트식 셔츠를 착용한다. ‘척’은 현지 언어로 ‘안쪽’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면직물이나 면마 혼방으로 만들었으나, 오늘날에는 시장에서 구입한 다양한 원단을 사용하며, 색상은 대체로 검은색이 많다.





장삼(긴 겹옷)

셔츠 위에는 ‘각시’라 부르는 장삼을 착용한다. 각시는 천 소재 등으로 제작되며, 색상은 검은색과 갈색이 주를 이룬다. 안자락은 허리까지만 내려오는 비교적 짧은 형태이며, 안깃 안쪽에는 비단 등의 재질로 안감을 댄다. 착용 시 이 안감 부분을 접어 바깥으로 드러내 보이게 한다. 양쪽 허벅지 부분에는 트임이 있는데, 과거에는 트임 가장자리에 별도의 장식을 하지 않았고 하더라도 단색 천을 덧대는 정도였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색상의 천과 폭이 다른 비단을 여러 겹

으로 덧대어 장식하며, 일정한 간격으로 ‘골로’라 불리는 붉은 펠트로 만든 원형 장식을 달고, 트임 윗부분에는 ‘거샤’ 문양을 수놓는다. 옷자락 끝부분에는 다양한 색실로 위쪽을 향한 톱니 문양을 수놓고, 그 사이사이에 ‘라꾸래파(3잎꽃과 5잎꽃)’ 및 ‘모욕래파(8잎꽃)’ 등의 전통 꽃 문양을 더한다.

허벅지 양측의 트임은 계단을 오르 내리거나 노동을 할 때 움직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구조이다. 노동 중이거나 날씨가 더울 때에는 옷자락 한쪽을 허리띠에 끼워 넣어 활동을 더욱 자유롭게 한다. 전통 풍습에 따르면 각시는 여성이 일상적으로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복장으로, 이를 입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로 여겨져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허리띠

허리띠는 현지에서 '주자' 또는 '규계'라 불리며, 길이는 약 4m, 폭은 약 40~60cm이다. 대체로 연장자는 폭이 좁은 것을, 젊은 층은 폭이 넓은 것을 매지만 색상은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붉은색을 사용한다.



바지

하체에는 현지에서 ‘매괴’라 부르는 통이 넓은 바지를 입는다. 과거에는 주로 면직물로 만들었고, 바짓단에 꽃무늬 등을 수놓았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원단으로 제작하며, 색상은 붉은색과 검은색이 주를 이룬다.

신발

과거 여성들은 짚신이나 천 신발 또는 ‘꼭조바’라 부르는 앞코가 위로 들린 티베트식 장화를 신었다. 이 장화의 밑창은 소가죽으로 만들고, 장화 몸통은 펠트 등의 재료로 제작하였다. 오늘날에는 특별한 행사 자리에만 꼭조바를 착용하며, 평상시에는 시장에서 구입한 천 신발이나 가죽신 등을 신는다.

장신구

목에는 ‘셜’이라 부르는 납작한 형태의 장신구를 착용한다. 본체는 은으로 제작하며 부싯돌을 닮은 형태이고, 터키석과 산호를 박아 장식한다. 금속 고리로 연결하여 목걸이처럼 건다. 그 밖의 장신구는 다른 티베트 지역과 유사하다. 귀에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술 장식 혹은 고리 형태의 귀걸이를 달며, 목에는 가우함과 산호 목걸이를 걸고, 손목에는 은팔찌나 상아 팔찌를 찬다. 허리에는 ‘락쭈’라 부르는 조각 장식이 새겨진 허리띠를 매는데, 검은 가죽을 바탕으로 한쪽 끝에는 산호를 박은 타원형 은장식을 달고, 띠를 따라 여러 개의 은방울이 일렬로 배열된다. 허리 옆에는 ‘홀’이라 부르는 바느질함을 차는데, 이는 산호를 박은 해와 달 모양의 은 장신구이며 아래쪽에 다양한 색상의 비단 술이 달려 있다. 허리 양쪽에는 루훅 등지의 뿔송과 유사한 장식을 하나씩 단다.



루화(芦花), 샤스뒤(沙石多) 지역 복식

상의에는 셔츠를 입고, 그 위에 ‘옌과 짜’라 부르는 조끼를 착용한다. 조끼는 좌우 부분에 트임이 있고, 트임 위쪽에는 ‘거샤’ 문양을 수놓아 장식한다. 하의로는 반신 치마를 매치하여 착용하는데, 치마 양쪽에 비교적 높은 트임이 있으며, 트임 가장자리와 밑단은 색실로 좁게 테를 둘러 마감한다. 치마 전체는 소박하고 단아한 스타일로 별도의 자수나 비단 장식은 하지 않는다. 이 지역 여성들은 또한 ‘드로고’라 부르는 티베트식 장포를 입는다. 형식은 오른쪽 여임 형태이며, 밑단은 트임이 있는 형식과 없는 형식 두 가지가 있다. 과거에는 소매와 깃 가장자리에 동물 가죽을 덧대었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비단을 사용한다. 의복의 소재 역시 과거의 양모, 소털, 삼베에서 벗어나 현재는 다양한 직물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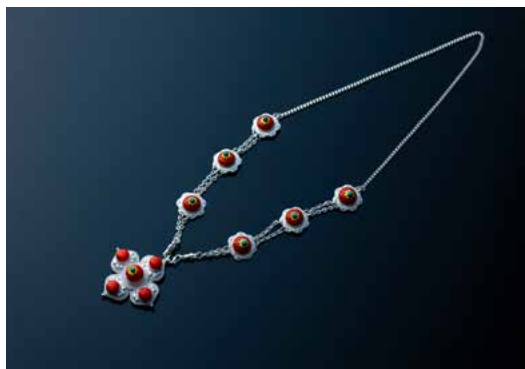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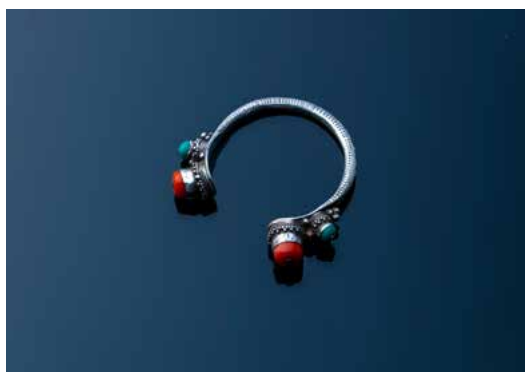
일부 지역 여성들은 '로네'라 부르는 주름치마를 입는데, 이는 여성이 시집갈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혼수품이며, 주로 중요한 행사나 격식 있는 자리에서 착용한다. 주름치마 위에는 '텍카'라 부르는 납작한 허리띠를 매는데, 다양한 색실로 만든 긴 술이 달려 있다. 술은 허리에서부터 몸의 앞뒤로 길게 늘어지며 길이는 치마 자락에 이를 정도이다. 허리띠 곁에는 다시 '찌패디'라 부르는 삼각형 장식을 추가로 착용한다. 이 장식은 다양한 색의 삼각형 펠트 조각을 겹쳐서 만들며 엉덩이 부분을 덮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길상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 장식은 치마와 함께 착용할 수도 있고, 장포를 입을 때에도 함께 착용할 수 있다.







헤이수이허 유역 각 지역의 의복 착용 방식과 장식 양식은 하천의 흐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상류의 샤스뒤 등지의 복식은 색채가 화려하고 종류가 다양하지만, 하류로 내려갈수록 서얼구 등지의 의복은 점차 간결하고 실용적으로 변하며 장신구도 적어진다. 이는 지세의 높고 낮음이 복식에 미치는 영향을 뚜렷이 보여주며, 동시에 유역 내에서 복식 양식이 차이를 지니면서도 서로 문화적 연관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08

ཅི་མུ་ལི་འུ་བུ་མེད་ཀྱི་གོ་ས་རྒྱུ།

헤이수이 즈무린(黑水知木林)
여성의 복식





① ཀོ་ལ་བྱི་རྩ།
꼰로수두

② འཇུ་ས།
주사

③ རུ་ཁ།
두체

④ ལུ་ས་ལ།
누팔라

⑤ མཛོ་ལ་ཕོ་ས།
졸라찌

⑥ འཇུ་འ་བདུན།
자둥

⑦ ཆབ་མ།
조각무늬 허리띠

⑧ རུ་རྩ།
주데

⑨ གད་ས།
때파

룽취나(荣曲纳)는 마오얼가이(毛尔盖) 남부에서 헤이수이현(黑水县)으로 흘러드는 하천으로, 소헤이수허(小黑水河)라고도 불린다. 이 유역에 속한 즈무린(知木林) 등지는 과거 대부분 송판현(松潘县)의 관할이었으나, 1957년부터 헤이수이현으로 편입되었다.

즈무린 지역 여성의 복식은 대헤이수이 지역의 복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 지역의 복식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제작 공정 또한 비교적 복잡하다. 한 벌의 복식은 모자, 속셔츠, 장포, 줄라찌, 허리띠, 신발 등의 의복과 머리장식, 귀걸이, 상아 팔찌 등의 장신구로 구성된다.



머리 스타일과 모자

과거 여성들은 이마 양옆에 ‘다쿠’라 불리는 땃은 머리를 각각 한 가닥씩 만든 뒤, 이를 나머지 머리카락과 함께 세 가닥으로 합쳐 땃았다. 땃은 머리에는 장식을 꿰어 달았으며, 끝부분에는 합사실을 함께 엮어 넣고 반시계 방향으로 머리 위에 감아올려 고정한 뒤, 꼬리 부분을 왼쪽 귀밑으로 늘어뜨렸다. 오늘날에는 ‘꼴로수두’라 불리는 가발 땃은머리 끝을 털실 합사실에 연결





하고, 그 위에 '주사'라 하는 은제 머리장식을 단다. 땃은머리 중앙에 위치한 주사는 타원형으로, 그 위에 터키석과 산호를 박아 장식한다. 땃은머리 양쪽에는 각각 여덟 잎 꽃모양의 은 장식이 달린다. 또한 좌우 관자놀이 부분에는 안장 모양의 고리가 한 쌍씩 있으며, 그 중앙에는 '두체'라 불리는 상아 고리가 끼워져 있다. 합사실의 재질은 비단실이나 털실이 주를 이루며, 색상은 분홍, 파랑, 검정 등이 많다. 젊은 여성들은 특히 분홍색을 선호하며, 합사실 끝에는 여러 색상의 비단 띠를 묶어 합사실과 함께 장식용 술처럼 늘어뜨린다. 현지 노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에는 땃은머리 끝에 은박을 감아 장식하는 풍습도 있었다고 한다. 머리장식을 마친 뒤에는



세 가닥의 가발 땡은머리와 합사실을 함께 가볍게 꼬아 머리 위에 감아올리며, 색실 술은 목덜미 뒤로 길게 늘어뜨린다. 길이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절한다. 이 지역 여성들은 머릿수건을 착용하는 풍습은 없다. 겨울철에는 방한을 위해 ‘와다바’라 불리는 여우 가죽 모자를 쓰는데, 모자의 겉면은 일반 천이나 푸루로 만든다.



셔츠

상의에는 티베트식 속 셔츠를 입는다. 깃에는 비단으로 테 장식을 두른 형식과 장식이 없는 소박한 형식이 있으며, 단추는 목단추, 중간단추, 겨드랑이단추 세 개로 구성된다. 색상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다.

장포

셔츠 위에는 ‘로네따호’라 불리는 반소매 장포를 입는다. ‘로네’는 양모를 의미한다. 장포의 깃과 앞섶 가장자리는 분리되어 있으며, 깃은 서 있는 형태의 입깃이며 펠트로 만들고 모피로 테를 두른다. 오늘날에는 천연 모피 대신 인조 모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앞섶 가장자리는 바깥쪽으로 접어 꺾으며, 접힌 뒤의 앞섶 위쪽 모서리에는 비단실로 만든 짧은 술을 달아 장식한다. 여름에 입는 로네따호는 소매가 짧고 넓으며 길이는 팔꿈치까지 내려온다. 소매 끝과 아래 앞섶 가장자리에는 폭이 비교적 넓은 꽃무늬 푸루로 덧대고, 그 가장자리를 색실로 둘러 마감한다. 더운 날씨가 나 노동 시, 혹은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여성들이 오른쪽 소매를 벗는 풍습이 있다. 겨울철에는 양모로 짠 긴소매 장포를 입는데, 이를 현지 방언으로 ‘로네’라 한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와 같은 긴 장포의 왼쪽 어깨 부분에 융중(卐) 문양이나 불탑 문양 등을 수놓았으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장식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줄라찌



여성들은 결혼식, 설날, 말달리기 축제, 가무 공연 등 성대한 행사 자리에 ‘줄라찌’라 부르는 주름이 많은 옷을 입는다. 이 의복의 상반부는 소매가 없고, 곧은 깃에 정면의 여밈 구조이며, 하반부는 주름을 잡은 치마 형태로 되어 있다. 현지 노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 옷을 착용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20세기 중반부터 점차 입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한다.

줄라찌는 제작 소재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삼베로 만든 것은 ‘소포’, 일 반 천으로 만든 것은 ‘깨과’, 양모로 만든 것은 ‘로네까보’ 또는 ‘로네데과’, 푸루로 만든 것은 ‘푸데과’라 한다. 이 가운데 삼베로 만든 소포가 가장 먼저 등장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재질의 형식이 차례로 유행하였다. 오늘날 줄라찌의 주름 부분은 여러 접합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되며, 소재의 조합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명칭을 지닌다. 서로 다른 색상의 천을 이어 주름을 만든 형식, 삼베와 푸루를 조합한 형식, 자ړ 푸루와 펠트를 조합한 형식, 단순한 갈색포와 다른 색상의 펠트를 조합한 형식 등이 있다.

줄라찌의 상반부는 삼베와 푸루를 사용하여 안감과 겉감의 이중 구조로 이루어지며, 등 중앙에는 장식용 천 조각을 꿰매 넣는다. 일부 치마는 앞여밈과 밑단에 동물 가죽을 넓게 둘러 장식하였으나, 현재는 인조 모피로 대체되었다. 치마의 주름에는 1~3줄의 서로 다른 색상의 비단 띠를 가로로 배열하여 무지개처럼 화려하게 장식하며, 이러한 색띠 장식이 없는 유형도 존재한다. 착용 시에는 치마의 앞여밈을 몸 앞쪽에서 여며 감싼다. 겨울에는 펠트 등 두꺼운 재질로 만든 줄라찌를 입고, 여름에는 일반 천이나 삼베 등 가벼운 소재로 만든 것을 착용한다.

노년층 여성들의 복장은 루화 등지와 유사하여 티베트식 속 셔츠 위에 조끼를 입고, 조끼의 깃에는 자ړ 푸루로 테를 두른다. 하체에는 천 소재로 만든 검은색의 소박한 스타일의 치마를 입는다. 젊은 여성들은 양모로 짠 치마를 입으며, 허리 부분과 앞여밈에 비교적 넓은 푸루를 덧대고 색실로 가장자리를 마감한다. 치마 밑단 양옆에는 트임이 있으며, 그 트임 가장자리는 비단으로 테를 두르고, 트임 위쪽에는 잎사귀 문양을 수놓아 장식한다.





허리띠

허리띠는 현지에서 ‘주데’라고 하며, 양모로 짜서 만들고 붉은색과 노란색이 주를 이룬다. 착용 시에는 장포나 다주름 옷 바깥에서 2~3바퀴 평평하게 감은 뒤 허리 뒤쪽에서 매듭지어 고정하고, 양 끝의 술은 자연스럽게 밑단까지 늘어뜨린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의 복식에서는 앞치마를 착용하는 풍습이 없었으며, 허리에 별도의 장신구를 달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일부 사람들이 앞치마를 착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신발

신발은 현지에서 통칭하여 ‘때파’라고 한다. 과거 여성들은 ‘코마’라 불리는 티베트식 장화를 신었는데, 밑창은 소가죽으로 만들고 장화통은 푸루로 제작하였다. 현재는 축제 등 특별한 행사 외에는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

장신구

여성들은 ‘누팔라’라 불리는 은제 귀걸이를 착용한다. 이 귀걸이는 크기가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나뉘며, 모두 산호석이 장식되어 있고, 끝부분에는 은으로 만든 술이 달려 있다. 작은 귀걸이에는 터키석을 박은 형식도 있으며 귀에 직접 단다. 큰 귀걸이는 한 쌍을 가는 산호 줄로 연결하여 목에 걸어 가슴 앞에 늘어뜨리거나, 가발 뒤편머리에 얹어 관자놀이 양옆으로 늘어뜨리기도 한다. 과거에는 큰 귀걸이를 귀에 직접 착용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귓불이 처지거나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장식이나 가슴 장식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밖의 장신구는 다른 티베트 지역과 대체로 유사하여 은 사슬을 단 작은 가우함을 목에 걸고, 손목에는 ‘자둥’이라 불리는 상아 팔찌를 차며, 허리에는 은 장식이 달린 조각 무늬 허리띠를 맨다.

또한 헤이수이현에는 ‘카스다원(卡斯达温)’ 또는 ‘갑옷 춤’이라 불리는 전통 무용이 전해진다. 과거 전쟁에 출정하거나 귀환 시 남성들은 특수 제작한 투구와 갑옷을 갖추고 무기를 들 채 이 춤을 추었다. 여성들 또한 지역 복식을 착용하고 함께 춤을 추었다. 이로 인해 이 지역 여성 복식은 ‘카스다원 복식’이라고도 불린다.

시대의 변천과 역사적 격동 속에서도 이 지역 여성들은 고유한 지역 문화를 꾸준히 잘 계승해 왔다. 이러한 의복과 장신구들은 흑수현에서 온전히 보존되어, 본래의 맛을 그대로 간직한 전통 복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09

ཁྲི་ཚང་འོད་ལུང་གི་གོས་རྒྱ།

원찬 위룡(汶川卧龙)
복식





① མགོ་རས།
머리두건

② ལུ་རིང།
장삼

③ ལག་གཞོན།
조끼

④ སང་གདན།
앞치마

⑤ སྒྲ་རགས།
허리띠

⑥ དུལ་གྱི་ལག་གཞོན།
은 팔찌

⑦ རས་ལྗམ།
천 신발



원촨현(汶川县)은 민강(岷江) 유역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두장옌시(都江堰市)와 접한다. 평균 해발고도는 약 1,300m이며, 온대 계절풍 기후에 속하고 생활 방식은 주로 농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자롱 18토사 시기, 이 지역은 무핑(穆坪) 토사의 후손인 와쓰(瓦寺) 토사의 관할지였다. 서기 1449년, 용중뤄뤄쓰(雍中罗洛思)가 바오싱에서 가솔과 병력을 이끌고 룡구(龙古)로 이주함에 따라, 와쓰 토사는 '룡구제부(龙古杰布)'라고도 불렸다. '룡구'는 현재의 워룡진(卧龙镇)의 별칭이다.

여러 외부 요인으로 인해 원촨 지역의 전통 민속 문화는 한때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워룡 등지의 일부 고령자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역의 전통 복식을 고수하며, 이 특색 있는 복식 문화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여성 복식

이 지역 여성의 복식은 비교적 간편하고 실용적이다. 전체 구성은 머리두건, 장삼, 조끼, 허리띠, 앞치마, 신발 등의 의복과 지갑 등 장신구로 이루어진다.

머리두건

과거에 현지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한 갈래 또는 두 갈래의 세 가닥 땡은머리로 만든 뒤 머릿수건을 감았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머릿수건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머리두건을 사용하는데, 길쭉한 천의 한쪽 끝을 정수리 뒹고 남은 부분을 머리에 차례로 감아올려 착용한다. 머리두건은 대개 일반 천, 면직물, 평직 벨벳 등의 소재로 만들며 색상은 흰색과 검은색이 주를 이룬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아이들은 파란색이나 노란색 모자를 쓰다가 열두 살이 된 뒤에야 머리두건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고 한다.



장삼

셔츠는 일반 천으로 만들며 색상과 형태가 다양하다. 셔츠 위에 장삼을 입는데 전체적인 형태는 진찬 지역과 유사하다. 장삼은 오른쪽으로 여미는 우임 구조를 취하며, 안쪽 깃은 허리까지만 내려온다. 깃단에는 목단추, 중간단추, 겨드랑이단추가 달려 있다. 겹자락과 안자락은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에서 서로 겹쳐지며, 그 겹쳐진 가장자리를 따라 아래로 허벅지 위치까지 이어지는데, 이 부분에도 역시 차례로 세 개의 단추가 달려 있다. 평소에는 여성들이 자수나 테두리 장식이 없는 단색 장삼을 즐겨 입는다. 격식 있는 자리에는 장삼의 깃과 깃단에 꽃무늬, 물결무늬, 연산문(連山紋, 산이 이어진 문양) 등이 수놓아진 정교한 천으로 테두리 장식을 한다. 장삼의 색상은 주로 파란색, 검은색, 붉은색이다. 일할 때에는 소매가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꽃무늬가 있는 천 토시를 착용한다. 이 토시는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지며 양끝에는 고무줄이 달려 있다.



조끼

장삼 위에는 보통 조끼를 덧입는다. 조끼 밑단 양쪽은 트임이 있으며, 트임 안쪽 가장자리에는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폭이 넓은 다른 색 천을 덧대어 보강한다. 조끼는 주로 검은색이며, 소재는 코듀로이나 일반 천 등을 사용한다. 이 밖에도 야크 털이나 양모로 만든 조끼도 있다.

조끼는 사선 여밈형과 대칭 여밈형 두 가지로 나뉜다. 사선 여밈형의 경우 깃 안쪽에 꽃무늬 천 조각으로 안단을 대기도 하며, 안단을 두르지 않은 간결한 형태도 있다. 깃단에는 위에서부터 목단추, 중간단추, 겨드랑이단추가 달려 있다. 대칭 여밈형 조끼는 깃과 여밈 가장자리에 꽃이나 잎 문양이 수놓인 천으로 테두리 장식을 한다.



허리띠

현지 여성들은 염색하지 않은 털실로 짠 납작한 허리띠를 매는데, 이 허리띠는 가로세로 줄이 약간 느슨하게 짜여 있으며, 양쪽 끝은 술 모양이다. 허리에 두세 바퀴 감은 뒤 단단히 묶는다. 허리띠 끝의 술은 다른 지역처럼 몸 앞이나 뒤로 늘어뜨리지 않고 허리띠 안으로 끼워 넣는다.





앞치마

장삼 위에는 검은색 앞치마를 두르는데, 앞치마에는 정교한 기하학 문양이나 꽃무늬를 수놓은 주머니 모양의 천을 덧댄다. 어떤 앞치마는 이 천 조각의 가운데를 박음질하여 두 개의 주머니로 나누기도 한다. 이 주머니는 돈이나 물건을 넣는 수납 기능을 함과 동시에 장식적 효과도 갖는다. 앞치마에 자수 천 조각을 달지 않고 검은색 단색으로만 된 앞치마 양식도 있다. 앞치마의 밑단과 양옆에는 꽃무늬가 수놓인 넓은 폭의 천으로 테를 두른다. 앞치마 끈은 여러 색의 가는 실로 짠 납작한 형태인데 이는 실용적일뿐만 고르고 정연한 직조 문양이 장식적 역할도 한다. 착용할 때에는 앞치마 끈을 허리에 두 바퀴 감은 뒤 몸 앞쪽에서 매듭을 짓는다.





신발

과거 여성들은 평소 짚신이나 단색 천 신발을 신었으며, 특별한 날에는 자수 천 신발을 신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 시장에서 구입한 천 신발을 신는다.

장신구

장신구는 대부분 티베트 문화권 지역과 유사하다. 손목에는 은 팔찌를 차고, 귀에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술 장식 귀걸이 혹은 고리형 귀걸이를 단다. 허리에는 기하학 문양과 꽃무늬가 수놓아진 지갑을 단다. 이 외에 번잡한 장신구를 많이 착용하는 풍습은 없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혼례 때 신부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 머리에 붉은 머리두건을 덮으며, 의복과 신발 모두 붉은색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남성 복식

남성들은 계절에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머리에 검은색 머리두건을 두른다. 복식 전반은 여성의 것과 유사하며, 장삼을 입는다. 장삼은 단색 천으로 만들며, 깃 등에 가장자리 장식을 두르지 않는다. 허리에는 단검 한 자루를 찬다. 발에는 천 신발이나 짚신 등을 신으며, 종아리에는 모직 물이나 펠트로 만든 각반을 감는다.

세상의 사물이 흥하고 쇠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시대의 변천 속에서 원촨 지역 티베트족의 전통 의복 착용 방식과 장신구 착용 풍습 역시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여전히 전통 복식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노력은 실로 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0

ཀམ་ཐུ་སྐྱེས་མའི་གོས་རྒྱུ།

리현 간바오(理县甘堡)
여성의 복식





- | | | | | | |
|---------------|-----------------------|-------------|----------|-------------|---------|
| ① ཐག་ཁྲོ་མེད་ | ② རྩ་དཀར་ | ③ ལུང་ཐུ་ | ④ དར་ཉི | ⑤ རྩ་ཐེ | ⑥ དེ་ཡེ |
| 탁꼬 | 라까 | 덩터 | 다르티 | 나찌 | 디바 |
| ⑦ ལུང་ཐུ་མེད་ | ⑧ གཡུང་ལུང་ཐུ་ཐག་མེད་ | ⑨ དཀྱིལ་ཐུ་ | ⑩ ལུང་ཐེ | ⑪ ལུང་ཐུ་ཐེ | |
| 두샤나쑤 | 웅둥수탁 | 다갑체 | 중페 | 꾸팍제 | |

간바오향(甘堡乡)은 리현(理县) 동남부에 위치하며, 현 소재지에서 약 8km 떨어져 있다. 평균 해발고도 약 1,800m로 고산 협곡 기후에 속하며 생활 방식은 농업을 위주로 한다.

과거 자룽 18토사 중에서 자구(杂谷) 토사의 세력 범위는 매우 넓어 동쪽으로는 간바오(甘堡), 멩둥(孟董), 주쯔(九子)의 여러 진영을 아울렀고, 서쪽으로는 쉰모(梭磨), 주커지(卓克基), 당바(党坝) 지역까지 미쳤다. 자구 토사의 기원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자구 토사가 본래 거스자(革什扎) 토사가 이 지역에 파견한 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자구 토사 가문이 번성하던 시기에 가문의 일원인 뉘다궁 차오얼지(诺达工朝尔极)가 쉰모 토사의 시조가 되었으며, 그는 세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두었는데 이들이 각각 주커지, 송강, 당바 등 여러 지역 토사 가문의 선조가 되었다고 한다. 자구나 오(杂谷脑)는 티베트어로 ‘자시랑’이라 하며 길상한 땅이라는 의미이다. 자시랑이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옛날 토번의 변방을 지키던 병사들이 ‘십미(+美, 열 가지 아름다움)’를 갖춘 곳에 관채를 세웠다고 하며 이러한 인연에 따라 그곳을 자시랑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지명이 점차 토사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면서 ‘자구 토사’라는 이름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전체 복식은 장삼, 상의, 치마, 허리띠, 앞치마, 바지, 신발 등의 의복과 머리장식, 귀걸이, 두샤나쑤, 바느질 주머니 등의 장신구로 이루어진다.





머리장식

과거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두 갈래의 세 가닥 땡은머리를 만든 뒤 머릿수건 위에서 교차하여 감았다. 부유하거나 지위가 높은 여성들은 이마 양쪽의 머리카락을 가늘게 여러 갈래로 땡아 반영락 모양으로 늘어뜨리고, 나머지 머리카락은 두 갈래의 세 가닥 땡은머리로 만들었다. 이어 천이나 모직 등의 재료로 속이 빈 형태의 머리싸개 두 개를 만들어, 그 위에 여러 겹의 산호 구슬 장식을 더한 뒤 각각의 땡은머리에 씌운다. 두 머리싸개는 머리 위에서 서로 교차되며, 교차 지점에는 산호를 박은 은제 꽃 모양 머리 장식을 달아 고정하였다. 이 머리장식을 현지에서는 ‘탁꼬’라고 부른다. 오늘날에는 머리를 직접 땡는 여성은 비교적 드물며,



대신 벨벳이나 모직물로 붉은색 또는 파란색의 띠 형태 머리 장식을 만들고 그 중앙에 탁고를 장식한다. 그 형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은으로 만든 꽃 모양 장식 위에 보석 한 알을 박은 형태, 금이나 은으로 타원형을 만들고 그 위에 산호와 터키석을 박은 형태, 원형 은 장식 위에 보석 한 알을 박은 형태 등이 있다. 탁고의 양옆에는 짧은 구슬 꿰미 여러 개를 고리 모양으로 배열하거나, 산호가 박힌 반지 형태의 금제 머리 장식 세 쌍을 달기도 한다. 또는 짧은 구슬 꿰미와 반지 형태의 장식을 띠 형태 머리장식 위에 번갈아 가며 꿰어 장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전체 장식을 현지에서는 ‘라까’라고 한다. 라까 장식을 마친 후에는 이를 머릿수건 위에 묶어 고정한다. 일부 여성들은 여기에 더하여 현지에서 ‘덩터’라고 부르는 합사실을 함께 감기도 하는데 이는 검은색, 파란색, 자주색 등의 비단실을 합쳐 땀은 끈으로 머리에 감은 뒤 남은 부분은 등 뒤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린다.



머릿수건은 현지에서 ‘다르티’라고 불린다. 과거의 머릿수건은 가로 방향으로 2~4겹 접은 뒤 머리에 돌렸으며, 대개 자수나 다른 장식이 없는 소박한 천으로 제작되었다. 오늘날에는 주로 벨벳을 사용하며, 겉면에는 다양한 색실로 기하학 무늬나, 회자문 등 대칭 무늬를 세로 방향으로 수놓는다. 대부분의 머릿수건 왼쪽 가장자리에는 안쪽을 향한 톱니 문양을 수놓고, 앞쪽 가장자리에는 꽃 모양의 작은 은방울을 배열한다. 이러한 톱니 문양은 은혜를 갚고 액운을 쫓는 의미가 있다고 전해진다. 또한 해, 달, 별을 상징하는 원형 문양을 수놓기도 한다. 여성은 결혼함과 동시에 반드시 머릿수건을 착용해야 하며, 이를 쓰지 않으면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고 예의가 없다고 여겨진다. 과거에는 여자아이들도 세 살 무렵부터 작은 머릿수건을 착용할 수 있었다.





장삼

여성은 ‘디바’라 부르는 장삼을 입는다. 이 옷은 오른쪽으로 여미는 사선 깃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깃단에는 깃단추 1개, 중간단추 1개, 겨드랑이단추 3개 등 총 5개의 단추가 달려 있으며 안쪽 깃은 허리까지만 내려온다. 장삼은 주로 푸른색 천이나 비단으로 만들며, 밑단 오른쪽에는 비교적 높은 트임이 있다. 트임 가장자리, 겹깃 가장자리, 소매 끝과 목둘레에는 폭이 세네 손가락 정도 되는 두 줄의 천 띠를 나란히 대어 테를 두르며, 그 위에는 덩굴무늬 등을 수놓는다. 이 장삼은 보통 비단으로 만든 조끼와 함께 입는데, 조끼의 테두리 장식 방식은 장삼과 동일하다.







또한 장삼의 허리 부분을 나누어 상의와 하의로 만든 분리형 양식도 있는데, 이는 착용이 더 편리하여 주로 명절이나 춤을 출 때 입는다. 이 중 상의의 소재는 주로 비단이며, 두 소매는 흰 천을 사용하여 별도로 이어 붙인다. 목둘레, 깃단, 소매 끝은 길상 무늬와 자수 문양이 있는 두 줄의 장식띠로 꾸민다. 소매는 안과 겉 두 겹으로 되어 있으며, 겉소매는 팔꿈치 아래까지, 안소매는 손목까지 내려온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소매를 이처럼 이중 구조로 만든 것은 순전히 장식적, 미적 효과를 위해서라고 한다. 치마의 양쪽에는 비교적 높은 트임이 있으며, 트임 가장자리에는 꽃 무늬 등이 수놓아진 천 띠와 금사 등을 사용하여 차례로 가선 처

리를 한다. 트임의 윗부분에는 트임을 보강하기 위해 길상 문양이 있는 천 조각을 덧대어 꿰맨다. 치마 허리 뒤쪽 중앙에는 길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장식용 소매를 위아래로 배열하여 꿰매어 달며, 이 장식 소매 끝에는 꽃무늬 자수와 금사 등이 들어간 여러 줄의 장식띠를 더한다. 한편, 가장자리 장식과 자수가 없는 파란색이나 검은색 장삼을 입는 사람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개 검은색 조끼와 함께 착용한다.





상의와 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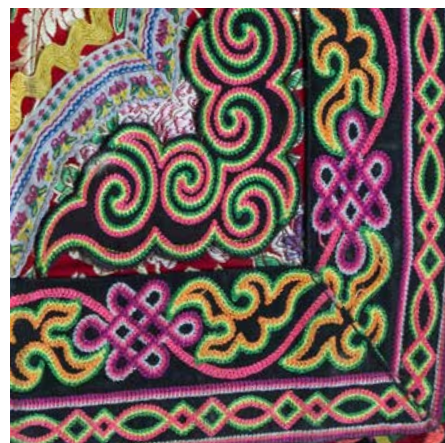
장삼을 입지 않을 때, 일부 사람들은 비단으로 만든 푸른색 상의를 입고, 하체에는 ‘다캄바’라 부르는 치마를 받쳐 입는다. 상의는 사선 깃에 오른쪽으로 여미는 구조이며, 밑단 양쪽에는 각각 짧은 트임이 있다. 소매 끝, 목둘레, 깃단, 밑단에는 폭이 넓은 두 줄의 꽃무늬 테를 나란히 장식하는데, 그 위에는 자수 문양과 금사 장식 등이 더해진다. 깃단을 따라 속이 빈 매듭으로 만든 단추 4개를 차례로 달아 놓는데, 목단추 1개, 중간단추 1개, 겨드랑이단추 2개이다. 이러한 상의는 양식이 다양하다. 다캄바는 무늬가 없는 단색 천으로 제작하며 주름진 형태를 띤다. 치마 허리 상단 가장자리에는 허리에 묶을 수 있도록 천 끈이 달려 있다. 이 치마는 몸의 뒷부분만 감싸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통 앞치마와 함께 착용한다.





허리띠

허리에는 현지에서 ‘웅등수탁’이라 불리는 납작한 허리띠를 맨다. 이 허리띠는 다양한 색상의 비단실이나 털실로 짜며 전체적으로 폭이 넓다. 허리에 두 바퀴 정도 둘러 감은 뒤 등 뒤에서 매듭을 짓고, 끝의 술은 자연스럽게 늘어뜨린다.



앞치마

앞치마는 ‘중페’라고 부르며, 자주색 등의 꽃무늬가 수놓인 비단으로 만든다. 중앙에는 한두 줄의 주름이 있으며, 주름 위쪽에는 흰 실로 직사각형의 박음질을 하여 주름을 고정한다. 앞치마 상단 가장자리에는 앞치마 폭보다 약간 긴 검은색 천을 덧대고, 이 검은 천의 양 끝에는 엮어 만든 가는 끈을 단다. 앞치마 양옆과 밑단에는 폭이 넓은 검은색 테두리를 두르는데, 그 위에는 연속된 큰 꽃무늬와 금사 장식이 수놓인다. 검은 테두리 장식 안쪽에는 꽃무늬가 수놓인 가는 천 조각을 덧댄다. 앞치마의 네 모서리 혹은 밑단의 양 모서리에는 검은 천으로 만든 덩굴무늬를 꿰매어 테두리 장식 사이에 배치한다. 앞치마마다 자수 문양과 테를 두르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 다양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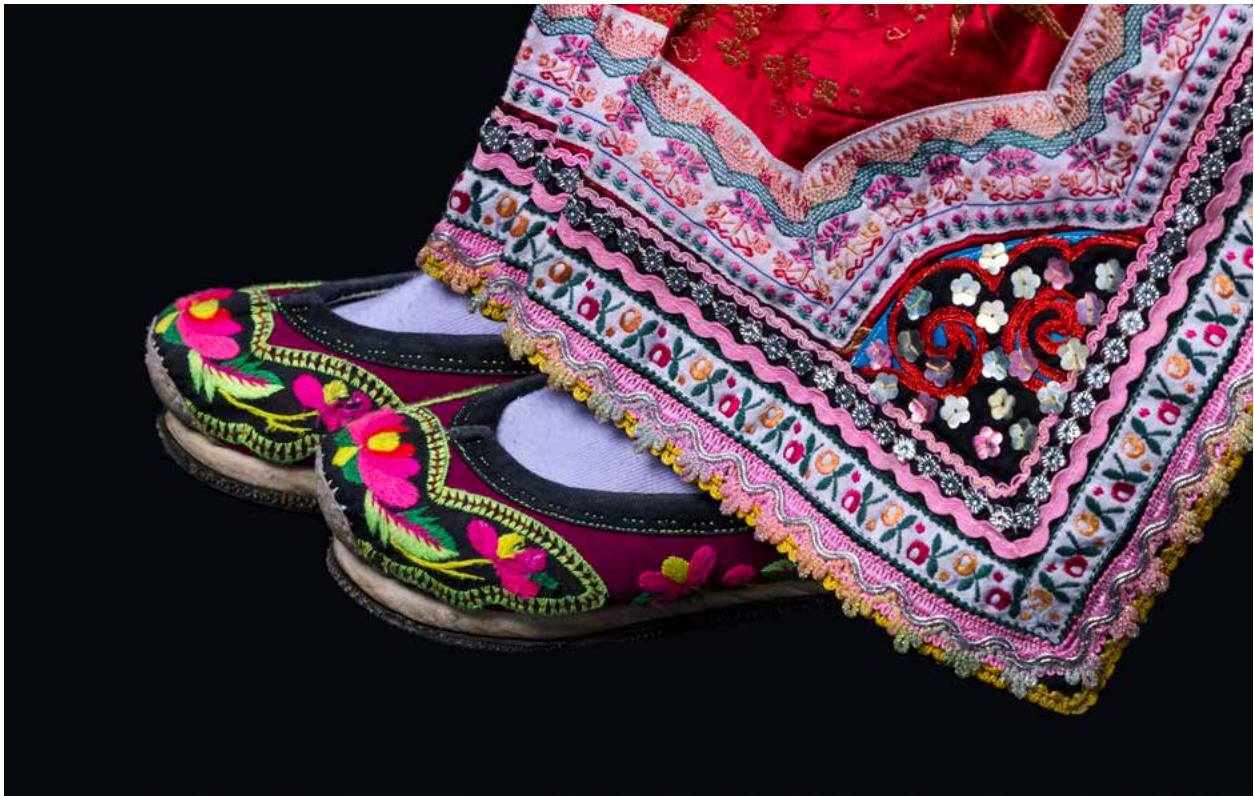


바지

하체에는 검은 천 등으로 만든 통이 넓은 바지를 입는다. 바지 밑단에는 덧대기 자수 방식으로 장식용 천을 덧댄다. 이 장식 천은 넓은 검은 천을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큰 꽃무늬를 수놓는다. 장식 천의 위아래에는 금실과 무늬가 있는 분홍색 좁은 천 조각으로 장식한다. 또는 자수나 테두리 장식이 없는 단색의 통 넓은 바지를 입기도 하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대중적인 바지를 입기도 한다.

신발

과거에는 짚신이나 천 신발 등을 신었다. 오늘날에는 격식 있게 차려 입을 때 현지에서 ‘꾸팍제’라고 부르는 꽃자수 신발을 신는데, 신발 밑창은 고무와 여러 겹의 천을 겹쳐 이중 구조로 만들고, 발등 부분은 꽃무늬가 수놓인 천으로 제작한다. 평소에는 시장에서 구입한 가죽 신발이나 천 신발을 신는다.



기타 장신구

귀에는 주로 ‘나찌’라 불리는 은 귀걸이를 착용한다. 나찌는 고리형 구조로 고리의 아래쪽 끝부분이 위로 말려 올라가 형태를 띠며, 그 말린 부분에는 산호가 박힌 여의보 모양의 은 장식이 있다. 그 아래에는 두 알의 큰 산호 구슬이 달려 있고, 산호 사이에는 은 술이 있으며, 술 끝에는 작은 산호와 은 잎모양 장식이 달려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귀걸이를 착용한다.





목에는 산호가 박힌 사각형 또는 원형의 가우함을 거는데, 은 사슬이나 산호 꿰미를 끈으로 사용한다. 혹은 터키석과 산호를 번갈아 꿰어 만든 목걸이를 착용하기도 한다. 목단추 부분에는 ‘두샤나쭈’라 불리는 은 장식을 다는데, 이 장식에는 여러 가닥의 술이 달려 있고 술 끝에는 귀이개나 이쑤시개 모양의 작은 장식이 달려 있다. 손목에는 은 팔찌나 상아 팔찌를 찬다. 허리 오른쪽에는 ‘다캅체’라 불리는 바느질 주머니를 차는데 그 끝에는 세 가닥의 은 술이 달려 있다. 또한 허리에는 붉은 가죽을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투조 기법의 은방울을 차례로 박아 넣은 조각 장식 허리띠를 착용한다.





이러한 복식은 간바오향을 중심으로, 명둥, 자구나오 등지의 여성들도 착용한다.

이 지역의 복식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가장자리 장식 기법과 자수 문양은 모두 뚜렷한 지역적 특색을 띠고 있어 현지 주민들의 지혜와 미적 감각, 그리고 근면한 성품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11

ཐུག་ལེའི་བུད་མེད་ཀྱི་གོས་རྒྱུ།

리현 미야뤄(理县米亚罗)
여성의 복식





① རང་སྟོང་ཅི།
대닝찌

② སུམ་ལག།
숨락

③ སུ་པ།
스파

④ རྩ་ཟེ།
나찌

⑤ རང་སྟོང་རི།
대닝리

⑥ ཁོས་ཐྱེ།
콰디 장포

⑦ ཏེ་སུ་ཐག་ས།
떼수탁

⑧ སུ་ངེ་ཆབ་མ།
푸게참마

⑨ སུང་པ།
중파

⑩ ཟེ་ཐྱེ།
찌데

⑩ སུལ་ལོང།
툴퐁

⑪ སྟོ་རོང།
로중

⑫ ས་རྩེ་ལེ།
파빌레

⑬ ཁུ་ཐྱེ།
콰디

⑭ སུ་ལེང།
두베

미야뤄진(米亚罗镇)은 리현(理县) 서북부에 위치하며, 평균 해발고도 약 2,700m이다. 기후는 고원 산지 기후에 속하며, 주민들의 생활 방식은 반농반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미야뤄는 자룽 18토사 시기 본래 자구(杂谷) 토사의 관할이었으나, 이후 쉼모(梭磨)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 쉼모는 현지 방언으로 ‘쉼망’ 또는 ‘사망’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많은 토지’라는 의미를 지닌다. 당시 쉼모 토사가 관할하던 지역은 쉼모 방향의 5개 계곡, 자구나오(杂谷脑) 일대의 9개 계곡, 헤이수이(黑水) 일대의 55개 계곡 등 총 약 70여 개의 계곡에 달하였다. 이 밖에도 랑커우(壤口) 일대의 3개 부족을 거느려, 그 영토 규모는 주변의 다른 토사들보다 넓었다. 쉼모 토사의 가장 초기 관채는 슈아징쓰(刷经寺)에 세워졌으며, 이후 루화, 미야뤄, 자비 등지에 차례로 관채가 건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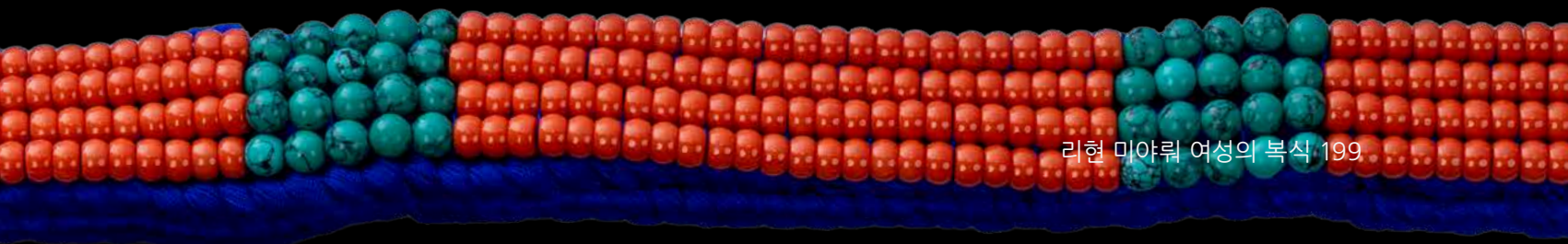
미야뤄 지역 여성의 복식은 마얼캉 및 쉼모 지역과 유사한 점이 많으나, 여전히 고유한 지역적 특색을 지닌다. 한 벌의 복식은 장포, 주름치마, 허리띠, 앞치마, 신발 등의 의복과 머리장식, 귀걸이, 목걸이, 조각 장식 허리띠, 툴퐁, 로중 등의 장신구로 구성된다.





머리장식

과거에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양갈래로 나누어 세 가닥 땀은머리를 한 후, 현지에서 ‘대닝리’라 부르는 실크 합사실을 함께 엮어 땀았다. 부유한 가정에서는 땀은머리 위에 터키석과 작은 산호 구슬 꿰미를 나란히 장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격식 있게 차려 입는 경우라도 대부분 머리를 직접 땀지 않고, 보라색, 검은색, 파란색 실다발로 만든 가체에 장식물을 고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착용 시에는 이 가체를 머릿수건 위에서 두세 바퀴 교차하여 감은 뒤 목뒤에서 매듭을 짓고 끝부분은 자연스럽게 늘어뜨린다. 가체 위에는 다섯 줄의 터키석과 산호 구슬을 가로로 꿰어 장식하고, 그 중앙에는 ‘대닝찌’라 불리는 타원형 금은 장식이 놓인다. 이 장식에는 터키석과 산호 등 보석이 박혀 있다. 양옆에는 각각 2~3개의 금은 고리 장식이 배치되는데, 이를 ‘숨락’이라고 하며 말안장 모양의 반지와 유사하다. 전체 머리 장식은 앞쪽을 향하도록 배치한 뒤 머릿수건 위에 고정한다. 한편 연장자의 경우 평상시에는 검은색 털실과 비단실을 함께 엮은 띠로 머릿수건을 고정할 뿐, 별도의 장식은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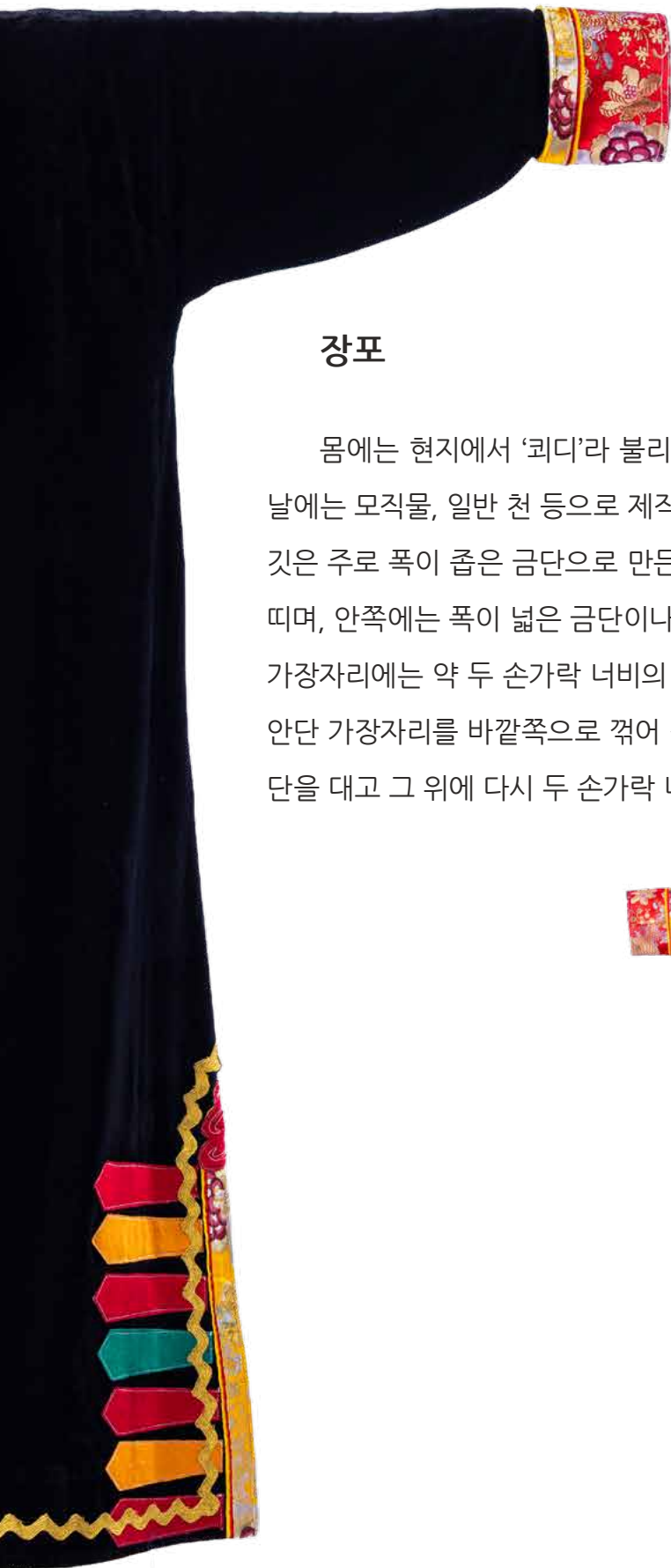




머릿수건은 현지에서 ‘스파’라 부른다. 이 지역의 머릿수건은 대부분 검은색 벨벳으로 제작되며, 크기가 넉넉하여 양쪽 관자놀이 부분까지 덮을 수 있다. 수건의 표면에 기하학 무늬, 회자문, 안쪽을 향한 톱니무늬 등 다양한 자수 문양이 가득 수놓아져 있다. 앞쪽 가장자리에는 산호구슬이 박힌 은제 꽃 장식이나 작은 은방울을 장식한다.

과거 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머릿수건을 착용해야 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일부 고령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착용하는 이가 드물다. 고령자들이 사용하는 머릿수건은 자수가 적고 색상이 소박한 반면, 젊은 세대가 사용하는 머릿수건은 색채가 화려하고 자수가 정교하다.





장포

몸에는 현지에서 ‘괴디’라 불리는 장포를 입는다. 과거에 장포는 양모로 짠으나, 오늘날에는 모직물, 일반 천 등으로 제작한다. 이 장포는 깃과 섶 가장자리가 분리되어 있으며, 깃은 주로 폭이 좁은 금단으로 만든다. 깃에서 앞섶 위부분 끝까지의 부분은 둔각 형태를 띠며, 안쪽에는 폭이 넓은 금단이나 코듀로이 혹은 붉은 색 모직물로 안단을 댈다. 안단의 가장자리에는 약 두 손가락 너비의 금단으로 안쪽 테두리 처리를 하며, 착용할 때에는 이 안단 가장자리를 바깥쪽으로 꺾어 접어 노출시킨다. 소매부리 안쪽에는 넓은 모직물로 안단을 대고 그 위에 다시 두 손가락 너비의 금단 장식선을 덧댄다. 착용 시에는 역시 안감을



바깥으로 접어 노출한다. 하단 겹자락 가장자리에는 두 손가락 너비의 금단 테를 두르고, 테 안쪽과 밑단에는 물결무늬 등의 금사 장식띠를 단다. 장포 양옆은 무릎 위치까지 트여 있으며, 트임 가장자리에도 두 손가락 너비의 금단 테를 두른다. 트임 윗부분에는 ‘파빌레’라 불리는 장식이 있는데, 이는 노란색 천을 바탕으로 한 여의보 모양이며, 그 위에 붉은 모직물로 만든 길상 문양을 꿰매고, 아래쪽에는 작은 은방울 한 개를 장식한다. 트임 양옆에는 ‘괴디’라 불리는 일곱 줄의 무지개색 띠를 상하로 배열한다. 이 띠 장식은 서로 다른 색의 모직물로 만들며 끝부분은 화살촉 모양인데, 화살촉 끝은 트임선의 반대 방향을 향한다. 뒷자락 밑단 중앙에는 아홉 세트의 무지개색 띠를 위아래로 배열하여 장식한다. 각 세트는 끝부분이 화살촉 모양인 두 개의 천 띠로 구성되어, 화살촉의 끝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한다. 일부 디자인에서는 각 세트의 두 천 띠 사이에 작은 은제 꽃 장식을 덧붙여 장식하기도 한다. 무지개색 띠 위쪽에는 파빌레 장식이 달린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이 무지개색 띠의 수는 정해져 있다고 한다. 깃, 셔 가장자리, 밑단에는 노란색 비단실로 테두리를 두른다. 밑단 안쪽과 트임 안쪽 가장자리에는 비교적 넓은 파란색 천으로 안단을 대어 마감한다. 이러한 의상은 주로 격식 있는 자리나 행사 때 착용하며, 테를 두르는 방식과 색상 등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주름치마

하체에는 현지에서 ‘두베’라고 부르는 주름치마를 착용한다. 과거에는 주로 삼베나 면으로 만들었으나, 오늘날에는 비단이나 일반 천을 주로 사용한다. 치마 양옆에는 서로 다른 색상의 천으로 여러 줄의 주름 장식을 두지만 전체적인 색조는 대체로 통일감을 유지한다. 치마의 여밈 부분에는 약 세 손가락 너비의 금단 장식선을 두른다. 입을 때는 치마폭을 몸 왼쪽에서 여미고, 치마 허리 안쪽에 달린 끈으로 허리를 묶어 고정한다. 보관할 때에는 먼저 주름을 가지런히 정리한 뒤 가운데에서 가로로 접고, 다시 한쪽 끝에서부터 세로 방향으로 말아 올린다. 이후 납작한 천 띠로 묶어 보관한다.

격식 있게 차려입을 때 여성은 주름치마 위에 궤디 장포를 입거나, 상체에는 현지에서 ‘파다끼’라 부르는 조끼를 입고 하체에는 반신형 궤디를 입는다. 조끼는 맞깃 구조이며, 소매구멍에는 금단 장식을 두른다. 밑단 양옆에는 비교적 짧은 트임이 있으며 트임 위에는 파빌레 장식이 달린다. 조끼의 겹감은 금단으로, 안감은 비교적 긴 인조 모피 등을 덧댄다. 반신형 궤디는 제작 방식과 가장자리 장식 공예가 장포와 동일하며, 단지 상반신 부분만 생략된 형태이다. 또한 마얼캉 등지와 마찬가지로 긴 셔츠에 주름치마를 매치하여 입기도 한다.

한편 연장자들은 평소 밑단 양옆에 트임이 있거나 없는 간결한 형태의 치마를 즐겨 입으며, 치마의 선 장식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허리띠

허리에는 ‘떼수탁’이라고 부르는 납작한 허리띠를 맨다. 이 허리띠는 여러 색의 실을 엮어 만든 것으로, 착용할 때에는 허리에 한두 바퀴를 평평하게 감고 양쪽 끝을 자연스럽게 등 뒤로 늘어뜨린다. 경우에 따라 떼수탁 위에 비교적 폭이 좁은 납작한 직조 띠를 덧매기도 한다.



앞치마

앞치마는 현지에서 ‘중파’라고 부른다. 대체로 무늬가 있는 금단으로 제작되며, 양옆과 밑단에는 약 두 손가락 너비의 금단 테두리를 두른다. 테두리 안쪽에는 붉은색과 노란색의 가는 천 띠 두 줄을 덧대고 다시 그 안쪽에는 물결무늬 등의 금사 문양으로 장식한다. 중앙에는 두 줄의 주름을 잡는다. 양쪽 모서리에는 ‘찌데’라 불리는 삼각형 장식을 꿰맨다. 이 장식은 서로 다른 색의 금단을 이어 붙여 만든 것으로, 이음새 부분은 붉은색과 노란색 천 띠로 장식한다. 앞치마 안쪽 네 가장자리에는 파란색 천으로 테두리를 두른다. 위쪽 가장자리에는 앞치마 폭보다 길고, 앞치마와 동일한 재질 및 색상의 금단을 덧대어 이어 붙인다. 이 금단의 윗부분에는 납작하게 짠 끈이나 가는 천 끈으로 만든 허리끈이 달려 있으며, 가는 천 끈 형식의 경우 대개 상단에 덧댄 금단 안쪽을 관통하도록 되어 있다. 착용할 때에는 직조 허리띠를 허리에 한 바퀴 감은 뒤 양 끝에 달린 술의 일부를 이용해 매듭을 짓거나, 허리띠 위에 별도의 가는 천 끈을 달아 매듭을 묶기도 한다. 매듭을 지은 후 허리 띠 양끝은 허리 뒤로 늘어트린다. 연장자들은 평소 검은색 천으로 만든 앞치마를 주로 착용한다.





신발

발에는 앞코가 위로 들린 티베트 장화를 신는다. 밑창은 염색하지 않은 가죽을 사용하고, 발등은 검은색 가죽, 아래 발목은 붉은색 가죽, 위 발목은 자ړ 푸루를 사용하며, 장화의 목 부분은 붉은 모직 천 등으로 만든다. 다만 오늘날에는 성대한 행사 때에도 전통적인 앞코 들린 티베트 장화를 신는 이는 소수이며, 대부분 시장에서 구입한 티베트식 가죽 장화를 착용한다.

기타 장신구

귀걸이는 현지에서 ‘나찌’라고 부르며 금이나 은으로 제작된다. 형태는 둥근 고리형, 술 장식형 등이 있다. 목에는 금이나 은으로 만들고 산호를 박아 장식한 육각형 또는 원형의 가우함을 걸쳐 산호 꿰미를 끈으로 사용한다. 또한 터키석 목걸이나 산호 목걸이를 착용하기도 한다.



허리에는 ‘푸게참마’라 불리는 조각 장식 허리띠를 맨다. 이 허리띠는 붉은색 가죽 등을 바탕으로 하여 그 위에 투조 기법의 커다란 은방울을 차례로 장식하는데, 큰 은방울 사이마다 작은 은방울 두 개를 상하로 배열한다. 허리띠 양쪽 끝에는 투조 무늬가 있는 막대 모양의 은 장식이 달려 있으며, 여기에는 터키석과 산호가 박혀 있다. 착용할 때에는 허리에 한두 바퀴 정도 감는다. 전해지는 바로는 과거에는 조각 띠 위의 은방울은 크기가 작았으나, 오늘날에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커다란 은방울로 꾸미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한다.





허리 좌우 양쪽에는 현지에서 ‘툼퐁’이라 부르는 은제 뒤통을 달며, 여기에는 산호가 박혀 있다. 이와 함께 젓 짜는 갈고리 등의 장신구도 함께 패용한다. 설날과 같은 큰 행사 때에는 허리 앞쪽에 ‘로중’이라 부르는 장식을 착용한다. 이 장식은 큰 가우함과 유사한 세 개의 은 장식을 여러 줄의 은 사슬로 위아래로 연결하여 이루어진다. 그 좌우로는 많은 은 사슬을 이용하여 산호

가 박힌 네 잎 모양의 은꽃 장식과 여의보 형태의 장식을 연결하는데, 전체적으로 영락 또는 반 영락 형태를 이룬다. 구조를 보면, 중앙의 첫 번째 은 장식은 양쪽의 네 잎 모양의 은꽃 장식과 은 사슬로 연결되고, 중앙 가운데와 아래쪽의 두 은 장식은 여의보 형태의 장식과 은 사슬로 이어져 있다. 중앙 제일 아래쪽 은 장식의 끝에는 술이 달려 있으며, 술 끝에는 오른쪽으로 감긴 작은 소라 모양의 은 장식을 매단다.

이 복식은 미야뤄를 중심으로 하여, 구얼거우(古尔沟)와 자비(夹璧) 등지에서도 착용된다. 이 지역의 자연환경과 기후, 지리적 요인은 이러한 다채로운 복식을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오늘날 이 복식은 지역 역사와 문화의 축소판이자 생활 방식을 반영하는 표지로 자리하고 있다.





12

ཐུས་སྒྲོལ་སྐྱེས་མའི་གོས་རྒྱུ།

샤오진 베쓰만(小金别斯满)
여성의 복식





① དང་སྟོང་མཛོ།
대닝조

② དང་སྟོང་སྟེ།
대닝네

③ གབ་ག།
짍짜

④ སྤ་ལ།
루파

⑤ རྩ་ལ།
나유

⑥ སྟོང་མོག།
스퇴복

⑦ ཆབ་མ།
조각무늬 허
리띠

⑧ བ་སེའི་སྟུ་རོ།
바소 구로

⑨ བཞོམ་ཆར།
젓 짜는 갈고리

⑩ སྤང་ལ།
중파

⑪ སྤ་ལེ།
두베

⑫ སྤག་ཟ།
독짜

제쓰향(结斯乡, 옛 베쓰만툼)은 샤오진현(小金县) 동북부에 위치하며, 평균 해발고도 약 2,600m의 아열대 몬순 기후에 속한다. 주민들의 생활 방식은 농업이 주를 이룬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잔라(赞拉) 토사의 관할지였다. 잔라는 라오단 토사 가문의 한 분파였으나 이후 독립적인 토사가 되었다. 두 토사는 한때 연합하여 외래의 침입에 공동으로 대응한 바 있다. 《안도정교사(安多政教史)》의 기록에 따르면, “진촐허(金川河) 허양(河阳) 지역에는 당바, 라오단, 자라 토사의 관채가 있었는데, 뒤의 두 세력은 점차 강성해져 호르왕(霍尔王) 시기부터 복속된 적이 없었다”라고 전한다.

베쓰만 여성의 복식은 샤오진현을 대표하는 복식으로, 성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복식 일체는 상의, 장삼, 주름치마, 앞치마, 신발 등의 의복과 머리장식, 귀걸이 등의 장신구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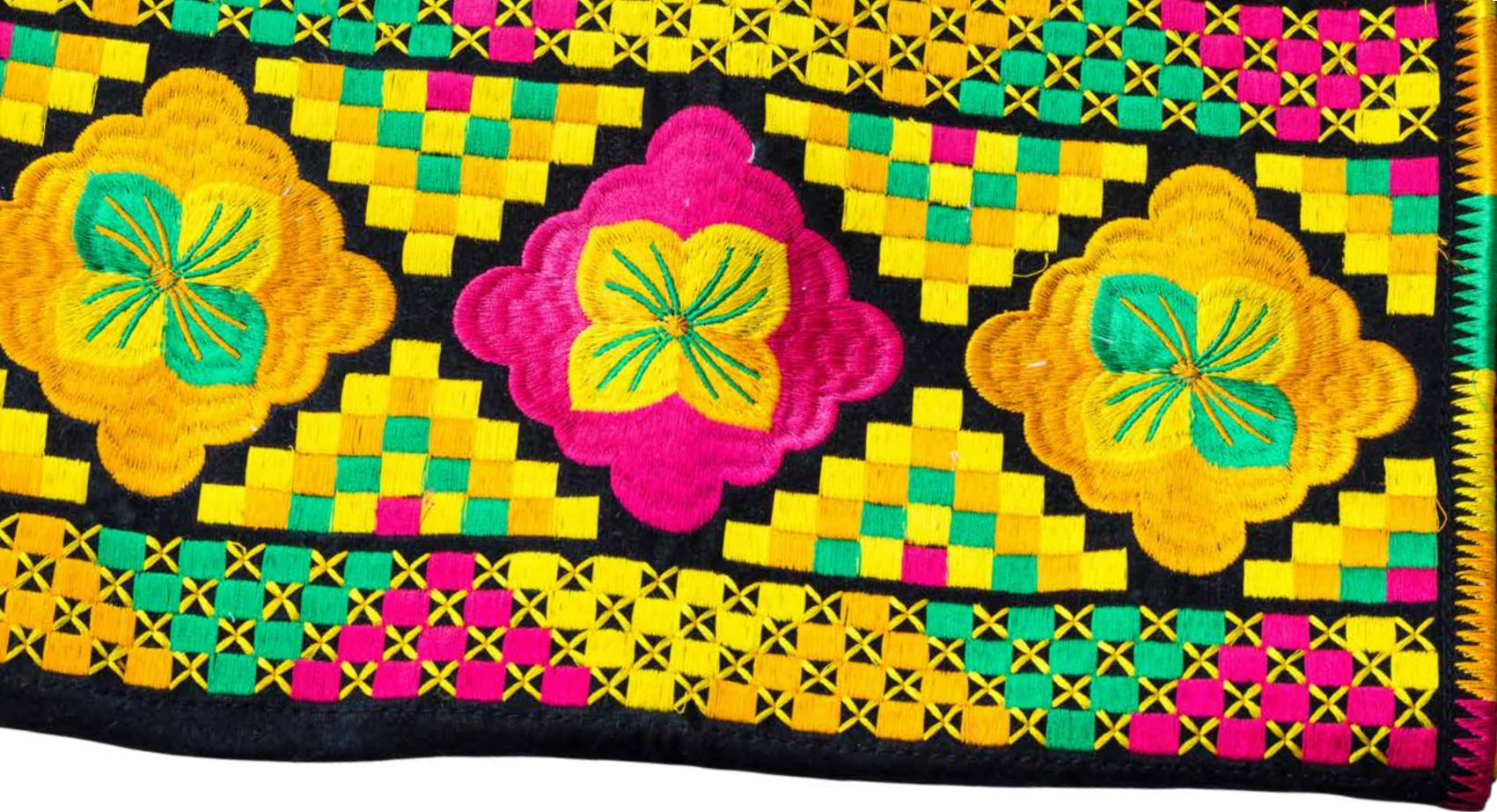
머리장식

과거 이 지역 여성들은 두 갈래의 세 가닥 땡은머리로 하는 것을 관습으로 삼았다. 그중 한 갈래 땡은머리에는 터키석과 산호가 박힌 은제 머리장식인 ‘짹짜’와 ‘대닝조’ 등을 착용하였다. 두 머리땡기의 끝부분에는 ‘대닝네’라 불리는 비단 합사실을 섞어 땡은 뒤, 이를 현지에서 ‘루파’라 부르는 머릿수건에 고정하였다. 오늘날에는 두 갈래 세 가닥 땡은머리 형식의 가발에 먼저 머리장식을 꿰어 연결한 뒤, 가발 땡은머리 끝에 여러 가지 색실을 연결하여 정수리 부근에서 매듭짓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또한 산호 구슬 꿰미나 파란색, 검은색 합사실 등을 머리에 감아 머릿수건을 고정하기도 한다.

땡은머리 장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닝조’로, 은을 두드려 만든 4엽 또는 5엽의 꽃잎 모양 장식으로, 표면에는 터키석이 박혀 있다. 둘째, ‘짹짹’로, 금이나 은으로 제작한 긴 타원형 또는 반지 모양의 장식으로, 모두 터키석과 산호가 박혀 있다. 통상 1~3개를 착용한다. 셋째, 태양을 상징하는 원형 은장식으로, 정수리 앞부분에 착용한다. 터키석과 산호 구슬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원형 배열로 배열되어 있고, 산호 구슬 줄로 고정시킨다. 넷째, 대붕이 뱀을 문형상의 은장식으로, 역시 터키석과 산호가 박혀 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과거 미혼 여성은 ‘대닝조’를 머리 오른쪽에 착용하였고, 기혼 여성은 왼쪽에 착용하였다고 한다.





이 지역의 머릿수건은 단바 지역에 비해 다소 짧으며, 검은색을 띤다. 과거에는 면직물이나 코듀로이로 제작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벨벳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연장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통 양식은 다음과 같다. 앞부분에는 색실로 맺는 마감 처리를 하지 않으며, 왼쪽 가장자리에는 자수 문양을 배치한다. 문양은 좌에서 우로 전개되는데, 먼저 안쪽을 향한 톱니무늬가 있고, 이어 이중 물결무늬가 놓인다. 두 겹의 물결무늬 사이에는 여러 색실로 회자문(回字紋)을 수놓는다. 그다음에는 약 다섯 송이의 커다란 꽃송이가 세로로 배열되며, 마지막으로 삼색 비단실로 서로 교차하는 파도 모양의 무늬를 수놓는다. 이러한 장식은 대체로 머릿수건 중앙 부근까지 이어진다.



현대식 머릿수건은 대부분 표면 전체에 꽃과 기하학적 문양을 가득 수놓고 금색의 작은 구슬로 장식하며, 앞부분에는 여러 송이의 꽃 모양 은장식 조각을 부착한다. 뒷부분 가장자리에는 색색의 플라스틱 잎사귀 장식이 드리워지며, 테두리는 색실로 마감 처리한 것과 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머릿수건 가장자리의 톱니무늬는 특별한 문화적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개의 이빨을 상징한다. 전설에 따르면, 과거 이 지역에 기근이 들었을 때 개 한 마리가 꼬리에 곡식 종자를 숨겨와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써 현지인들이 농사를 지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후대 사람들은 그 은혜를 기리기 위하여 머릿수건에 개 이빨 모양의 문양을 수놓게 되었다.





상의

상체에는 현지에서 ‘되폭’이라 부르는 상의를 입는다. 소재는 과거에 양모, 우직물, 삼베가 주류였으나, 이후 한동안은 잎, 꽃, 새 문양이 들어간 비단이나 면직물이 유행하였다. 색상은 주로 붉은색, 파란색, 검은색을 사용한다. 소맷부리에는 화초나 조류 문양이 있는 다양한 색상의 천을 비교적 넓게 테를 두른다. 옷자락 좌우 양측에는 트임이 있으며, 앞뒤 부분의 트임 여부는 일정하지 않다. 트임 가장자리와 밑단, 깃 둘레에는 서로 다른 색상의 천으로 마감 처리를 하고, 그 위에 비단과 문양이 들어간 천을 차례로 2~3겹 덧대어 장식한다. 또한 옷깃 둘레에는 상서로운 구름무늬가 새겨진 넓은 어깨 장식 조각을 꿰매어 장식하거나, 별도로 비단으로 제작한 어깨 장식을 되폭 위에 부착하기도 한다.





되폭의 여밈 형식은 대부분 비스듬한 여밈과 비파 모양의 곡선 여밈이다. 예전에는 되폭에 깃이 없었으나, 오늘날에는 거의 모두 깃을 갖추고 있다. 명절 등 중요한 행사에서는 문양이 들어간 매우 화려한 되폭을 착용하며, 일상에서는 문양 없는 단색 옷을 입는다. 노동 시에는 되폭 위에, 앞섶 가장 자리에 테를 두르거나 가선 처리를 한 맞깃 형식의 조끼를 덧입는다.





224 티베트족 복식 IV

장삼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은 대개 검은색 또는 파란색의 장삼을 입는다. 여름에는 단색 천으로 만든 장삼을, 겨울에는 우직물이나 양모 등으로 제작한 두꺼운 장삼을 입는다. 이 장삼은 사선 여밈 형태이며, 깃과 앞섶 가장자리에는 자ړ 푸루나 비단 등으로 장식 테두리를 덧대기도 하고, 별도의 장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앞섶 가장자리에는 차례로 목단추, 중간단추, 겨드랑이단추를 달며, 양쪽 허벅지 부위의 트임 가장자리에도 세 개의 단추를 달아 여밈을 보완한다. 트임 부분에는 비단을 덧대어 장식하기도 하고, 혹은 장식 없이 평범한 형태로 둘 수도 있다.



주름치마

하체에는 현지에서 '두베'라 부르는 주름치마를 입는다. 과거에는 양모, 우모, 삼베 등을 가공하여 제작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비단이나 면직물로 만든다. 주름의 배색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 하나는 단색 천으로 주름을 잡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치마 양측에 서로 다른 색상의 천을 사용하여 주름을 잡는 형식이다. 양측 주름 수는 각각 6주름, 9주름, 12주름, 16주름, 20주름 등으로 다양하다. 치마의 여밈은 몸의 좌측 또는 정면에서 여미며, 여밈 부분에는 다양한 색상의 비단이나 금단으로 테두리를 두르기도 하고, 테두리를 두르지 않은 형태도 있으며, 양측 밑단에 트임을 낸 형태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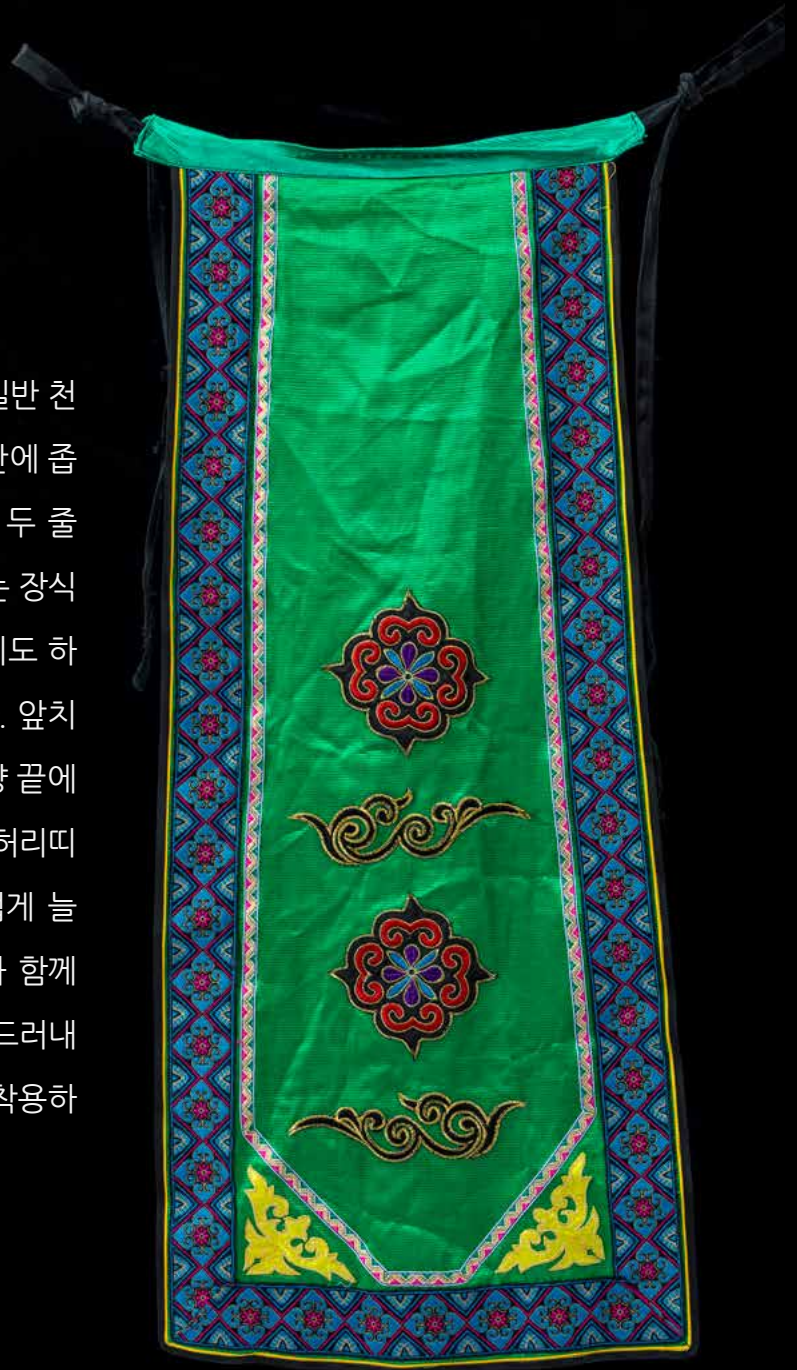


과거에는 노동에 편리하도록 치마를 비교적 짧고 소박한 단색으로 제작하였으나, 현대의 주름치마는 색채가 선명하고 장식이 화려하다. 혼례와 같은 행사에서는 여성들이 붉은색 주름치마를 입는다.



앞치마

앞치마는 현지에서 ‘중파’라 부르며, 일반 천으로 제작한다. 일부 앞치마는 양옆과 밑단에 좁은 자ړ 푸루 선장식과 넓은 비단 선장식 두 줄을 둘러 장식한다. 아래단의 양 모서리에는 장식을 더하는데, 비단으로 가장자리를 두르기도 하고, 꽃무늬 등의 자수 문양을 놓기도 한다. 앞치마 끈은 비단실로 엮어 납작하게 만들고 양 끝에 술을 단다. 이 술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허리띠 안으로 집어넣거나 몸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린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주름치마와 함께 입는 앞치마는 치마 옆면의 색채 주름을 드러내기 위해 폭을 좁게 만들고, 장삼과 함께 착용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폭을 넓게 만든다.





신발

신발은 현지에서 ‘둑짜’라 불린다. 과거에는 앞코가 위로 올라간 티베트 장화나 짚신을 주로 신었으나, 오늘날에는 천 신발이나 가죽신을 주로 신는다.



기타 장신구

장신구는 대다수 티베트 문화권 지역과 유사하다. 귀걸이는 ‘나유’라 하며, 금이나 은으로 제작하고, 술 장식형과 고리형이 있다. 목에는 산호 목걸이와 육각형 가우함을 착용한다. 손목에는 ‘구로’라 불리는 팔찌를 차는데, 은으로 만든 것은 ‘푸게구로’, 상아로 만든 것은 ‘바소구로’라 부른다. 허리에는 붉은 가죽을 바탕으로 은방울이 박힌 조각 장식 허리띠를 두르거나, 조개 장식 허리띠를 매기도 한다. 또한 허리 앞에는 젓 짜는 갈고리 등을 패용한다.



베쓰만 복식은 풍부한 색채와 다양한 문양, 정교한 자수 공예를 통해 현지 여성들의 지혜와 예술적 감각, 미적 감성을 잘 드러내며, 그들의 고유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13

ཆེ་ལུང་གི་སྒྲིམ་མའི་གོས་རྒྱ།

샤오진 자이룽(小金宅琮)
여성의 복식





① ལྷུང་དབྱིབས་སྒྲ་བྱུན།
대붕 머리장식

② གལ་ཡ།
잡자

③ དང་སྟེང་།
대닝

④ མོང་རས།
통래

⑤ བགས་རས།
머릿수건

⑥ ཉ་ཡེ།
하예

⑦ དེ་རོ།
다로

⑧ ཐགས་ཅ།
탁자

⑨ ཉེ་སུ་ཐགས།
떼수탁

⑩ ལྷུང་མོང་།
툼퐁

⑪ ལྷུང་ས།
중파

⑫ ལྷུ་མེད།
두베

자이룽진(宅垄镇)은 본래 자룽 18토사 가운데 하나인 잔라 토사의 관할지에 속하였다. 현재는 샤오진현 서부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진촨현, 서쪽으로는 단바현과 접하고 있다. 평균 해발고도는 약 2,100m이며 아열대 계절풍 기후에 속한다. 주민들의 생활 방식은 농업이 주를 이룬다.

지리적으로 단바와 가까운 관계로 자이룽 여성의 복식은 전체적인 양식에서 단바의 복식과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차이를 보인다. 한 벌의 복식은 셔츠, 상의, 주름치마, 망토, 허리띠, 앞치마, 신발 등의 의복과 머리 장식, 툭푹 등의 장신구로 구성된다.





머리장식

과거 미혼 여성은 머리를 한 갈래의 세 가닥 땡은머리로 땡았으나, 결혼 후에는 두 갈래로 땡았다. 두 갈래로 땡는 것은 부부의 화합과 같은 길한 의미를 상징한다고 한다. 오늘날 여성들은 현지에서 ‘대닝’이라 부르는 가발 땡은머리를 사용하고 그 위에 여러 종류의 장신구로 장식한다. 대표적인 장식으로는 금이나 은으로 제작하고 터키석과 산호를 박아 넣은 긴 타원형 머리 장식 ‘짹짜’, 대붕 형상의 장식, 터키석과 산호를 동심원 모양으로 배열한 원형 은 장식, 상아 고리, 꽃잎 모양의 은 장식, 산호를 박은 반지 모양의 장식인 ‘뽕중메’ 등이 있다. 이 중 짹짜는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여성들은 ‘통래’라 불리는 털실 또는 비단 합사실을 함께 엮어 머릿수건을 고정한다. 때로는 비단실과 털실을 함께 꼬아 가느다란 산호 구슬 꿰미와 함께 머릿수건에 감아 장식하기도 한다. 이러한 합사실은 땡은 형태와 땡지 않은 형태의 두 종류가 있으며, 색상의 경우 젊은 여성들은 파랑, 분홍, 빨강 등 밝고 선명한 색을 즐겨 사용하고 연장자는 짙은 보라색이나 검은색과 같은 어두운색 계열을 선호한다.



여성들은 대개 머리에 검은색 머릿수건을 쓴다. 과거에는 주로 비단으로 제작했으며 길어도 일정하지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벨벳 소재를 주로 사용한다. 머릿수건은 보통 2~8겹으로 접어서 쓰는데, 그중 4겹으로 접는 방식이 가장 흔하다. 수건 표면에는 대개 꽃무늬 등의 문양을 수놓는다. 앞쪽 가장자리는 색실로 마감한 형식과 그렇지 않은 형식이 있으며, 왼쪽과 뒤쪽 가장자리는 여러 색의 실로 둘러 마감한다.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연장자의 머릿수건은 가장자리 장식이 비교적 소박한 반면, 젊은 여성들은 색채가 풍부하고 화려한 형태를 선호한다. 머릿수건 왼쪽 앞뒤 모서리에는 구슬을 꿰어 달기도 하는데, 그 아래에는 노랑과 분홍 등 두 가지 색의 긴 술 장식이 달린 경우도 있으며, 술이 없는 형태도 있다.





셔츠와 상의

상체 안쪽에는 ‘하예’라 불리는 티베트식 셔츠를 입는데, 주로 흰색 비단이나 단색 천으로 만든다. 그 위에는 ‘뽕폭’이라 부르는 상의를 입는다. 뽕폭은 주로 비단이나 금사 벨벳으로 만들며, 사선으로 여미는 우임 구조이다. 옷깃 가장자리에는 위에서부터 목단추, 중간단추, 거드랑이 단추가 달려 있다. 목둘레와 앞섶 가장자리에는 넓은 폭의 금단으로 테를 두르고, 여기에 천 조각과 물결무늬 모양의 금실로 장식한다. 날씨가 더울 때는 셔츠만 입기도 하며, 모직이나 양모 직물 소재의 조끼를 함께 입기도 한다.







주름치마

하의로는 ‘두베’라고 부르는 주름치마를 입으며, 재질은 주로 천이나 비단이고 색상은 붉은 색, 보라색 등 다양하다. 치마의 양옆에는 서로 다른 색의 주름이 여러 줄 잡혀 있으나 전체적인 색조는 서로 조화를 이루며, 착용할 때는 치마의 여밈이 몸의 왼쪽에서 여며진다. 치마 여밈의 가장자리에는 다양한 색상의 천으로 만든 화려한 테 장식이 더해진다. 상반부의 바탕색은 붉은 색이며, 그 위에 흰색 삼각형 무늬가 두 줄로 배열되어 있고 두 줄 사이에는 파란색의 좁은 천 띠 장식이 있다. 하반부는 여러 색상의 천 조각을 가로로 배열하여 위아래 두 줄의 이어 붙인 무늬를 형성하며, 두 줄의 무늬 사이에는 노란색과 흰색이 교차하는 비단을 덧댄다. 그 위에는 붉은 색 천으로 팔각형 무늬를 꿰매는데 무늬의 중심과 교차하는 네 모서리 끝에는 검은색 원형 점을 장식하며 테두리 전체는 검은색 천으로 감싸 마감 처리를 한다.

망토

되폭 위에는 현지에서 ‘다로’라고 부르는 긴 망토를 걸치며, 다로는 삼베, 비단, 모직, 푸루, 평직 천 등으로 만든다. 그중 모직으로 만든 망토는 ‘랑구로’, 푸루로 만든 것은 ‘남부로’라고 한다. 망토는 녹색 직사각형 천을 바탕으로 하고 가장자리는 검은색 또는 노란색 천으로 둘러 마감하며, 가장자리 안쪽에는 좁은 폭의 붉은색 천을 덧대고 네 모서리에는 각각 노란색 사각형 천 조각을 달았다. 망토의 윗부분은 안쪽으로 꺾어 접으며, 접힌 모서리에는 가느다란 천 끈을 단다. 하단의 붉은 테 장식 안쪽에는 약 두 손가락 너비의 흰색 자수 천을 덧대고, 중앙에는 황색 계열의 좁은 꽃무늬 천으로 만든 길상결 무늬를 장식한다. 착용할 때는 망토가 양쪽 어깨를 덮도록 걸친 뒤 가슴 앞에서 끈을 묶어 고정한다.







허리띠

주름치마 위에는 양 끝에 술이 달린 평평한 형태의 직조 허리띠인 ‘탁짜’를 매며, 형태는 흑백이 교차하는 직조 방식과 여러 색 비단실을 섞어 짠 방식 등이 있다. 허리띠 위에는 ‘떼수탁’이라 불리는 허리 장식을 달며, 이것은 서로 다른 색상의 술 다섯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묶음은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술은 허리 뒤쪽과 양옆으로 길게 늘어뜨린다. 착용 방식은 양끝의 술 절반은 허리 앞에서 매듭을 짓고 나머지 절반은 허리 양옆으로 늘어뜨리는 방식이 있으며, 또는 술 전체를 매듭짓는 데 사용하여 아래로 늘어뜨리지 않는 방식도 있다. 떼수탁은 비단 장식으로 덮은 형태와 장식이 없는 형태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마얼캉이나 관인차오진(观音桥镇) 등지의 허리 장식과 유사하다.



앞치마

앞치마는 현지에서 ‘중바’라고 부르며, 비단으로 제작된 것과 흰색 모직천을 바탕으로 만든 형태 등 여러 종류가 있다. 흰색 모직천 바탕의 앞치마는 양옆과 아래단에 폭이 넓은 비단 테를 두르고 그 위에 파란색이나 노란색 등의 천으로 감싸 마감한다. 밑단 양쪽 모서리에는 붉은색 모직물로 만든 덩굴무늬 등의 문양을 장식한다.



신발

과거에는 짚신이나 코가 위로 솟은 티베트 장화인 ‘촉람’을 신었으나, 오늘날에는 시장에서 구입한 가죽 신발을 주로 신는다. 다만 귀창무를 추는 등의 축제 시에는 여성들은 여전히 코가 솟은 촉람을 착용한다.

기타 장신구

귀에는 산호가 박힌 은제 귀걸이를 착용하며, 그 끝에는 술이 달려 있다. 목에는 터키석, 산호, 천주(天珠)를 번갈아 꿰어 만든 목걸이나 구슬 줄, 또는 산호로 장식한 육각형, 원형, 사각형 모양의 가우함 등을 패용한다. 허리에는 커다란 은방울로 장식된 조각 허리띠를 두른다. 허리 앞 쪽에는 현지에서 ‘툰퐁’이라 불리는 은제 장신구를 착용하는데, 이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산호 구슬이 박힌 원형 가우와 돈주머니 모양의 장식 두 개를 위아래로 배열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길상결 문양의 은 장식을 은 사슬로 연결한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양쪽에 세 줄의 은사슬이 영락 모양과 반영락 모양으로 이어져 있으며, 아래쪽에는 모두 은 술이 달려 있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허리띠에 고정한다.





이 밖에도, 현지 민요 가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머리 위의 머릿수건을 말하자면, 그것은 비단 머릿수건이요,
귀에 단 귀걸이를 말하자면, 그것은 금 귀걸이요,
목에 건 가우를 말하자면, 그것은 은 가우요,
상체의 옷을 말하자면, 그것은 모직 상의요,
하체의 치마를 말하자면, 그것은 비단 주름치마요,
발에 신은 장화를 말하자면, 그것은 모직 장화라네.

이러한 복식은 현지 여성들의 예복일 뿐만 아니라, 성급 무형문화유산인 ‘마얼(马尔)’ 귀창 무 공연 시 갖추어야 할 필수 복장이기도 하다.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은 장삼과 앞치마, 뒷치마 등을 착용한다.

자이룽 여성의 복식은 현지의 풍속과 깊은 문화적 함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향토 문화에 대한 현지인들의 각별한 애정과 자부심을 잘 보여준다.



14

འབ་རྒྱས་ཀྱི་གོས་རྒྱུ།

바오싱 차오치(宝兴硃磧)
복식





- 1 ལུང་དབྱིབས་སྒྲ་རྒྱལ།
대붕 머리장식
 - 2 སྣ་ཏན་ཅི།
마탄찌
 - 3 ཏ་ཀོན་པོ།
따곤포
 - 4 ཏན་གོ།
탄고
 - 5 དང་སྒྲ།
다쓰네
 - 6 ལཱ་རིང་།
장삼
 - 7 ལེན་ལྷ་ཅི།
랜파찌
 - 8 ཐགས་ཅ།
탁짜
 - 9 ལྷུང་བ།
중파
 - 10 ལྷ་དབྱིས།
각반
 - 11 ལྷག་སྒྲ་ཅ།
딱씩짜



① བ་ལྷ།

여우털 모자

② ལྷ་རིང་།

장삼

③ ཐག་སྤྱོད་ཅན།

탁자

④ ལྷ་དྲུག་ལྷ།

각반

⑤ ལྷ་སྤྱོད་ཅན།

딱딱짜

차오치(晓碛) 장족향(藏族乡)은 별칭으로 어찌(俄泽)라 불리며, 자진산(夹金山)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야안시(雅安市) 바오싱현(宝兴县)의 유일한 장족향이다. 하부 행정구역으로는 주뤄촌, 쩌건촌, 가리촌, 러뤄촌, 자라촌 등 다섯 개의 티베트족 마을이 있다. 역사적으로는 자룽 18토사 중 하나인 무핑(穆坪) 토사의 관할지였다. 사료에 따르면 서기 1373년경, 무핑 토사 단 쯔장추(丹紫江楚)가 집권하며 제1대 토사가 되었고, 이때부터 무핑 토사의 세습 계통이 확립되었다. 무핑 토사는 현지 방언으로 ‘무쓰’, ‘무페이’, ‘무팡’ 등으로도 불린다. 이 지역의 서쪽은 캉딩(康定)과 접하고, 북쪽은 샤오진(小金)과 이웃하며, 동쪽은 원촨(汶川)과 맞닿아 있다. 평균 해발고도는 약 2,000m이며, 고원 온대 계절풍 기후에 속한다. 생활 방식은 주로 농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여성의 복식

전체 복식은 장삼, 조끼, 허리띠, 앞치마, 신발 등의 의복과 머리장식, 귀걸이, 가우함, 바느질 상자 등의 장신구로 이루어진다.



머리장식

과거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각각 세 가닥 땡은머리로 만들고, 머리 끝에 현지에서 ‘다쓰네’라 부르는 비단실을 섞어 땡은 뒤 머릿수건을 고정하였다. 머리숱이 적은 경우에는 가발 땡은머리를 사용하였다. 오늘날 중요한 자리에서는 여성들이 벨벳으로 만든 세 가닥 가발 땡은머리를 사용하고, 그 중앙에는 대붕이 뱀을 물고 있는 형상의 머리장식을 착용한다. 이 장식은 금과 은으로 제작되며, 위에는 터키석과 산호가 박혀 있다. 양쪽에는 ‘마딤찌’라 불리는 머리 장식을 다섯 개씩 다는데, 그중 한 종류는 반지 모양으로 금은 세공품에 터키석과 산호가 박혀 있다. 다른 한 종류는 세 개의 가는 원통형 장식이 나란히 배열된 형태로 역시 터키석과 산호가 장식되어 있다. 일상에서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소량의 은제 머리 장식만 착용하는데, 주로 ‘따곤쥬’이라 불리는 장식과 소량의 마딤찌를 조합한다. 따곤쥬는 중앙에 산호를 박고 가장자리에 작은 터키석과 산호를 점점이 박은 은꽃 모양 장식, 그리고 터키석이나 산호를 박은 사각형 은 장식 등이 있다. 머릿수건에 감는 다쓰네는 주로 분홍색이나 노란색이며, 이를 가발 땡은머리의 앞쪽이나 뒤쪽으로 감아 뒤통수에서 매듭을 지어 고정한다. 남은 부분은 가슴 앞이나 등 뒤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거나, 머리 타래 사이에 두기도 한다.





머릿수건은 현지에서 ‘따곤포’라 불린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의 머릿수건은 길고 두툼하며 폭이 넓어, 머리와 목 부위의 보온 기능이 뛰어났고, 뒤쪽 가장자리에는 자수로 만든 색색의 좁은 테두리 장식이 있었다고 한다. 오늘날의 머릿수건은 벨벳 등의 소재로 제작하며, 과거에 비해 짧고 폭도 좁다. 또한 단바나 진찬 지역의 머릿수건과 달리 표면에 자수를 놓지 않으며, 앞쪽 가장자리에도 가장자리 마감에 없다. 대신 아래쪽 가장자리에만 네 손가락 너비 정도 되는 여러 색실로 수놓은 무늬 장식을 덧대어 붙인다. 과거 여성들은 머릿수건을 여덟 겹으로 접어 머리에 둘렀으나, 오늘날에는 네 겹으로 접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장삼

여성은 장삼을 착용하는데, 길이는 무릎 정도까지 내려오며 색상은 검은색, 파란색 등이 많고, 샤오진과 진촨 등지의 장삼과 유사하다. 오른쪽으로 여미는 우임 형식이며, 안쪽 깃은 비교적 짧아 허리까지만 내려온다. 왼쪽 하단은 허벅지까지 트여 있는데, 이 트임 부분은 자주색 등의 천을 덧대어 보강한다. 깃단에는 위에서부터 깃단추, 중간단추, 겨드랑이단추가 차례로 달려 있으며, 아래쪽 깃단 가장자리에도 속이 빈 매듭으로 만든 단추 두세 개가 달려 있다. 격식 있는 복식을 갖출 때에는 금단, 비단, 푸루, 모직 등으로 만든 장삼을 착용하며, 깃단과 소매 끝에는 비교적



넓은 폭의 금단을 대어 장식한다. 때로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폭이 좁은 금단, 무늬가 있는 가는 천, 은색 물결무늬 실 등으로 장식하기도 한다. 일상에서는 주로 야크 털, 면양모, 코듀로이, 일반 천으로 만든 장삼을 입는다. 이러한 일상용은 목깃과 깃단이 분리되어 있으며, 깃은 자ړ 푸루나 모직 천으로 만든다. 깃단과 밑단 안쪽에는 약 네 손가락 너비의 파란색 천으로 안단을 대고, 겹 깃 가장자리에는 파란색 등의 천으로 감싸 마감한다. 평소에는 깃이나 소매, 깃단에 비단 장식이 없는 소박한 색상의 장삼을 많이 입는다.





조끼

장삼 위에는 현지에서 ‘랜과찌’라 불리는 조끼를 입는다. 겉감은 금사 벨벳이나 비단 등을 사용하고, 안감은 시장에서 구입한 인조 모피를 사용한다. 깃, 깃단, 밑단 등에는 세 겹 정도의 가장자리 장식을 두르는데, 서로 다른 색상의 천, 물결무늬 은실, 금단으로 만든 회자문, 꽃무늬가 있는 넓은 폭의 비단 등이 사용된다. 소매구멍 부분에도 서로 다른 색의 천이나 좁은 폭의 비단으로 두세 줄의 장식 테두리를 두른다. 깃단에는 깃단추, 중간단추, 겨드랑이단추 등이 달려 있다. 여밈 형태는 비파형 여밈, 대칭 여밈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격식 있는 자리에는 금단 등으로 만든 조끼를 입으며, 여름에는 안감이 없는 것을 입고, 겨울에는 산양 가죽으로 만든 조끼를 입는다.



허리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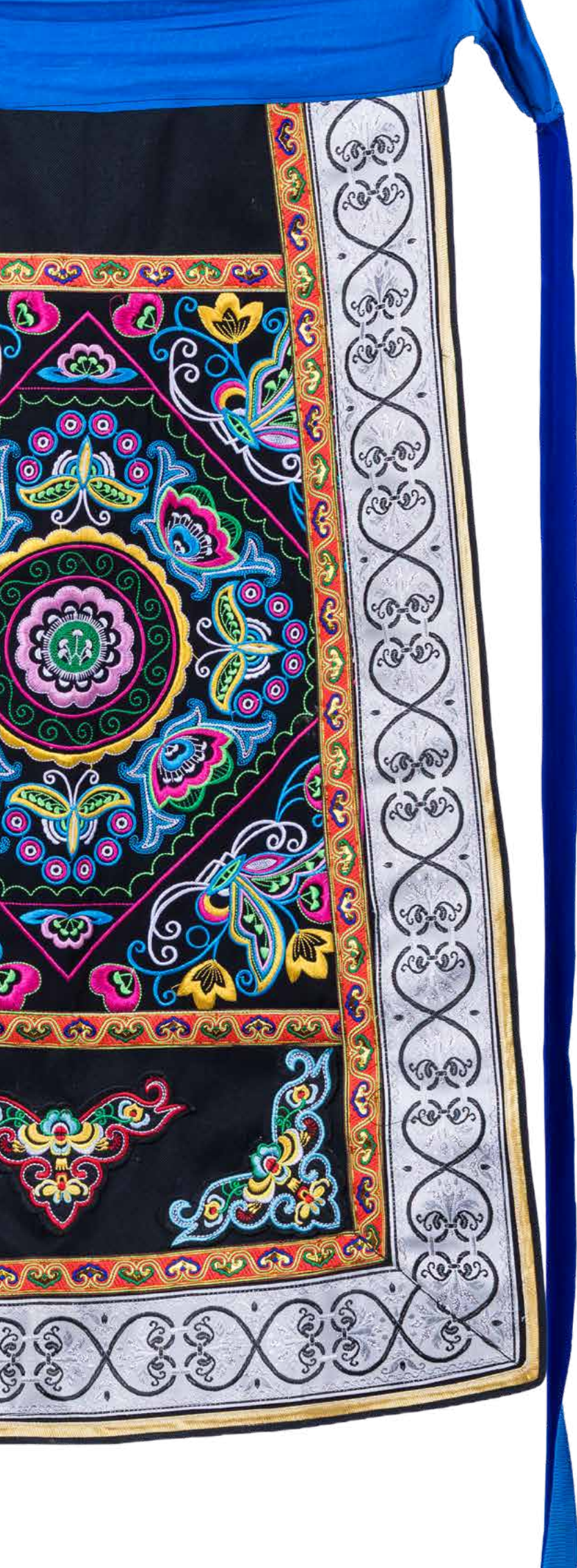
여성은 허리에 현지에서 ‘깨모’라 불리는 직조 꽃무늬 허리띠를 매는데, 이 허리띠는 납작한 형태이며 끝에는 술이 달려 있다. 착용 시에는 허리에 두 바퀴를 감은 뒤 배 앞에서 매듭을 짓는다. 허리띠 위에 다시 ‘탁짹’이라 불리는 납작한 직조 허리 장식을 덧매며 이 장식의 양끝에도 술이 달려 있다. 착용할 때에는 술을 접어 허리띠 안으로 밀어 넣고 양끝에 각각 달린 금속 걸쇠로 고정한다. 걸쇠는 사각형, 원형 등 형태가 다양하며, 어떤 것은 터키석과 산호가 박혀 있고 어떤 것은 장식이 없는 단순한 형태이다. 허리 장식은 허리를 한 바퀴 감은 뒤 걸쇠를 채워 고정한다. 초기 걸쇠는 주로 황동으로 만들었으나, 오늘날에는 은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다. 과거에는 깨모의 폭이 넓고 탁짹은 좁았으나, 오늘날에는 일정한 기준이 없으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한다. 이러한 직조물들은 대부분 현지 여성들이 직접 짠 것인데, 과거에는 직조 기술이 없는 여성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 여성들은 직조 기술을 매우 중시하며 열심히 익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풍습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앞치마

허리에는 ‘중바’라 불리는 앞치마를 두르는데, 금단이나 비단 등으로 만들며 길이는 장삼의 밑단과 거의 같다. 과거에는 검정과 흰색 두 가지 색상뿐이었으나, 이후 점차 자수와 가장자리 장식이 더해졌다. 비단으로 만든 앞치마는 중앙에 다양한 무늬를 수놓고, 금단 앞치마는 천 자체의 무늬가 드러나도록 별도의 자수를 하지 않는다. 앞치마 양옆과 밑단에는 서로 다른 색의 금단, 물결무늬 은사, 회자문, 자수가 있는 넓은 천 등을 취향에 맞게 배치하여 장식한다. 앞치마의 끈은 ‘중파뿌락’이라고 하며 흰 천을 둥글게 말





아 속을 비운 형태이고 끝은 화살촉 모양이다. 끈의 중앙과 끝부분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폭이 다른 여러 줄의 가로 자수 띠를 꿰매고, 완성된 허리끈을 앞치마 상단 가장자리에 봉제한다. 때로는 색색의 납작한 직조 띠를 끈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때 매듭을 묶고 남은 끝부분의 술은 허리 뒤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린다.

신발

여성은 종아리에 양모나 우모로 짠 각반을 감고, 약 두 손가락 너비의 유채색 직조 띠로 단단히 묶는다.

발에는 삼베로 짠 짚신 형태의 ‘딱싹짜’를 신거나, 일반 천과 굵은 화학섬유 실로 만든 천 신발을 신기도 한다. 과거 겨울철에는 두꺼운 모직물로 만든 발싸개를 겹쳐 신기도 했으나, 오늘날에는 대부분 시장에서 구입한 가죽 신발을 신는다.



기타 장신구

귀에는 은으로 만든 작은 귀걸이를 착용하는데, 중앙에는 산호를 박고 주변에는 작은 터키석과 산호를 교차로 장식하며, 아래쪽에는 은 술이 달려 있다. 귀 뒤쪽의 뒤통수 머리에는 작은 귀걸이와 형태는 비슷하지만 크기가 약간 더 큰 귀걸이를 한 쌍 더 장식한다. 목에는 두 줄로 된 가는 산호 목걸이를 거는데 중간중간 호박이나 터키석을 섞어 장식하며, 은 사슬과 함께 착용하기도 한다. 산호 목걸이나 은 사슬의 양옆으로는 ‘탄고’라 불리는 은 장식이 달려 있다. 탄고에는 산호 등의 보석이 박혀 있으며, 끝에는 귀이개, 이쑤시개 등이 달려 있어 착용하면 가슴 앞에 자연스럽게 늘어진다. 탄고는 액을 막는 효능이 있다고 한다. 은 사슬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 사슬로 연결한 불감(佛龕) 모양 또는 원형의 가우함을 대신 착용한다. 손목에는 터키석과 산호가 박힌 가느다란 은 팔찌를 착용한다. 허리의 좌우 어느 한쪽에는 바느질함이나 은제 장식 걸이를 단다. 장식 걸이에는 세 알의 터키석과 산호가 박혀 있으며, 아래쪽에는 여러 가닥의 은 사슬 술이 달려 있고 술의 끝에는 방울이 달려 있다.







남성의 복식

남성들은 평소 검은색 머릿수건을 두르고, 격식을 갖추는 여우 가죽 모자를 쓴다. 장삼을 입는데 그 형태는 여성의 것과 유사하며 주로 검은 색이나 푸른색을 띤다. 장삼은 모직물, 코듀로이, 일반 천 등으로 만들며, 안감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다. 날씨가



추울 때에는 장삼을 2~4겹까지 겹쳐 입기도 한다. 현지인에 따르면, 과거 부유한 집안에서는 무늬가 있는 비단 장삼을 입었으며, 깃과 소매부리에는 담비 가죽을 둘러 장식하였다. 오늘날에는 대부분 시장에서 구입한 인조 모피로 대신하거나, 자ړ 푸루나 금단으로 가는 테두리 장식을 두르며, 깃단과 밑단에는 테두리 장식을 하지 않는다.





장삼 겹에는 칸젠 조끼를 덧입는데, 가장자리 장식
이 없거나 또는 소량의 장식만 두른다. 허리에는 납작
하게 짠 허리띠를 매고 장도를 찬다. 허리 앞쪽에는 삼
각형의 반두쯔(伴肚子)를 맨다. 과거 반두쯔는 흰색 가
죽으로 만들었으며, 주로 부싷돌, 담뱃대, 담뱃잎 등을
넣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오늘날 남자들은 대부분 무
늬가 그려진 형태를 착용하며 주로 장식 용도로 사용한
다. 현지 남성들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각반을 감고,
발에는 짚신을 신는다.





이 지역에는 ‘천아포단(天鵝抱蛋, 백조가 알을 품다)’이라 불리는 민속놀이가 있는데, 이는 성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자룽 지역의 여타 곳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대붕에 관한 많은 전설이 전해진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 이 지역 주민들은 독을 지닌 뱀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는데 대붕이 나타나 이것을 제거해 주었고. 이에 주민들은 대붕의 은덕을 기리기 위해 이 놀이를 대대로 전승해 왔다고 한다. 현지인들은 머리 위에 대붕 장식을 할 뿐만 아니라, 요괴를 물리치고 재앙을 막기 위해 문지방이나 불당 등에도 대붕 조각상을 모신다.

이러한 복식은 현지의 기후와 환경에 적응해 온 과정을 잘 보여 준다. 시대의 변천 속에서도 주민들은 고유의 복식 문화 전통을 굳게 지켜 왔으며, 외래 문화의 영향도 비교적 적게 받았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혼례와 설 명절 등 민속 행사에서 여전히 전통 복식을 갖춰 입으며 이 지역의 향토 풍습을 잘 계승하고 있다.



15

འགྲུ་ཐང་གི་གོས་རྒྱ།

강딩 위통(康定鱼通)
복식





① མགོ་རས།
머리두건

② ལག་སྟོང།
조끼

③ ལ་རིང།
장삼

④ སྐ་རག་ས།
허리띠

⑤ རུ་ལྷག།
담배주머니

⑥ སྐད་ལྷག།
반두쯔

⑦ སྐོ་གྱི།
단도

⑧ ལྷ་དཔྱིས།
각반

⑨ ལྷ་ལྷ།
짚신



① སྒོ་མ་ཐུང།
합사실

② བགས་རས།
머릿수건

③ རྒྱ་ལོང།
귀걸이

④ འགག་རིང།
민소매 장삼

⑤ ལྷ་རིང།
긴소매 장삼

⑥ འགག་ཕྱོད།
조끼

⑦ བང་གདན།
앞치마

⑧ རུ་ཐུག།
담배주머니

⑨ ཁབ་ཕྱུབས།
바늘집

위통(鱼通) 지역은 캅딩시 동부의 위통진을 중심으로, 평타향(捧塔乡), 진탕진(金汤镇), 마이병향(麦崩乡), 구짜진(姑咱镇)을 아우르는 지명이다. 이들 지역의 평균 해발고도는 약 2,000m이며, 입체적인 산악 기후를 띤다. 주민들의 생활 방식은 반농반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사가파(萨迦派) 집권 이전, 위통 지역에는 48개의 부족이 집거하고 있었으며, 자룽 18토사 시기에는 이들 48개 부족이 모두 위통 토사의 관할 아래 있었다고 한다. 위통 토사의 역사적 변천에서 중요한 두 시점이 있다. 하나는 약 18세기경 위통이 무핑 토사의 통치 아래 있었던 시기이며, 다른 하나는 이후 위통이 무핑 토사로부터 분리되어 자룽 18토사 가운데 하나가 된 시기이다.

위통은 또한 ‘귀탕’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머리에 수건을 두른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다. 이 지역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이충(贵琼) 티베트족이라 부른다. 일부 학자들은 이들의 조상이 티베트족의 네 개 원시 씨족 중 하나인 ‘무씨(穆氏)’ 부족에서 기원했다고 보고 있다.



남성 복식

남성의 복식은 두건, 장삼, 조끼, 허리띠, 각반, 신발 등의 의복과 반두 짚, 칼 등의 장신구로 구성된다.



두건

검은색 두건은 위통 남성 복식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전통적인 방식은 약 10m 길이의 검은 천을 가볍게 꼬아서 머리에 감아올리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안쪽에 원형 스펀지를 넣고 그 바깥을 약 4m 길이의 검은 천으로 감싸 만든 두건을 머리에 직접 착용한다.

두건은 세심하게 감아야 한다. 제대로 감은 두건은 울창한 숲에서 노동할 때 머리를 보호하고 보온 효과를 제공한다. 만약 감는 기술이 서툴면 두건이 쉽게 풀어질 뿐 아니라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



장삼

일상생활에서 남성들은 검은색이나 푸른색 장삼을 입는다. 장삼은 오른쪽으로 여미는 우임 구조이며, 밑단은 발목까지 내려온다. 깃단에는 속이 빈 매듭 형태의 단추 5개가 달려 있는데, 목 단추 1개, 중간단추 1개, 겨드랑이단추 3개로 이루어진다. 단추의 색은 장삼과 동일하다. 장삼의 안자락은 허리까지 내려오며, 양옆은 허벅지까지 트여 있다. 노동을 하거나 춤을 출 때는 장삼 밑단의 한 귀퉁이를 허리띠 안으로 끼워 넣는다.



조끼

겨울철에는 장삼 위에 맞깃 형태의 두꺼운 조끼를 덧입는다. 과거에는 조끼를 산양가죽, 양가죽, 소가죽 등을 이용해 제작하였다. 밑단은 무릎까지 내려오며, 맞깃 양쪽의 밑단 부근에는 작은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를 각각 하나씩 만든다. 가죽 조끼는 옷을 보호하고 비바람을 막으며 보온 효과가 뛰어나고 휴식을 취할 때에는 방석이나 이불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평소 무거운 짐을 질 때에는 털이 안쪽으로 향하도록 입고, 비가 올 때에는 반대로 뒤집어 입는 등 그 용도가 다양하다. 가죽 조끼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복식 가운데 하나이다.

가죽 조끼의 제작 과정은 복잡하고 고되어서, 주로 남성들이 이를 담당한다. 제작할 때는 먼저 가죽 표면의 기름기와 남은 살점을 긁어낸 뒤 햇볕에 말리고, 물에 3~4일 동안 담가 둔다. 그다음 물기를 짜낸 후 가죽에 기름을 바른 뒤 손이나 발로 반복해서 문질러 가죽을 부드럽게 만든다. 충분히 부드러워진 후에야 재단과 봉제가 가능하다. 봉제에는 보통 사슴가죽이나 노루가죽으로 만든 실을 사용한다. 조끼가 완성된 뒤에도 착용하면서 반복적으로 문질러 주어야 몸에 잘 맞고 부드러워진다.





오늘날 대다수는 겉감에 검은색 천을 쓰고 안감에 인조 모피를 사용한 조끼를 입지만, 공연이나 축제 등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서는 여전히 전통 가죽 조끼를 입은 이들을 볼 수 있다.







허리띠

허리띠는 주로 푸른색 또는 녹색 비단으로 제작되며, 속이 빈 형태이며 양 끝은 사선으로 재단한다. 전체적으로 폭이 넓고, 문양이나 자수 장식은 없다. 과거에는 허리띠 안에 물품을 넣은 뒤 양 끝을 묶어 사용하였으나, 오늘날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하의로는 검은 천 등으로 만든 바지를 입는데, 그 모양새는 바지통이 넓은 현대의 긴바지와 유사하다.

각반

남성들은 종아리에 각반을 감는데, 이는 현지의 자연환경 및 생활상의 필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울창한 숲이나 험준한 산길을 이동할 때 각반은 가시덤불, 곤충, 동물 등으로부터의 몸을 보호하며, 동시에 방풍과 보온 기능도 함께 지닌다. 전통적으로 각반은 삼베로 엮어 만들었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티베트 모직물로 제작한다. 각반을 감을 때는 먼저 한쪽 끝을 발목에 고정 한 뒤 위쪽으로 차례로 감아올린 뒤, 무릎 부근에서 가는 끈으로 단단히 묶는다.



신발

과거에는 주로 짚신이나 천 신발을 신었으나, 현재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시장에서 구입한 천 신발이나 가죽신을 많이 신는다.



장신구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장신구를 많이 착용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는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서 허리 앞쪽에 사슴가죽 등으로 만든 반두찌를 차기도 한다. 본래 이는 담뱃대, 담뱃잎, 부싷돌 등을 넣는 용기였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장식용으로 패용한다. 허리춤에는 단도 한 자루를 찬다.





여성 복식

여성의 복식은 머릿수건, 장삼, 앞치마, 신발 등의 의복과 바늘집, 담배주머니 등의 장신구로 구성된다.



머리 스타일

과거 젊은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세 가닥으로 땋아 머리 위에 틀어 올렸다. 기혼 여성은 머리를 두 갈래로 나누어 각각 세 가닥으로 땋은 뒤, 끝부분에 비단실이나 털실로 만든 합사선을 섞어 땋은 뒤 머릿수건을 고정하였다. 오늘날에는 주로 비단실이나 털실로 미리 꼬아 만든 가체를 사용하여 머릿수건을 감고, 뒤통수에서 매듭을 짓는다. 양 끝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가슴 앞이나 등 뒤로 늘어뜨린다. 대부분의 여성은 검은색과 분홍색이 섞인 가체를 머리에 두르나, 단색의 가체를 사용하는 이들도 있다.



머릿수건

여성은 검은색 머릿수건을 착용하며, 주된 재질은 면직물과 벨벳이다. 머릿수건 앞부분의 자수 문양은 앞에서 뒤쪽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타난다. 먼저 다양한 색실로 수놓은 안쪽을 향한 톱니무늬가 있고, 이어 좁은 폭의 장식 띠가, 그리고 당초문이 차례로 이어진다. 머릿수건의 나머지 부분에는 대체로 자수나 가장자리 장식이 없으나, 일부는 한 줄기에서 세 갈래 작은 가지가 뻗어 나오고, 각 가지마다 잎과 연결된 꽃무늬를 수놓기도 한다. 이를 현지 사람들은 ‘해바라기’라 부른다.



머릿수건은 접었을 때 보통 4~6겹이 되며, 단순한 장식품을 넘어 실용적인 기능도 함께 지닌다. 겨울에는 추위를 막고, 여름에는 햇볕을 가리는 역할을 하여 사계절 내내 착용이 가능하다. 햇빛이 강할 때에는 앞부분을 길게 늘어뜨려 가리거나, 뒤쪽을 앞으로 꺾어 접어 이마를 넓게 덮어 햇빛을 차단할 수 있다. 연장자의 경우 머릿수건 뒷자락이 목덜미 아래까지 내려오는 반면, 젊은 여성의 것은 목덜미까지만 내려온다.





장삼

평상시에는 푸른색 또는 붉은색 천으로 만든 셔츠를 입고, 그 위에 검은색이나 푸른색 천으로 만든 민소매 장삼을 입는다. 장삼의 안자락은 허리까지만 내려오고, 깃과 섶 가장자리에는 녹색 천이나 꽃무늬 천으로 테를 두른다. 깃단 끝부분에 단추 하나를 달 뿐 그 외에는 단추가 없으며, 양옆은 허벅지까지 트여 있다. 또한 여성들은 소매가 있는 푸른색 장삼을 입기도 한다.

격식 있는 차림에서는 보라색 비단이나 금단으로 만든 장삼을 입는데, 밑단은 무릎 부근까지 내려온다. 소매 끝에는 노란 비단과 연보라색 금단으로 두 줄의 가장자리 장식을 한다. 장삼 위에는 노란색 계열의 조끼를 덧입는데, 깃이 없이 오른쪽으로 여미는 형태이다. 셔 가장자리에는 검은 천과 폭이 넓은 비단으로 두 줄의 가장자리 장식을 한다.





앞치마

여성의 허리띠는 남성의 것보다 약간 가늘며, 푸른색과 녹색이 주를 이룬다. 착용 시에는 양 끝을 허리 앞쪽에서 매듭지어 묶는다. 허리띠 바깥에는 앞치마를 두르는데, 납작하게 짠 끈을 사용하여 이 역시 허리 앞쪽에서 매듭을 짓는다. 앞치마의 양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검은 천으로 만든 소박한 단색 앞치마가 있다. 둘째, 검은색 앞치마의 양옆과 밑단에 약 세 손가락 너비의 녹색 천으로 테를 두른 형식이다. 셋째, 검은 바탕에 녹색 천으로 테를 두르고 중앙에는 가지 위로 해바라기 등 꽃이 핀 문양을 수놓은 형식이다.





격식 있는 차림에서는 특수한 앞치마를 착용하는데, 이는 검은 천을 바탕으로 하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의 장식은 다음과 같다. 앞치마의 양옆과 밑단에는 다섯 가지 색상의 천을 이어 붙인 장식띠와 약 두 손가락 너비의 천 띠를 차례로 돌려 장식한다. 좌우 양측에는 위에서 아래로 굽기가 다른 두 줄의 가장자리 장식을 두르고, 중앙 부분은 아치형을 이루게 한다. 이 아치형 공간에는 불임자수 기법으로 덩굴무늬나 개코무늬를 수놓는다. 앞치마 상단 중앙에는 크기가 다른 두 장의 천을 위아래로 겹쳐 봉제한다. 위쪽 천은 비교적 작으며, 양옆과 밑단에 가는 천 띠로 세 줄의 가장자리 장식을 두른다. 또한 상하 끝부분에는 불임자수 기법으로 양뿔무늬나 개코무늬 장식띠를 덧대고, 중앙에는 색색의 나비 문양을 수놓는다. 아래쪽 천은 더 큰데, 가장자리에 서로 다른 색의 가는 천 띠를 다섯 줄가량 돌려 장식한다. 앞치마 밑단 좌우 모서리에는 대칭을 이루는 나비 문양을 장식하고, 두 나비 사이에는 불임자수 방식으로 꽃병에 꽂힌 꽃무늬를 수놓는다. 꽃병 위쪽에는 꽃과 길상결 등을 수놓는다.

두 번째 유형은, 검은 바탕에 오색 실로 수많은 문양을 수놓은 것이다. 상단에는 직사각형 장식 문양을 수놓는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회자문, 톱니 끝이 서로 마주 보는 톱니무늬, 만자 연속무늬를 차례로 배치하고 중앙에는 커다란 꽃송이 등을 수놓는다. 하단에는 서로 다른 색실로 열한 가닥의 술 장식을 수놓는데, 이 술들은 위에서 아래로 드리워진 형상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가로로 배열된다. 밑단 좌우 끝에는 각각 삼각형 문양을 장식하고 그 안에 만자문 문양을, 위쪽에는 꽃과 가지 묶음을 수놓는다. 이 외에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문양을 수놓은 앞치마가 있다.

신발

과거에는 주로 짚신이나 자수 천 신발을 신었으나, 오늘날에는 시장에서 구입한 천 신발이나 가죽신을 즐겨 신는다.

장신구

귀에는 주로 금 귀걸이를 달고 손목에는 은 팔찌 등을 착용한다. 허리 왼쪽에는 다양한 문양을 수놓은 천으로 만든 바늘집과 끝에 짧은 술이 달린 담배주머니를 차며, 이 외에는 장신구를 과도하게 착용하지 않는다

위통 지역은 차마고도(茶馬古道)의 중요한 거점으로 서, 역사적 변천과 시대의 흥망 속에서도 외래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전통 복식의 원형이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 특히 자수 기법은 매우 정교하여 이미 성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복식은 산간 지역의 삶에 적응해 온 현지인들의 지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한 민속과 풍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제 2 장

བོད་དམག་པའི་གོས་རྒྱ།

바이마(白马) 티베트족 복식

16

བོད་དམག་སྤྱི་མཐུན་མཐོ་གོས་རྒྱུ།

바이마 여성의 복식





① ལྷ་ནག
샤낙

② མགོ་དགེས།
머릿수건

③ ཡ་ཨན།
야안

④ ལྷ་དཀར།
샤까

⑤ རྩ་ཡོ།
나요

⑥ སྒྲི་ཐག་ ཀོ་ཐོ།
게탁/코토

⑦ རབ་སྐྱུར།
캔자

⑧ ཀེར་ཅ།
깨차

⑨ ལྷ་རེང།
장삼

⑩ སྐྱ་རགས། རྩ་ལོ།
꾸락/롤레

⑪ རྩ་གྲི།
뽀찌

⑫ རྩ་ལྷག།
담배주머니

⑬ ཡ་ལྷོ།
야오

바이마 티베트족은 주로 바이수이강(白水江) 유역과 인접한 쓰촨성(四川省) 핑우현(平武县), 주자이거우현(九寨沟县) 샤탕(下塘) 일대와 간쑤성(甘肃省) 원현(文县)에 분포하며, 이 밖에도 송판현(松潘县), 우두현(武都县), 저우취현(舟曲县) 등지에 소수 인구가 흩어져 거주한다. 바이마어(語)로 '웨가(约嘎)'는 산골짜기를 뜻하며, 이들의 주요 거주지는 다부웨가(达布约嘎), 다개웨가(搭嘎约嘎), 가이리웨가(盖日约嘎) 등이다. 이들 지역은 지세가 험준하고 골짜기가 깊으며 식생이 울창하고 생태 환경이 복합적이다. 평균 해발고도는 약 1,800m이며 기후는 온난하고 습윤한 아열대 몬순 기후와 산지 기후의 특징을 함께 지닌다.

현지의 많은 주민들은 스스로를 토번 변경을 지키던 병사의 후손이라 여기며, 대다수는 원시 본교(苯教)를 신앙한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들은 과거 외적과의 전투에서 산 정상에 요충지를 점거하였고, 이후 점차 그곳에 정착하여 수렵과 농업을 주요 생계로 삼았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독특한 자연 환경과 유구한 역사,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친 민족 융합은 바이마 티베트족만의 기이하면서도 화려한 복식 문화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2017년, 바이마인 복식이 간쑤성 성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두 개의 성(省), 세 개의 현(县)에 걸쳐 분포하는 바이마 여성의 복식은 모자의 형태나 깃털을 꽂는 방식, 복식 부문의 명칭 및 상징적 의미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양식과 색채, 구조 등 전체적인 스타일은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서술한다.

전체 복식은 사가모, 조끼, 껌차, 허리띠, 앞치마, 각반, 신발 등의 의복과 머리장식, 귀걸이, 물고기뼈 장식, 동전 허리띠, 담배주머니 등의 장신구로 구성된다.



머리장식

여성은 머리카락을 세 가닥 땡은머리로 만드는데, 땡은머리 끝에는 현지에서 ‘야안’이라 부르는 합사실을 함께 섞어 땡는다. 이는 붉은 털실을 세 가닥으로 꼬아 만든 형태이다. 그 위에는 일곱 개 내외의 원형 물고기 뼈 장식을 차례로 달며, 전체는 등 뒤로 늘어뜨린 뒤 사가모를 쓴다. 일부는 어골패로 장식한 땡은머리 위에 선명한 색상의 작은 구슬 장식을 더하고 땡은머리를 머리 위에 감아올리고, 그 끝은 좌우 컷가 어느 한쪽으로 늘어뜨리기도 한다. 연장자의 머리 장식은 이와 다소 다르다. 이들은 현지에서 ‘샤뽀’라 부르는 검은색 천 모자를 쓰는데, 모자 꼭대기에는 붉은 끈으로 엮은 속이 빈 매듭 장식으로 모자 꼭지를 단다. 이후 샤뽀 모자 위에 검은색 긴 머릿수건과 이미 장식된 땡은머리를 함께 감아올린다. 머릿수건을 두르지 않을 때는 땡은머리만 샤뽀 모자 위에 감아올린다.







사가모(沙嚨帽)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 여성들은 ‘샤낙’이라 불리는 검은색 펠트 모자를 착용하였으며, 사가모는 본래 남성만이 착용하던 것이었으나, 차츰 여성들 사이에서도 점차 보급되어 유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주자이거우 지역에서는 여전히 검은색 펠트 모자를 쓴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모자 챙이 위로 젖혀져 있으며 앞쪽에 어골 장식으로 꾸민 것이 특징이다.



평우현과 원현 지역의 여성들은 주로 산양 털로 만든 흰색 펠트 모자를 쓰는데, 이 모자를 현지 방언으로 ‘샤까’라 부르며, 여기서 ‘샤’는 모자를 의미한다. 사가모는 모자의 몸체가 낮고, 지름은 약 15cm 정도이다. 챙의 너비는 약 3cm로 연잎 모양을 띤다. 현재 사가모는 주자이거우 지역에서도 널리 유행하고 있다.

사가모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양 털을 바닥에 펼친 뒤 가늘고 긴 나무 막대기로 적절한 힘을 가해 반복해서 두드리고 세심하게 빗질한다. 그다음 여러 개의 가는 대나무를 엮어 만든 대자리를 바닥에 펼치고, 그 위에 손질한 산양 털을 고르게 편 뒤, 대자리 가장자리를 따라 말아 올리고 양 끝을 끈으로 단단히 묶는다. 그 위에 끓는 물을 붓고 열기가 식기 전에 밀어 펴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이 바로 털이 엉기게 하여 펠트화 시키는 과정이다. 약 10분간 밀어낸 뒤 다시 끓는 물을 붓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펠트가 충분히 형성되면 햇볕에 말려 건조한다.



모자의 모양을 잡을 때는, 펄트를 두께 약 3cm의 원형 나무틀에 씌우고, 반원형 돌로 틀의 가장자리를 반복해서 두드려 모자 몸체를 성형한다. 모양이 잡히면 모자 몸체 하단을 굵은 흰색 실로 성긴 바느질을 하여 고정한다. 이어 몸체를 연마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거친 솥돌로 반복해 문질러 어느 정도 매끄럽게 만든 뒤, 보다 표면이 고른 돌로 다시 연마하고, 마지막으로 작은 고운 돌을 사용하여 세밀하게 다듬는다. 오랜 시간 연마하면 하얀 가루가 생기며 표면이 단단하고 윤이 나게 된다. 연마가 끝나면 모자 챙의 가장자리를 둥글게 잘라 정리하고, 24개의 물결무늬 주름을 잡는다. 챙 가장자리의 털실이 풀리지 않도록 흰 실로 촘촘히 꿰맨 뒤, 모자 하단에 붉은색이나 짙은 남색 털실을 감아 장식하며, 털실의 양 끝은 모자 양옆이나 뒤쪽으로 짧게 늘어뜨린다. 오늘날에는 모자를 더욱 단단하고 희게 유지하며, 빗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완전히 형태를 잡은 뒤 전체 표면에 백색 석고나 활석 가루를 바르기도 한다. 또한 원현 지역에서는 모자 몸체에 붉은색과 검은색 실로 닭발꽃과 부채꽃 등의 문양을 수놓는 풍습이 있다. 이러한 모자 제작 기술은 쓰촨성 성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사가모의 독특함은 모자에 장식하는 깃털에서도 나타난다. 주자이거우 지역 여성들은 모자 앞 중앙에 두 개의 깃털을 꽂는다. 반면 원현과 핑우 지역에서는 좌우 한쪽에 한 개를 꽂거나, 한쪽에 한 개, 다른 쪽에 두 개를 꽂는 등 그 방식이 다양하다. 또한 꿩과에 속하는 금계의 깃털을 한두 개 장식하기도 하며, 금계 목뒤쪽의 가죽이 붙은 온전한 깃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금계의 목 깃털은 단독으로 꽂기도 하고, 여기에 한 쌍의 흰색 깃털과 함께 장식하기도 한다.

이러한 깃털 장식은 단순한 미적 요소를 넘어 깊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다. 바이마 티베트족 지역에서는 사가모뿐 아니라 대문이나 지붕 위에서도 깃털 장식이나 흰 수탉 형상을 흔히 볼 수 있다. 그 기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민간 설화가 전해진다.

첫째, 7세기경 어느 이른 아침, 적의 기습을 받은 초병들이 수탉의 우렁찬 울음소리에 깨어나 위기를 모면하게 되자 그에 대한 보상으로 깃털을 모자에 꽂기 시작했다는 설이다. 둘째, 과거 전쟁 시 병사들이 모자에 꽂은 깃털로 적과 아군을 식별하였다는 설이다. 셋째, 뤼얼가이(若尔盖) 지역에서 승전하고 돌아온 병사들의 모자에 깃털이 꽂혀 있었고, 이를 현지인들이 계승하였다는 설이다. 넷째, 이 지역의 한 수장이 적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혔을 때, 흰 수탉의 깃털을 태우자 빛이 나 어둠 속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이를 기념하여 깃털을 꽂게 되었다는 설이다.

오늘날에는 사가모에 작은 방울을 달거나 꽃다발을 꽂는 풍습도 점차 유행하고 있다. 착용 시 여성들은 모자를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쓰며, 취향에 따라 왼쪽으로 기울이거나 바로 쓰기도 한다. 일반적인 티베트 모자와 다르게 모자 끈을 턱 아래가 아닌 뒤통수 쪽에서 묶는다. 보관할 때에는 모자와 깃털을 분리하여 따로 보관한다. 모자 몸체에는 대개 바늘 한 개를 꽂아 두는데, 이는 사가모를 착용할 때 깃털을 고정하기 위한 것이다.



조끼

상체에 입는 조끼는 현지에서 ‘캔짜찌’라 불리며, 주로 검은 천이나 푸른색 금단으로 제작된다. 보통 껌차와 함께 입는다. 전통적인 조끼는 깃, 깃단, 소매구멍, 밑단에 별도의 가장자리 장식이 없거나 세 줄 정도만 둘렀으나, 오늘날에는 여러 겹의 가장자리 장식 기법을 사용하며, 소매구멍과 깃단 등에 다양한 꽃무늬를 수놓는다.

원현 지역의 조끼는 등판 중앙에 네 개의 삼각형 천 조각을 봉제하는데 이들은 서로 대칭을 이루며 꼭짓점이 마주보도록 배치된다. 삼각형 안에는 날개를 상징하는 스바이루(石白如) 문양과 꽃무늬 등을 수놓는데, 이는 태양의 빛을 상징한다. 이들 삼각형의 한쪽 꼭짓점은 서로 다른 색의 실선으로 교차 연결하거나, 네 개 삼각형의 중앙에 정사각형 천 조각을 덧대어 그 네 모서리가 각 삼각형의 꼭짓점과 마주보도록 한다. 양쪽 견갑 부위에는 진홍색 천 등을 바탕으로 각각 세 겹 내외의 물결무늬 원형 문양을 수놓는데, 이는 달을 상징한다. 앞깃 가장자리에는 두 가지 색 실로 작은 원이 돌아난 형태의 문양을 수놓는데, 이는 별을 상징한다. 또한 조끼 뒷면의 깃 아래 쪽에는 길게 늘어진 검은색 또는 붉은색 역삼각형 천조각을 덧대어 장식하는데, 이는 남성성과 번식 등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가을과 겨울에는 ‘찌요찌’라 부르는 소매 있는 외투를 입으며, 제작 기법과 장식 양식은 조끼와 동일하다. 현재까지 조끼와 외투의 기본 형태는 큰 변화가 없으나, 색채와 문양 등은 과거의 소박한 형태에서 오늘날 보다 선명한 색감과 풍성한 문양으로 발전하였다.





깨차

몸에는 ‘깨차’라 불리는 주름이 많은 옷을 입는다. 깨차는 다른 티베트 복식과 달리 사선 여밈을 사용하지 않고 깃이 마주 보는 맞깃 형식을 취한다. 맞깃은 허리 부위에서 서로 겹쳐지며,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여며 고정한다. 깨차는 주로 검은색 또는 붉은색을 바탕색으로 하며, 양쪽 상완 부위에는 서로 다른 색상의 천 조각을 연속으로 이어 붙여 오색찬란함을 표현한다. 치마 뒷 부분에는 24개의 주름을 잡는데, 이는 24절기를 상징한다. 깃, 소매, 밑단에는 다양한 색채와 문화적 의미를 담은 비단과 천 등으로 장식한다. 자수와 색상의 조합은 길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해진다. 평우현과 원현 지역에는 깨차에 서로 다른 천으로 접깃을 덧댄 형식도 존재한다. 과거에는 깨차 뒷자락 중앙에 납작한 물고기 뼈 장식을 매달고 그 아래에 여러 개의 술을 달았으나, 오늘날 이러한 장식은 찾아보기 드물다.





과거 껌차는 일상복이었으나, 현재는 주로 예복이나 공연 등에서 착용하며, 60세 이상의 연장자를 제외하면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착용 시에는 맞깃을 허리 앞쪽에서 겹쳐 여민다. 보관할 때에는 특수한 접기 방식이 있는데, 껌차를 뒤집어 안감이 겉으로 나오게 한 뒤 두 사람이 각각 허리 부분과 밑단을 잡고 주름을 가지런히 정돈한다. 그 후 밑단에서 깃 방향으로 두 번 접어 올린 뒤 소매로 몸체를 감싸 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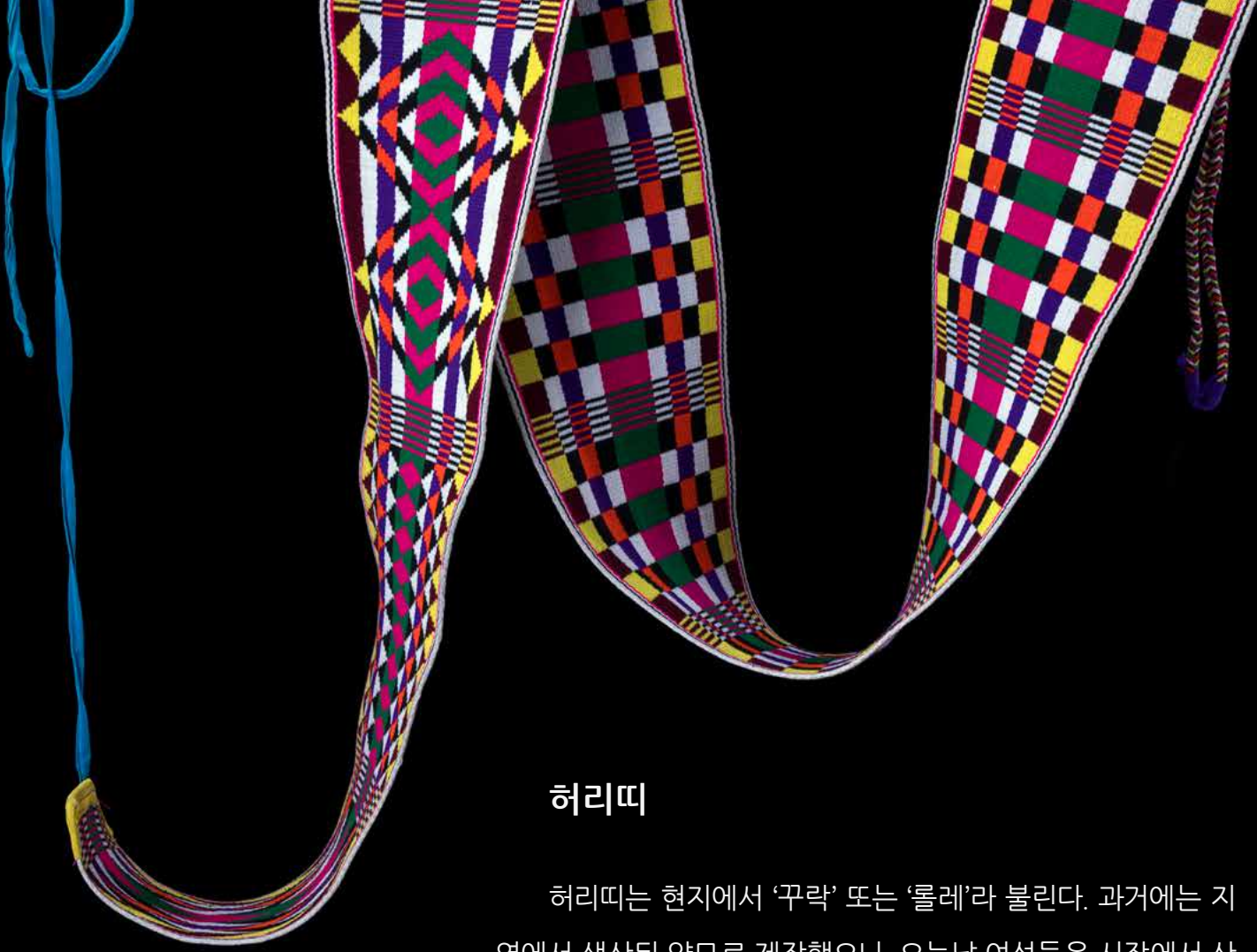




과거 껌차는 주로 양모나 삼베로 제작하였으며, 신발로 티베트식 장화를 신었기에 치마 길이는 무릎에 닿을 정도로 짧았다. 그러나 현재는 치마 끝에 한 겹에서 세 겹의 천을 덧대어 길이를 늘렸으며, 재료 또한 다양해져 일반 천, 비단, 모직물 등 여러 소재가 사용된다. 봄과 여름에는 얇고 가벼운 흰색 껌차를 입고, 가을과 겨울에는 두꺼운 모직물로 만든 제품을 입는다. 혹한기에는 껌차를 서너 벌 겹쳐 입고, 그 위에 산양가죽 조끼를 덧입기도 했으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모피 의복과 장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밖에 연장자 여성들은 푸른색 장삼을 입기도 하는데, 이는 사선 여밈 구조를 가지며 허리 양측에 트임이 있다. 형식은 진찬 지역 여성들의 장삼과 유사하며, 보통 검은색 조끼와 함께 착용한다.







허리띠

허리띠는 현지에서 ‘꾸락’ 또는 ‘롤레’라 불린다. 과거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양모로 제작했으나, 오늘날 여성들은 시장에서 산 다양한 색상의 털실 5~6가지를 허리베틀에 걸어 한 뼘 너비의 화려한 문양이 있는 허리띠를 짠다. 한쪽 끝에는 고리형 고정 장치가 있고, 다른 한쪽은 끈 형태로 되어 있어 서로 맞물려 허리에 묶는다. 주자이거우 지역에서는 붉은색 털실로 짠 허리띠를 사용하는데, 고리 부근에 붉은 술 장식이 달려 있어 착용 시 긴 술을 등 뒤로 늘어뜨린다. 이처럼 폭이 넓은 허리띠는 보온 효과와 함께 주름이 많은 옷을 고정하고 장식하는 다목적 기능을 한다. 일상에서는 보다 간소한 붉은색 허리띠를 매기도 한다. 현재 바이마 티베트족의 화려한 허리띠 직조 기술은 뎬양시(绵阳市)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앞치마

앞치마는 현지에서 ‘뽀찌’라 불린다. 과거에는 장식이 없는 푸른색이나 검은색의 단색 앞치마를 입었으나, 오늘날에는 소재, 색상, 장식 문양 등이 매우 다양해졌다. 주자이거우 지역에서는 주로 파란색 테두리를 두른 검은색 앞치마를 착용하며, 윗부분에는 두 줄의 흰 천 끈을 달아 자연스럽게 늘어뜨리는데 끈에는 꽃무늬 등의 자수가 더해진다. 그 외 지역에서는 테두리 장식이 있는 흰색 앞치마나 꽃무늬 푸루 앞치마를 착용하며, 일부 푸루 앞치마에는 술 장식이 달려 있다. 이러한 앞치마의 끈은 대개 허리 뒤쪽에서 묶고, 양 끝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린다.





각반과 신발

수풀이 무성한 지역에 들어갈 때는 종아리를 보호하기 위해 여성들은 종아리에 ‘오교’라 불리는 흰 천으로 감싼다.

발에는 버드나무 껍질 등으로 만든 수공예 짚신을 신거나, 현지에서 ‘야오’라 불리는 티베트식 장화를 신는다. 장화의 밑창은 가죽으로 만들고, 장화 목 부분은 삼베나 산양 털로 짜서 만든다. 또한 앞코가 둥글고 굽이 없는 천 신발을 신기도 하는데, 신발 표면에는 모란 등의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다.





기타 장신구

귀에는 ‘나요’라 불리는 은 귀걸이를 착용한다. 목에는 ‘깨탁’ 또는 ‘코토’라 불리는 장식을 걸어 가슴 앞으로 늘어뜨리는데, 이는 3~5개의 직사각형 물고기 뼈를 세로로 배열한 형태이다. 일부 양식에서는 상단에 약 7개의 조개껍데기를 장식하기도 한다. 조끼 오른쪽 깃단추 부분에는 자수가 놓인 바늘꽃이를 매달고, 왼쪽에는 뼈로 만든 이쑤시개를 건다. 때로는 껌차를





나 조끼 뒷자락 중앙에도 바늘꽃이를 착용하기도 한다. 허리에 ‘또렝’이라 불리는 동전 장식 긴 허리띠를 대여섯 바퀴 감거나, ‘카띠’라 불리는 구슬 꿰미 허리띠를 매기도 한다. 허리 양옆에는 문양이 수놓아진 담배주머니를 하나씩 차는데, 하단에는 구슬 술 장식이 달린다. 과거에는 담뱃대와 담배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 외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는다.





이 지역의 복식 문화는 매우 풍부하며, 남녀의 사랑을 노래한 《어여쁜 아가씨》라는 민요 가사에도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아가씨 머리 위 무엇이 고운가? 아가씨 머리 위 흰 모자가 곱다네.
흰 모자 위 무엇이 고운가? 흰 모자 위 흰 깃털이 곱다네.
흰 깃털 아래 무엇이 고운가? 흰 깃털 아래 붉은 깃털이 곱다네.
붉은 깃털 아래 무엇이 고운가? 붉은 깃털 아래 구슬 꿰미가 곱다네.
구슬 꿰미 아래 무엇이 고운가? 구슬 꿰미 아래 귀걸이가 곱다네.
귀걸이 아래 무엇이 고운가? 귀걸이 아래 조개껍데기가 곱다네.
조개껍데기 아래 무엇이 고운가? 조개껍데기 아래 물고기 뼈가 곱다네.
물고기 뼈 아래 무엇이 고운가? 물고기 뼈 아래 허리띠가 곱다네.
허리띠 아래 무엇이 고운가? 허리띠 동전 띠가 곱다네.
동전 띠 아래 무엇이 고운가? 동전 띠 구슬 띠가 곱다네.
구슬 띠 아래 무엇이 고운가? 구슬 띠 아래 앞치마가 곱다네.
앞치마 아래 무엇이 고운가? 앞치마 아래 각반이 곱다네.
각반 아래 무엇이 고운가? 각반 아래 장화가 곱다네.

이 노래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성의 장식을 차례로 읊으며, 그 미적 특징을 오롯이 나타낸다. 현지 민간 전설 중에는 영웅 ‘아니가사(阿尼嘎薩)’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복식은 그의 아내인 저우선무(晝什姆)의 차림새였다고 전해진다.

바이마 여성의 복식은 자연 숭배와 역사적 변천, 농경 생활의 양식을 고스란히 반영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미의식과 공예 기술, 문화적 독창성을 잘 보여준다.



17

བོད་དམག་སྤྱི་པའི་གོས་རྒྱུ།

바이마 남성의 복식





① ལྷ་དཀར།
사가

② ཀེ་ཅ།
깨차

③ སྒྲ་རགས།
허리띠

④ གཤེར་ལྗུག་གྲ།
셀쪽구

⑤ རྩ་ལྷག
담배주머니

⑥ ཡ་ཐོ།
티베트 부츠

바이마 티베트족은 주로 쓰촨성과 간쑤성의 접경지대에 거주하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토번 시기 변경을 지키던 병사의 후예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은 평균 해발고도 1,800m로, 아열대 몬순 기후와 산지 기후가 교차하며, 생활 방식은 반농반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바이마 남성 복식은 티베트족 복식의 전형적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특수한 지리적 환경과 생활 방식이 반영되어 선명한 지역적 특색을 띠고 있다.

전체 복식은 사가모, 상의, 장포, 허리띠, 바지, 각반, 신발 등의 의복과 동전 허리띠, 담배주머니 등의 장신구로 구성된다.



사가모

사가모는 남성 복식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다. 제작 방식은 여성용 사가모와 동일하나, 모자 꼭대기에 한두 개의 깃털만 꽂는다는 점인데, 그 길이는 약 한 뼘 정도이다. 이 깃털은 바이마 남성의 용맹함과 지혜로움, 정직함을 상징한다. 금계의 깃털을 한두 개 꽂거나, 금계 목뒤쪽의 가죽이 붙은 온전한 깃털과 길이가 긴 흰색 닭 깃털을 함께 꽂기도 한다. 원현 지역에서는 모자 몸체에 부채꽃과 닭발꽃 문양을 그려 넣고, 모자 하단에는 검은색과 분홍색 털실을 감아 장식한다. 이 모자는 사계절 내내 착용할 수 있으며, 착용 시 한쪽으로 기울여 쓰거나 바로 쓸 수 있다. 모자 끈은 대개 뒤통수에서 묶는다. 주자이거우 지역에는 챙이 위로 들려 있는 흰색 펠트 모자가 있는데, 형태가 티베트 공부(工布) 지역의 남성용 모자와 매우 유사하며 챙의 높이만 약간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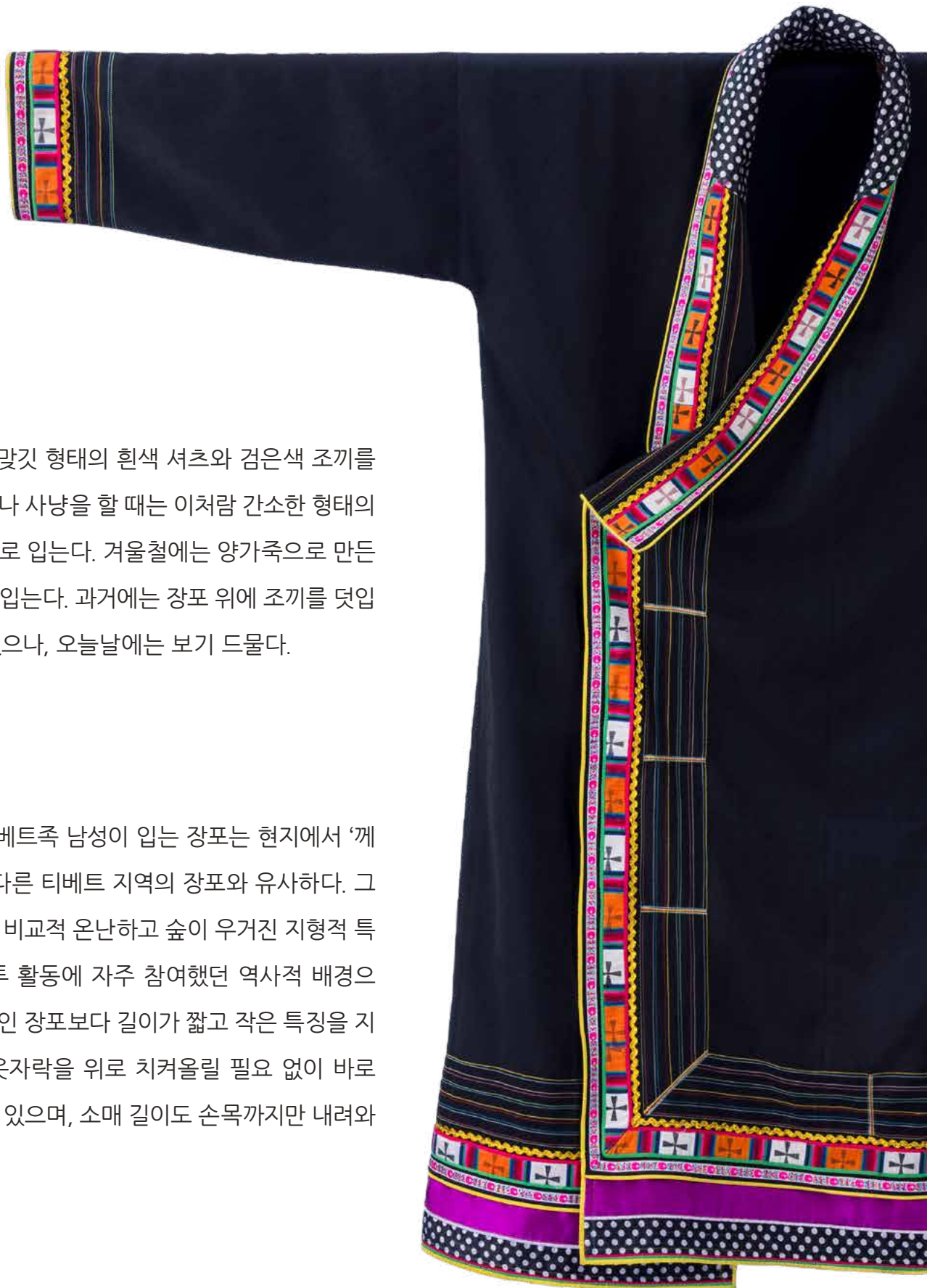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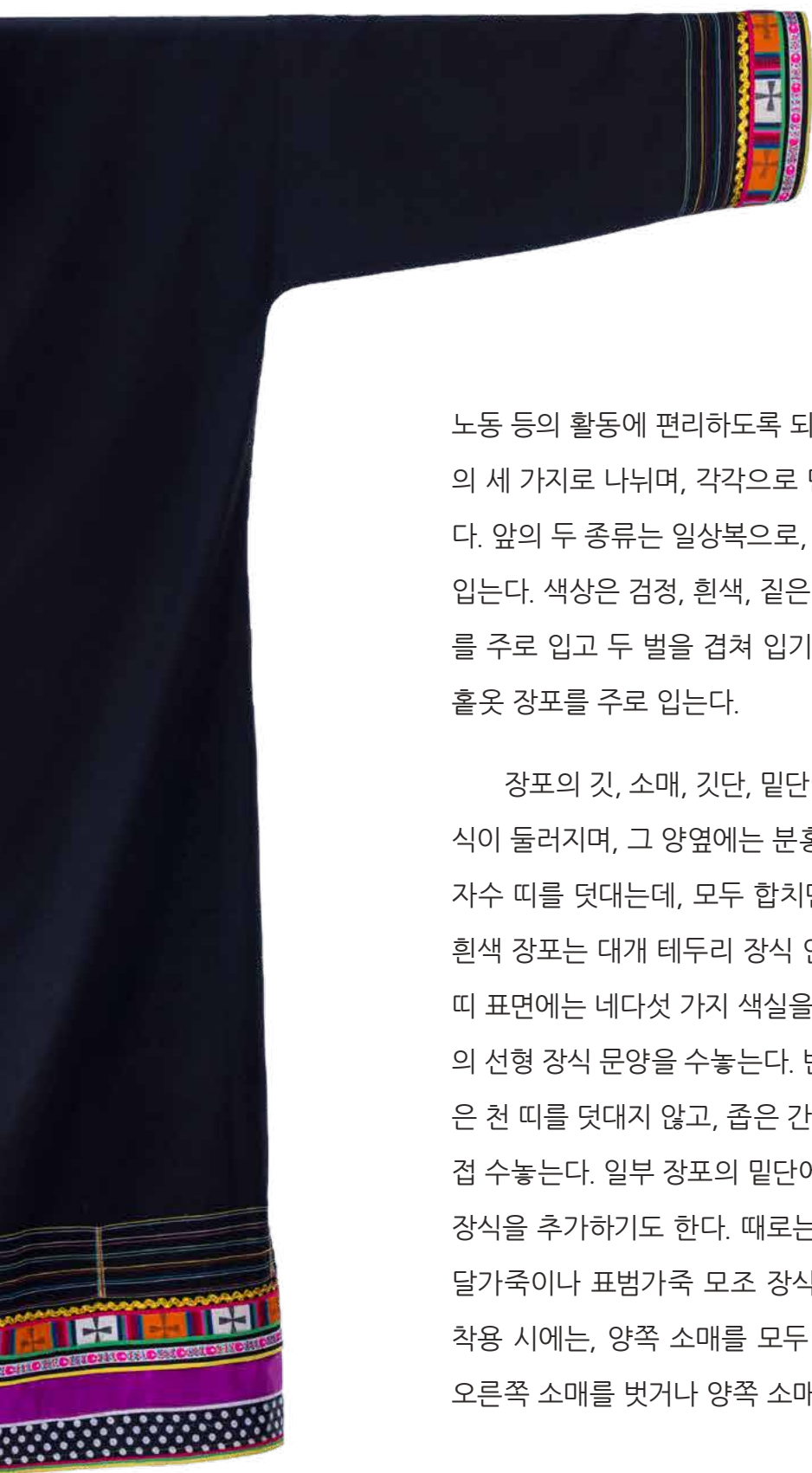
상의

상체에는 맞깃 형태의 흰색 셔츠와 검은색 조끼를 입는다. 노동이나 사냥을 할 때는 이처람 간소한 형태의 단색 상의를 주로 입는다. 겨울철에는 양가죽으로 만든 두꺼운 조끼를 입는다. 과거에는 장포 위에 조끼를 덧입는 습관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보기 드물다.

장포

바이마 티베트족 남성이 입는 장포는 현지에서 ‘께차’라 불리며, 다른 티베트 지역의 장포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 지역이 비교적 온난하고 숲이 우거진 지형적 특성과, 과거 전투 활동에 자주 참여했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일반적인 장포보다 길이가 짧고 작은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옷자락을 위로 치켜올릴 필요 없이 바로 허리띠를 맬 수 있으며, 소매 길이도 손목까지만 내려와





노동 등의 활동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소재는 주로 삼베, 모직, 일반 천의 세 가지로 나뉘며, 각각으로 만든 장포는 ‘소래’, ‘예래’, ‘부래’라고 부른다. 앞의 두 종류는 일상복으로, 마지막 것은 주로 명절 등 특별한 행사 때 입는다. 색상은 검정, 흰색, 짙은 남색 등이 있으며, 겨울에는 검은색 장포를 주로 입고 두 벌을 겹쳐 입기도 한다. 여름에는 흰색이나 짙은 남색의 홑옷 장포를 주로 입는다.

장포의 깃, 소매, 깃단, 밑단에는 폭 3~5cm의 화려한 꽃무늬 푸루 장식이 둘러지며, 그 양옆에는 분홍색, 녹색, 노란색의 가는 천 띠와 꽃무늬 자수 띠를 덧대는데, 모두 합치면 약 열 줄의 가장자리 장식선을 이룬다. 흰색 장포는 대개 테두리 장식 안쪽에 별도로 검은색 천 띠를 덧대며, 천 띠 표면에는 네다섯 가지 색실을 사용하여 촘촘한 박음질로 다섯 층 정도의 선형 장식 문양을 수놓는다. 반면 검은색이나 붉은색 장포는 별도의 검은 천 띠를 덧대지 않고, 좁은 간격으로 열 층 정도의 선형 장식 문양을 직접 수놓는다. 일부 장포의 밑단에는 분홍색과 흑백이 교차하는 문양의 테장식을 추가하기도 한다. 때로는 꽃무늬 푸루 대신, 인조 모피로 만든 수달가죽이나 표범가죽 모조 장식을 가장자리 장식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착용 시에는, 양쪽 소매를 모두 입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오른쪽 소매를 벗거나 양쪽 소매를 모두 벗어 허리에 묶는 풍습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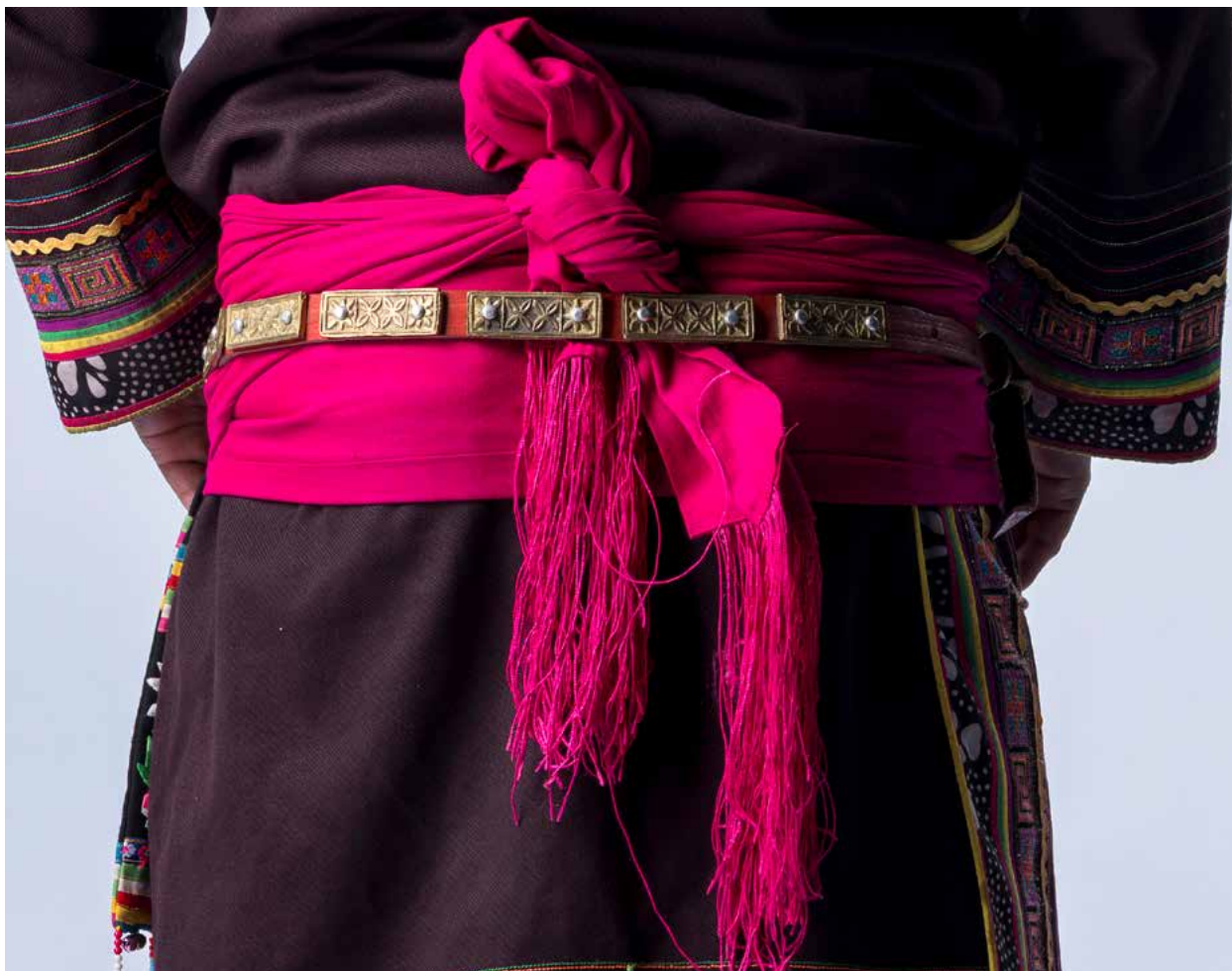


허리띠

이 지역의 허리띠는 폭이 비교적 넓고 양 끝에 술이 달려 있으며, 길이는 약 3.5m에 이른다. 색상은 붉은색, 검은색, 파란색, 회색 등이다. 과거에는 양모를 짜서 만들었으나, 오늘날에는 시장에서 구입한 천 등의 소재를 주로 사용하여 만든다. 착용 시에는 허리를 따라 두 바퀴를 감은 뒤 허리 뒤쪽에서 매듭을 짓고, 양 끝의 술은 몸 뒤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린다.

바지

과거에는 삼베나 면포 등으로 만든 넉넉한 폭의 바지를 입었으며, 형태는 일반 바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재는 대부분 시장에서 구입한 기성복 바지를 입는다.



각반과 신발

발에는 티베트식 장화, 수를 놓은 삼베 신발, 짚신 등을 신는다. 티베트식 장화의 경우, 밑창은 소가죽이나 멧돼지 가죽으로 만들고, 목 부분은 삼베, 펠트, 면포 등을 사용하며 그 표면에는 약 여섯 줄의 다른 색상의 가로 방향 천 띠로 장식한다. 겨울용 장화는 삼베나 펠트로 장화 목을 만들고 멧돼지 가죽을 밑창으로 사용하며, 여름용 장화는 면포로 장화 목을 만들고 소가죽을 밑창으로 사용한다. 수를 놓은 삼베 신발은, 밑창을 대마실로 촘촘하게 엮어 두껍고 견고하게 만들며, 신발 등 앞부분은 삼베 끈이나 면실로 짜고, 뒤꿈치 부분은 여러 겹의 면포로 만들어 꽃무늬 자수를 놓는다. 이러한 신발은 주로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 신는다. 짚신은 버드나무 껍질이나 도롱이풀 등을 엮어 만들며, 주로 여름철에 신는다. 짚신이나 자수 삼베 신발을 신을 때는 흰 천이나 양모로 짠 각반을 함께 착용하는데, 이는 숲속을 이동할 때 가시 등에 긁히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오늘날 티베트식 장화는 제례 의식인 ‘치거저우(池哥昼)’ 공연 시에만 착용하며, 자수 삼베 신발과 짚신은 거의 신지 않는다. 남성들은 주로 시장에서 구입한 가죽구두나 천 신발을 전통 복식과 함께 착용한다.



‘치거저우’를 공연할 때 남성들은 대형 가면을 쓰는데, 이 가면은 눈이 돌출되고 송곳니가 드러난 형태이며, 상단에는 금계의 깃털과 꿩 깃털, 종이로 만든 부채꼴 장식 등을 꽂는다. 상체에는 양가죽 옷이나 인조 모피 상의를 입고 털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하며, 어깨에는 여러 개의 큰 방울을 비스듬히 맨다. 발에는 지역 특유의 전통 장화를 신고, 오른손에는 야크 꼬리를, 왼손에는 쇠나 나무로 만든 긴 칼을 든다. 무용수들은 북과 징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데, 이 춤은 원시 종교에서 신을 부르며 악귀를 몰아내는 의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진다. 춤에는 ‘차오무(曹姆)’라 불리는 두 명의 여성 역할이 필요한데, 이 역시 남성이 여장을 하고 연기한다.





장신구

허리에는 현지에서 ‘셀쪽구’라 불리는 구리 허리 장식을 착용한다. ‘셀’은 현지 방언으로 ‘구리’를 의미한다. 이 허리 장식은 약 두 손가락 너비의 가죽을 바탕으로 그 위에 길이 약 다섯 손가락 정도의 직사각형 황동판을 일정 간격으로 배열하는데, 각 동판에는 네 송이의 꽃무늬를 조각한다. 허리 왼쪽에는 담배주머니를 차는데, 주머니 몸체는 가로 방향의 유색 천 띠와 자수로 장식되어 있으며 아래에는 세 줄의 구슬 술 장식이 달린다. 이는 주로 담뱃대와 담뱃잎을 보관하는데 사용된다. 허리 오른쪽에는 소가죽 주머니를 달아 철가루와 화약을 담았으나, 오늘날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 지역은 전통문화의 흔적이 짙게 남아 있으며, ‘아니가사’ 전설, ‘치거저의’ 제례 춤, ‘아리간저우(阿里甘侑)’ 등 수많은 신비로운 민속 문화 속에서 복식 문화는 영혼과도 같은 존재감을 드러낸다. 바이마 복식에서 현지 남성들의 전투, 수렵, 노동과 같은 생활상의 특징을 엿볼 수 있으며, 동시에 그들의 미적 감각과 가치관 또한 읽을 수 있다.



제 3 장

ལེར་སུག་དང་མདོ་གཤེས་ཀྱི་གོས་རྒྱུ།

얼쑤, 뒤쉬(尔苏, 多续)
티베트족 복식

18

ཨིར་སུག་བྱང་མིང་གྱི་གོས་རྒྱུ།

얼쑤(尔苏)
여성의 복식





① རོ་བོ་མོ་
보조

② རྩ་མོ་
창차

③ ལག་བསྟུ་
락두

④ རོ་ཅི་ཀ་
로찌카

⑤ རྩོམ་མོ་
멘찌

⑥ རྩ་མོ་
나알

⑦ རྩོམ་མོ་
리되

⑧ རོ་ཅི་ཀ་
코띠

⑨ ལག་བསྟུ་
락디

⑩ ལག་མོ་
랜꼬

⑪ རྩོམ་མོ་
레카찌

⑫ རོ་ཅི་
뽀뽀

⑬ ལག་
라로

⑭ རྩོམ་མོ་
헤까

⑮ རྩོ
차

⑯ རྩོ
자치

얼쑤(尔苏) 티베트족은 주로 쓰촨성(四川省) 량산주(凉山州)의 간뤄현(甘洛县), 웨시현(越西县), 멘닝현(冕宁县), 무리현(木里县)과 야안시(雅安市)의 한위안현(汉源县), 스멘현(石棉县) 등지에 흩어져 거주한다. 하천 분포로 보면 주로 다두허(大渡河), 안닝허(安宁河), 야룽강(雅砻江) 유역에 분포한다. 이 지역의 평균 해발고도는 약 2,200m로 아열대 몬순 기후를 기저로 하는 산지 기후에 속하며, 생활 방식은 반농반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현재 스스로를 ‘얼쑤’라 칭하지만, 과거에는 ‘부르쑤’라 자칭하였으며, 구전으로 전해지는 제사 의식에서의 찬가에서도 ‘부르쑤’라는 명칭이 사용된다. 이는 ‘흰색을 숭상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얼쑤인들은 흰색을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여기기 때문에, 복식 또한 흰색을 주조색으로 하고 청색과 녹색을 보조색으로 사용한다. 현재 얼쑤 티베트족 복식은 쓰촨성 성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전체 복식은 머릿수건, 셔츠, 코뿔, 조끼, 치마, 허리띠, 바지, 신발 등의 의복과 색 구슬 꿰미 장식, 은 술 장식, 락두, 로찌카, 귀걸이, 리되, 팔찌, 반지, 장식 주머니, 바늘집 등의 장신구로 구성된다.





머릿수건

과거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세 가닥 땡기로 땡고, 붉은색이나 녹색의 합사실을 섞어 땡아 등 뒤로 늘어뜨렸으며, 평소에는 오른쪽 귀 위쪽에 빗을 하나 꽂았다. 현지에서 ‘보조’라 불리는 머릿수건을 둘러야 할 경우에는 먼저 머리를 두 갈래의 세 가닥 땡기로 땡아 머리 위로 틀어 올린다. 그다음, 폭 약 네 손가락, 길이 8m가 넘는 머릿수건의 한쪽 끝을 정수리에 세로로 놓은 뒤, 머리 주위를 한 바퀴씩 촘촘하고 가지런하게 감아올린다. 다 감은 머릿수건의 두께는 약 다섯 손가락 정도에 이른다. 오늘날 여성들은 보통 머리를 뒤로 모아 묶으며, 전통적인 방식으로 머릿수건을 감는 대신 기성품으로 제작된 머릿수건을 바로 착용한다.



머릿수건의 재질은 과거에는 면포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시장에서 구입한 천을 주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젊은 여성은 흰색 머릿수건을, 연장자는 검은색 머릿수건을 착용한다. 혼례 시 신부는 예법에 따라 검은색 머릿수건을 두르고, 그 위에 붉은 털실로 격자무늬를 짜 넣어 장식한다. 때때로 연장자는 손수건을 직사각형으로 접어 머리 위에 얹은 뒤 스카프로 감아 고정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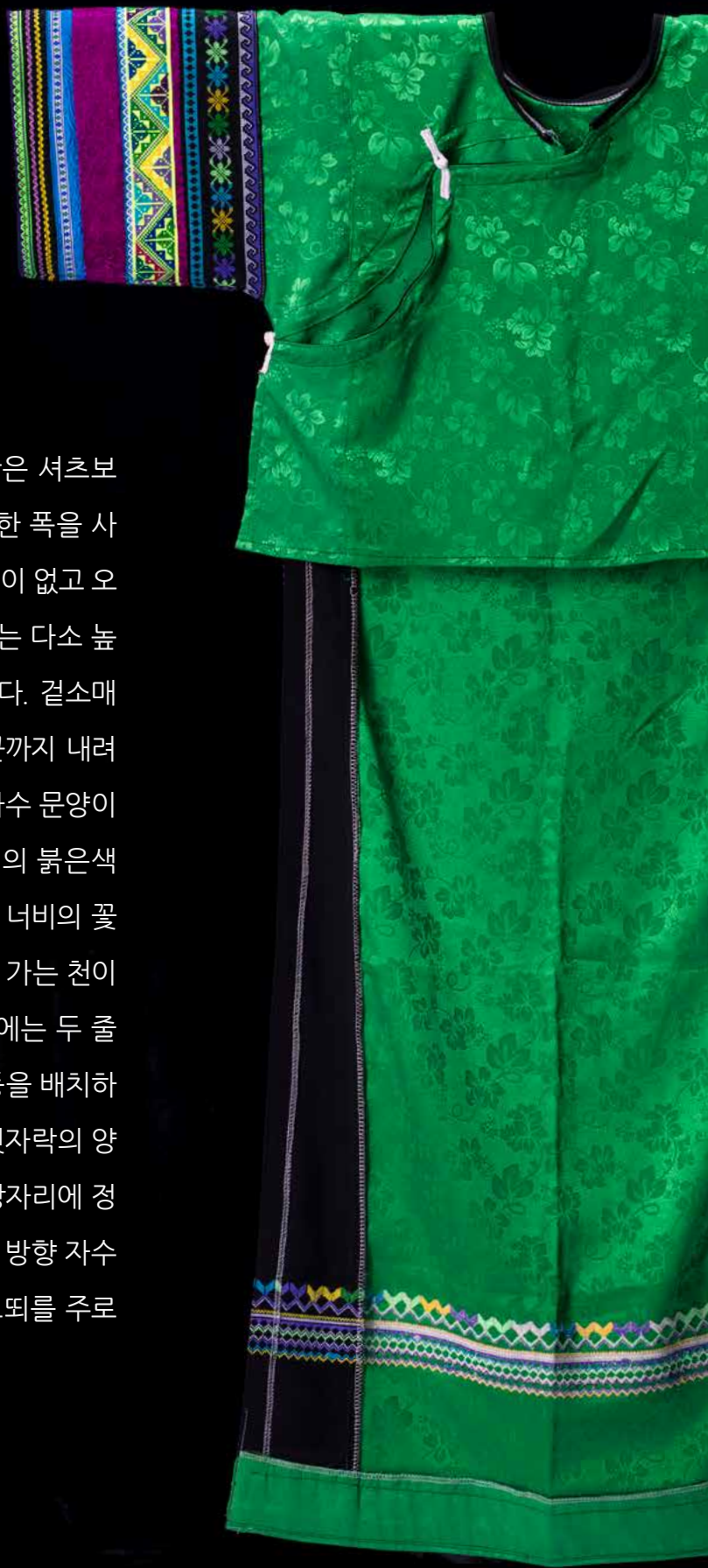
셔츠

상체 안쪽에는 현지에서 ‘뽀뽀’라 불리는 셔츠를 입는다. 이 셔츠는 깃이 없고 길이는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며, 양옆에 트임이 있다. 소매는 서로 다른 색상의 천을 이어 붙여 만들며 폭이 다소 좁은 형태이다. 소매 길이는 손목에 닿으며, 팔꿈치 부근과 소매 끝에는 정교한 자수 문양이 장식된다. 과거에는 삼베나 면포로 제작하였으나, 현재는 주로 비단으로 만든다.



코뽀

셔츠 위에는 ‘코뽀’를 착용한다. 앞자락의 밑단은 셔츠보다 약간 짧고 뒷자락은 약 세 뼘 너비의 온전한 천 한 폭을 사용하여 발목까지 자연스럽게 늘어뜨린다. 코뽀는 깃이 없고 오른쪽으로 여미는 구조를 취하며, 양옆의 트임 위치는 다소 높다. 소매는 짧고 넓으며 이중 소매 구조로 되어 있다. 겹소매는 별도의 천을 덧대는 방식으로 늘려 팔꿈치 부근까지 내려오는데, 이렇게 해 안쪽 셔츠 소매에 놓인 정교한 자수 문양이 드러나도록 한다. 겹소매 끝에는 약 세 손가락 너비의 붉은색 또는 분홍색 천 띠를 덧대고, 그 위에 약 두 손가락 너비의 꽃과 잎 문양을 자수로 장식한다. 여기에 자수를 놓은 가는 천이나 물결무늬 색실 장식 등을 더한다. 안쪽 소매 끝에는 두 줄의 물결무늬 색띠 사이에 자수 장식의 가는 천 띠 등을 배치하는데, 세부 구성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진다. 뒷자락의 양측 가장자리에는 검은 천으로 테를 두르고, 그 가장자리에 정교한 자수를 더한다. 밑단에는 위아래 두 단의 가로 방향 자수 장식띠가 놓인다. 색상은 젊은 여성의 경우 흰색 코뽀를 주로 입고, 연장자는 파란색이나 녹색을 선호한다.







조끼

현지에서 ‘레카찌’라 불리는 조끼는 소매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셔츠와 유사하다. 우임 구조에 길이는 허리까지 내려오고, 양옆에 트임이 있다. 깃과 깃단에는 정교한 테두리 장식을 두르는데, 바깥에서 안쪽으로 다음과 같은 장식이 이어진다. 먼저, 약 네 손가락 너비의 검은 천 띠, 이어 약 한 손가락 너비의 자수 천 띠 두 줄, 물결무늬 색띠 한 줄, 그리고 약 세 손가락 너비의 자수 천 띠가 차례로 배치된다. 마지막 자수 띠에는 연산문을 수놓고, 그 안에 다양한 꽃과 잎 문양을 십여 가지 색실로 정교하게 수놓는다. 얼쑤인들 사이에는 “자수가 없으면 옷이라 할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자수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끼의 색상은 주로 붉은색, 검은색, 녹색, 분홍색을 사용한다. 과거에는 모직으로 만든 주름 잡힌 솔이나 야크 털로 짠 조끼, 산양가죽 조끼 등을 입기도 했으나, 현재는 보기 드물다.



상체에 입는 뽀뽀, 코뿔, 레카찌 세 가지를 합쳐 '상의 삼종 세트'라 일컫는다. 오늘날에는 착용의 편의를 위해 세 벌을 하나로 이어 만들면서 외관상으로는 세 벌을 겹쳐 입은 듯한 형태도 나타난다.







치마

치마는 현지에서 ‘차’라 불리는 반신 치마이다. 무릎 윗부분은 단색 천으로 제작되며, 무릎 아랫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의 천 띠를 위아래로 이어 붙이거나 격자 모양으로 교차하여 구성하고 여기에 많은 주름을 잡는다. 이 치마는 연령에 관계없이 주로 혼례 등 성대한 행사가 있을 때 착용하며, 평상시에는 입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젊은 여성은 색채가 선명한 치마를, 연장자는 비교적 소박하고 단정한 색상의 치마를 입는다.





허리띠

허리에는 ‘지짜’라 불리는 허리띠를 두른다. 이는 비단실이나 양털실로 짜며, 양 끝에 긴 술이 달려 있다. 착용 시 허리 뒤 중앙에서 매듭을 짓고, 술은 자연스럽게 등 뒤로 늘어뜨린다. 색상의 경우 젊은 여성은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 등의 색실을 가로 방향으로 엮어 짜는 반면, 연장자는 보라색과 녹색 계열을 주로 사용한다. 매듭 부분에는 흰색 또는 파란색의 자수 장식 띠를 덧대어, 술과 함께 등 뒤로 늘어뜨린다.

허리 앞쪽에는 ‘되되카따’라 불리는 앞치마를 착용하는데, 길이는 무릎까지 내려오며 주로 흰색 바탕에 양옆을 검은 천으로 둘러 장식한다. 밑단에는 위아래 두 층의 자수 문양이 더해진다. 이 앞치마는 주로 격식을 갖추는 자리에 착용하며, 등장한 지는 수십 년밖에 되지 않았다.





바지와 신발

바지는 현지에서 ‘자치’라 불리며, 통이 넓은 형태를 가진다. 바짓단에는 위아래 두 층의 자수 장식선이 더해지며, 색상은 주로 검은색이다.

과거에는 짚신이나 자수를 놓은 천 신발 등을 신었으나, 오늘날에는 대부분 시장에서 구입한 천 신발이나 가죽신을 신는다.





장신구

얼쑤 여성의 장신구는 정교하고 아름답다. 머릿수건에는 현지에서 ‘멘짚’라 불리는 색색의 구슬 꿰미를 장식하는데, 구슬 줄의 양끝은 좌우 어깨까지 늘어트려 아치형을 그리게 하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여러 줄을 달기도 한다. 머릿수건 앞쪽 양 옆에는 ‘창차’라 불리는 은 술 장식을 매다는데, 이는 여덟 줄 내외의 가는 은사슬로 구성되며 길이는 약 네 손가락 너비로 술 장식 형태를 이룬다. 머릿수건 아래의 머리 경계 부위에는 ‘락두’를 착용하는



데, 이는 서로 다른 색상의 구슬을 연결한 장신구로, 오른쪽 끝에는 뼈로 된 장식이 달려 있으며 그 끝을 머릿수건 틈에 꽂아 고정한다. 락두 아래에는 ‘로찌카’를 나란히 착용하는데, 이는 검은 천 바탕에 7~11개의 작은 은방울을 배열하여 만든 장식이다. 은방울의 개수는 반드시 홀수여야 한다. 과거에는 소뿔로 장식했으나 후에 은방울로 바뀌었다고 한다.



귀걸이는 현지에서 ‘나알’이라 불리며, 과거에는 주로 두 가지 양식이 있었다. 하나는 길이 약 한 뼘 정도의 구슬 꿰미 귀걸이로 끝에는 둥근 옥이나 물고기 뼈 장식이 달린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팔찌만큼 커다란 은제 귀걸이였다. 오늘날에는 여러 개의 술 장식이 달린 은 귀걸이를 주로 착용한다.

목에는 ‘리되’라 불리는 목 장식을 착용하는데, 이는 주로 검은색이나 파란색 천을 바탕으로 그 위에 은방울이나 은제 꽃 장식을 배열한다. 조끼의 깃단추 부분에는 여러 색상의 구슬을 꿰 장신구를 매다는데 그 끝에는 이쑤시개와 귀이개를 담는 작은 은제 상자와 노루 이빨이 달려 있어 배꼽 부근까지 내려온다. 구슬 꿰미와 함께 나무로 만든 악기 구현(口弦)도 함께 늘어뜨린다. 손목에는 ‘락리’라 불리는 은 팔찌를 차고, 손가락에는 ‘랜코’이라 불리는 은 반지를 낀다.



허리 오른쪽에는 ‘라로’라 불리는 삼각형 주머니를 매는데, 표면에는 정교한 자수가 놓이고 아래에는 다양한 색상의 천 술이 달린다. 과거에는 은화나 담뱃대, 담뱃잎 등을 넣는 용도였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장식용으로 쓰인다. 또한 허리 오른쪽에는 ‘헤까’라 불리는 사각형 바늘집도 함께 착용한다.

바지, 앞치마, 주머니는 함께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하의 삼중 세트’라 부르기도 한다.



과거에는 신부가 시집온 다음 날 아침, 물을 길어와 항아리에 붓고, 입고 있던 셔츠를 벗어 침실 문에 걸어두었는데, 이는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의식이었다. 이 밖에도 복식과 관련된 금기 사항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 여성의 옷은 함부로 널어 말려서는 안 되며, 지나치게 얇아 몸이 비치는 옷을 입는 것도 금기시된다.

얼쑤 자수는 복식 제작 공예의 핵심 요소이다. 의복의 깃, 깃단, 소매 끝, 허리띠, 바짓단 등에는 모두 자수가 놓인다. 이러한 자수는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대대로 전승되어 전통의 멋이 깊고 색상 조화가 뛰어나며 문양이 풍부한 특징을 지닌다. 이를 통해 얼쑤 여성의 독보적인 자수 솜씨와 문화적 소양을 잘 드러낸다.

얼쑤인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언어, 신앙, 생활 방식 등을 아우르는 독자적인 문화 체계를 형성해 왔다. 주요 명절로는 음력 3월 1일의 활쏘기 축제인 ‘취니워(措尼沃)’, 6월 16일의 햇불 축제인 ‘지(吉)’, 8월 3일의 산을 돌며 닭을 바치는 축제인 ‘라가부쯔(拉嘎布籽)’가 있다. 이와 같은 전통 명절과 각종 의례, 공연 활동에서 여성들은 독특한 재단과 공예 기법이 반영된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얼쑤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

ཨིར་སུག་སྐྱེས་པའི་གོས་རྒྱུ།

얼쑤(尔苏) 남성의
복식





① 보저
보조

② 나차야로
나차야로

③ 멘찌
멘찌

④ 뽀뽀
뽀뽀

⑤ 레카찌
레카찌

⑥ 왓와
왓와

⑦ 자치
자치

⑧ 속이 빈 허리띠
속이 빈 허리띠

얼쑤 남성 복식은 산간 지역 주민의 생활 지혜와 문화적 가치를 투영하고 있으며, 뚜렷한 지역적 특성을 보인다.

전체 복식은 머릿수건, 셔츠, 조끼, 허리띠, 바지, 신발 등의 의복과 귀걸이, 목걸이 등의 장신구로 구성된다.



머릿수건

과거 얼썬 남성은 장발을 길러 세 가닥으로 굵게 땋은 뒤, 붉은색 비단실을 섞어 함께 엮은 뒤 머리 위에 감아올렸다. 그 위에 길이 8미터가 넘는 흰 천을 세로로 접어 머리에 감았는데, 단순히 평평하게 두르는 것이 아니라 교차하여 쌓아 올림으로써 이마 부분에서 ‘인(人)’자 모양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오늘날에는 길이 5미터 가량, 폭 약 세 손가락 정도 되는 흰 천을 감거나, 원형 스펀지를 내부에 넣고 겉을 흰 천으로 감싼 간편한 기성품 머릿수건을 직접 착용한다. 일부는 머릿수건 한쪽 끝에 꽃무늬를 수놓아 머리의 좌우 한쪽으로 다섯 손가락 길이만큼 늘어뜨리는데, 이 늘어뜨린 부분을 현지에서는 ‘나차야로’라 부른다. 보통 50세 이상의 장년층은 검은색 머릿수건을, 젊은 층은 흰색 머릿수건을 사용한다.



과거에는 삼베나 면포로 제작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시장에서 구입한 흰 천을 주로 사용한다. 이 머릿수건은 보온 기능뿐만 아니라, 울창한 숲을 지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고 전해진다.





셔츠

셔츠는 현지에서 ‘뽀뽀’라 불린다. 과거에는 주로 직접 짠 삼베나 면포 등 두껍고 거친 질감의 천으로 제작했으나, 현재는 비단 등 다양한 직물을 사용한다. 형태는 옷깃이 마주 보는 맞깃형과 오른쪽으로 여미는 우임형 두 가지가 있다.

깃, 깃단, 소매 끝에는 정교한 자수가 장식된다. 깃 둘레에는 다섯 송이의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지며, 깃 가장자리에서 세 손가락 정도 떨어진 지점에는 다양한 색실로 톱니 모양의 교차무늬를 두 줄 수놓고, 그 사이에 소라, 꽃, 잎사귀 등의 연속 문양을 배치한다. 맞깃의 가장자리에는 두 가지 색실로 수놓은 톱니 모양 교차 무

늑과 약 네 가지 색실로 수놓은 기하학 무늬가 차례로 장식된다. 소매 끝에는 기하학 무늬, 톱니 교차 무늬, 소라 무늬, 회자문, 연산문 등이 한 손가락 간격으로 수놓는다. 오늘날에는 아플리케 기법이 널리 사용되어, 깃 가장자리에 앞무늬와 기하학 무늬가 수놓인 천을 덧대며 그 주변에는 따로 자수를 놓지 않는다. 맞깃 가장자리와 소매 끝 역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잎사귀, 꽃, 기하학 무늬 등을 수놓은 천을 덧대어 장식한다.



조끼

셔츠 위에는 현지에서 ‘레카찌’라 불리는 맞깃 형태의 조끼를 입는다. 겉감은 검은색 천 등을, 안감은 화려한 무늬의 천을 사용한다. 깃은 비교적 짧고, 목둘레에는 파란색 천으로 테를 두른다. 파란색 테 바깥쪽과 맞깃 가장자리에는 약 세 손가락 너비의 테 장식을 다는데, 여기에는 굵기가 다른 자수 천과 물결무늬 금사 등을 차례로 배열한다. 산에 올라 노동을 하거나 짐을 나를 때에는 세 살 된 솜소나 솜양의 가죽으로 만든 조끼를 자주 입는다. 일상에서는 양모나 우모 직물로 짠 망토를 입기도 하는데, 이를 현지에서는 ‘알와’라 부르며 색상은 주로 검은색과 흰색이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들이 처음 이 지역에 정착했을 때는 ‘리파’라 불리는 장포를 입었는데, 이는 깃이 서 있고 가장자리에 자수가 장식된 형태로 티베트 귀족 남성의 장포와 유사하였다. 때로는 이 장포에 망토를 함께 갖춰 입기도 했으나, 오늘날에는 보기 드물어졌다.



허리띠

과거에는 허리에 푸른 비단으로 만든 속이 빈 형태의 허리띠를 맸다. 양끝은 비스듬히 재단하고, 그 가장자리에 기하학 문양을 수놓았으며, 문양 안쪽에는 검은색 삼각형 천 조각을 덧대었다. 또는 털실로 짠 허리띠를 매기도 했는데, 색상은 주로 붉은색과 노란색이 많았다. 두 종류 허리띠 모두 허리 앞쪽에서 매듭을 짓고, 양 끝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렸다. 특히 비단 허리띠는 내부에 물건을 넣을 수 있으며, 양 끝을 묶어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도 있어 실용성이 높았다. 오늘날에는 주로 자홍색 비단으로 속이 빈 형태의 허리띠를 만들며, 한쪽 끝을 비스듬히 재단하고 가장자리에 아플리케 기법으로 기하학 문양을 장식하여 종아리까지 내려오게 한다. 이와 함께 털실로 만든 납작한 직조 띠를 함께 착용하는데, 그 끝에는 긴 술이 달려 있다. 남성들은 이 두 가지를 하나의 끈에 함께 꿰어 허리에 매며, 노동의 편의를 위해 주로 오른쪽 허벅지 쪽으로 늘어뜨린다.





바지

바지는 현지에서 ‘자치’라 불리며, 대개 파란색의 넓은 통바지 형태이다. 바짓단에는 아플리케 기법으로 약 세 손가락 너비의 천 테를 두 줄 덧대고, 그 위에 톱니 문양, 기하학 문양, 꽃무늬 등을 차례로 수놓는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에는 바지통이 매우 넓고 많은 주름을 잡아 외관이 치마와 유사했다고 한다. 바짓단에는 위아래로 두 줄의 톱니 문양 장식이 있었으며, 그 사이에는 해, 달, 산봉우리, 영기, 도마(朵瑪) 등의 문양을 수놓았다. 이러한 문양은 현지의 풍수 및 천문 관측과 관련이 있으나, 이 오래된 상징들의 깊은 의미를 아는 사람이 지금은 거의 없다.



신발

과거에는 주로 짚신이나 천 신발을 신었으나, 오늘날에는 시장에서 구입한 천 신발이나 가죽구두를 주로 신는다. 울창한 숲에 들어갈 때는 종아리에 모직물로 만든 각반을 감아 보호하기도 한다.

장신구

왼쪽 귀에는 지름 약 5cm의 물고기 뼈 귀걸이를 착용한다. 여기에는 현지에서 ‘멘죄’라 불리는 구슬 장식이 2~6줄 달리는데, 주로 마노나 각종 구슬을 꿰어 만든 것이다. 이 구슬 장식의 끝부분은 머릿수건의 틈새에 고정한다. 오늘날에는 일부 고령자를 제외하고 젊은 세대에서도 귀걸이를 하는 모습은 보기 드물다. 목에는 ‘코로’라 불리는 목걸이를 거는데, 이는 멧돼지 송곳니 한 쌍과 여러 색의 구슬을 꿰어 만든 것으로, 액운을 쫓고 몸을 보호하는 효험이 있다고 전해진다.

이 지역 복식의 자수 방식은 주로 십자수 바탕천 위에 색실로 꽃, 잎사귀, 기하학 문양 등을 수놓는 것이며, 전체적으로 톱니바귀형, 마름모형, 삼각형, 평행사변형 등의 시각적 효과를 낸다.

과거 얼썬인들은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길러,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로 실을 잣고 옷감을 짰다. 한 집안의 부유함이나 여성의 근면성은 뽕나무 재배 규모, 양잠 규모, 그리고 직물 생산량 등에 의해 평가되었다.

복식 문화와 관련된 풍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과거 혼례 시 신랑 측은 신부에게 반드시 펠트 망토 한 벌을 선물해야 했으며, 평소에는 옷을 아무 곳이나 내걸어 말려서는 안 되었고, 특히 달빛 아래 옷을 말리는 것을 금기시하였다.

이와 같은 복식은 간편하면서도 아름다우며, 현지인의 오랜 생활 경험이 축적된 소중한 결정체이다. 이는 횡단산맥의 자연환경과 생활 조건에 적응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복식은 혼례 등 민속 행사에서 널리 착용되고 있다.



20

མདོ་གཤེས་བྱད་མེད་ཀྱི་གོས་རྒྱ།

뒤쉬(多续) 여성의
복식





① **머릿수건**
머릿수건

② **귀걸이**
귀걸이

③ **조끼**
조끼

④ **상의**
상의

⑤ **앞치마**
앞치마

뒤쉬(多续) 티베트족은 청장고원 동부인 쓰촨성 량산주 멘닝현 안닝허 유역에 흩어져 거주하며, 주로 후이안(惠安), 하하(哈哈) 등의 향진(乡镇)에 분포한다. 전체 인구는 약 2,500명이다. 일부 뒤쉬인들은 스스로를 얼쑤 티베트족이라 여긴다. 얼쑤어(語)의 세 방언권 중 뒤쉬어는 중부 방언권에 속한다. 이 지역은 평균 해발고도 약 1,700m로 아열대 몬순 기후에 속하며, 생활 방식은 농업이 주를 이룬다.

지세가 낮고 기후가 무덥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은 이에 적응하기 위해 비교적 가벼운 옷차림을 한다. 전체 복식은 따따짜튀, 머릿수건, 상의, 조끼, 앞치마 등의 의복과 귀걸이, 팔찌 등의 장신구로 구성된다.





따따짜튀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좌우로 나누어 두 갈래의 세 가닥 땡은머리로 만든 뒤, 현지에서 ‘따따짜튀’라 불리는 머리 장식을 착용한다. 따따짜튀는 이 지역 여성에게 필수적인 특징적 머리 장식으로, 그 연결 부위는 ‘알마’라 한다. 알마는 문양이 있는 천을 겹겹이 포개어 직사각형으로 꿰매어 만든 것으로, 머리 크기에 맞추어 길이를 조절한다. 알마의 양 끝에는 각각 큰 검은색 털실 다발이 달려 있는데, 이 털실은 땡을 수도 있고 땡지 않을 수도 있으며, 털실의 약 3분의 1 지점에서 꼬아 붉은색 털실로 감싸고, 나머지 부분은 느슨하게 꼬아 둔다. 착용 시에는 알마를 이마에 놓고 이마에서 뒤통수까지 이어지게 늘어트린 후, 검은 털실을 땡은 머리와 함께 교차하여 머리

에 감아올린 뒤 양 끝을 머리카락 사이에 끼워 넣는다. 털실과 알마를 합친 전체 길이는 약 0.9m이며, 착용 후 따따짜튀의 지름은 약 16cm 정도가 된다. 과거에는 알마 위에 작은 은방울 장식을 몇 개 달았으나, 오늘날에는 보기 드물다. 따따짜튀는 반드시 검은색이어야 하며, 과거에는 검은 양모를 사용하거나 흰 양모를 호두나무 뿌리로 검게 염색하여 만들었다.



머릿수건

머릿수건은 길이 약 4m, 너비 약 46cm이다. 착용할 때에는 먼저 머리 정수리를 덮은 뒤 양쪽 끝을 세로로 접어 교차시키며 머리 위에 감아올려 타타짜튀를 완전히 감싼다. 색상은 주로 검은색과 흰색 두 가지이다. 전통적으로 혼례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머릿수건을 감아야 했으며, 일상생활에서 연장자는 검은색을, 젊은 층은 흰색을 착용하였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구분이 엄격하지 않으며 흰색 머릿수건은 거의 보기 어렵다.

기혼 여성은 반드시 타타짜튀와 머릿수건을 착용해야 하나, 미혼 여성은 착용할 필요가 없다. 딸이 시집갈 때 어머니가 타타짜튀를 준비해 주어야 하며, 어머니가 없을 경우 시어머니가 대신 마련한다. 따라서 타타짜튀를 머리에 감는 것은 여성이 성인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일 뿐만 아니라, 혼인 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 머리장식이다.



상의

상의는 주로 푸른색 천 등으로 만든 길이가 긴 옷을 입는다. 형태는 오른쪽으로 여미는 사선 여밈 구조이며, 깃단을 따라 목단추 1개, 중간단추 1개, 겨드랑이 단추 3개, 총 5개의 단추가 달려 있다. 밑단 왼쪽에는 짧은 트임이 있으며, 앞섶의 내깃은 겉깃보다 약간 작게 재단한다.



조끼

상의 위에는 주로 검은색 천으로 만든 조끼를 덧입는다. 조끼 역시 오른쪽으로 여미는 구조이며, 깃단을 따라 목단추 1개, 중간단추 2개, 겨드랑이단추 2개가 달린다. 밑단 양쪽에는 짧은 트임이 있다.



앞치마

여성들은 대개 시중에서 구입한 통이 넓은 바지를 입으며, 세부 양식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한다. 바지 겉에는 무릎 길이의 폭이 넓은 앞치마를 두른다. 앞치마는 검은 천을 바탕으로 중앙에 큰 꽃무늬를 수놓고, 그 주변에 나뭇잎과 나비 등의 장식 문양을 배치한다. 상단 양 모서리에는 속이 빈 흰 천 끈을 달고, 그 위에 문양을 놓으며 끝 부분은 화살촉 모양으로 재단한다. 착용 시에는 끈의 양 끝을 묶지 않고 허리를 평평하게 감은 뒤 앞쪽에서 핀으로 고정한다. 과거에는 장식이 없는 검은 천으로 만든 폭이 좁은 앞치마를 사용하였다.



신발

과거에는 짚신 등을 신었으나, 오늘날에는 시장에서 구입한 천 신발을 주로 신는다.

장신구

다른 티베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귀에는 은으로 된 원형 귀걸이를 착용하고, 손목에는 은팔찌를 찬다.

이와 같은 전통 복식은 현지의 기후 환경에 적응한 결과로, 전체적으로 간결하고 장신구는 비교적 적어 지역 고유의 미의식과 생활 관습을 반영한다. 다민족이 공존하는 환경 속에서도 뒤쉬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특히 일부 연장자들은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전통 복식을 소중히 여기며 꾸준히 착용하고 있다.



མིང་ཚིག་ཤུན་སྒྲུབ་རེ་བུ་མིག

용어집

ཀླུ་ལོ་ལོ་སྒྲུབ་ཀླུ་

제1장. 자룽(嘉绒) 티베트족 복식

01

སྒོ་སྒྲུབ་བུད་མེད་ཀྱི་གོས་ཀླུ་

단바 중루(丹巴中路) 여성의 복식

	བོད་ཡིག	ལ་ཐིན་ཡིག	མི་ཐེས་དན།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སོ་ཕོག	so phog	소폭
2	པང་འདུན་འདྲོ།	pang 'dun 'do	뽕된도
3	མཚུབ་ཀོར།	mdzub kor	줍코
4	མགོ་ཀོར།	mgo kor	고코
5	བྱུར་ཁོབ།	byur khob	쥬콥
6	དཀྱིལ་ཐིག	dkyil thig	길틱
7	པུ་ལེ།	pu we	푸웨
8	ཀིར་ཀིར།	kir kir	끼끼
9	ཧེ་ཀྲི།	he hri	헤리
10	སྟོད་འབོག	stod 'bog	스퇴복
11	སྐ་མོ།	sma hro	마로
12	རྒྱལ་ལམ།	rgyal lham	겔람
13	ཁ་གཙར་ཁབ་ཤུབ་སྒྲུབ།	kha gzar khab shubs	카자캡슈

02

བཀ་སྒྲིང་བུད་མེད་ཀྱི་གོས་རྒྱུ།

단바 바디(丹巴巴底) 여성의 복식

	བོད་ཡིག།	ལ་ཐིན་ཡིག།	སི་ཁྲུས་དན།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དར་ཏི།	dar ti	다르티
2	ད་སྒྲེ།	da sne	다네
3	ཏུན་ཐུ་ཙོ།	tun thu co	똥투조
4	སུམ་ལག།	sum lag	숨락
5	སྒྲོད་འབོག།	stod 'bog	스뽀복
6	ཀུམ་ཡོགས།	krum yogs	꿈옥
7	ལྷན་པོ།	lhan po	랜포
8	ཏེ་སུ་ཐགས།	te su thags	떼수탁
9	ཏ་ཅབ།	ta cab	따참
10	དུ་བེད།	du bed	두베
11	གཟན་འབག།	gzan 'bag	샌박

03

མར་སྐམ་སྐྱེས་མའི་གོས་རྒྱན།

진찬 마나이(金川马奈) 여성의 복식

	བོད་ཡིག།	ལ་ཐེན་ཡི་གེ།	སི་ཕུས་དན།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མགོ་ཅས།	mgo cas	고체
2	ཕན་ཕན།	phan phan	팬 팬

འིག་མེར་གྱི་སྒྲིམ་མའི་གོས་རྒྱན།

진찬 러우(金川勒乌) 여성의 복식

	བོད་ཡིག	ལ་ཐིན་ཡིག	སི་ཐེས་དན།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ཐུ་རིས།	thu ris	투리
2	དུམ་དུ་འབག	dum da du 'bag	뒸다두박
3	ཀ་ཀོ་ཙི།	ka ko tsi	카코찌
4	སྤ་ཕོག	sta phog	따폭
5	མོ་པ།	mo pA	모파
6	སྤ་འགག	sta 'gag	따각
7	དར་བེ།	dar be	다베
8	ཧྲོང་ལོ་དྲུང་པེ།	hrong lo drung pe	홍로중페
9	ཕུ་ངེ་སུ་ཐགས།	pu nge su thags	푸게수탁
10	སྤེག་སར།	steg sar	뻬사

05

འབར་ཁམས་བུད་མེད་ཀྱི་གོས་རྒྱན།

마얼캉(马尔康) 여성의 복식

	བོད་ཡིག	ལ་ཐེན་ཡིག	སི་ཁྲེས་དན།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ཏ་སྟིང་མདོ། ཏ་སྟིང་ཐགས།	ta snying mdota snying thags	따닝탁
2	དར་རྟི། དར་སྟ།	dar tidar sta	다르티 / 다르파
3	དུམ་ཏོ། ད་ལོ་པ།	dum toda lgo pa	덤또 / 다고파
4	ཏོམ་འཛོས།	tom 'dzos	뚝조
5	ཤན་ཅི།	shan tsi	센찌
6	ལིང་ཀ་ཅི། ལག་སྟེ།	ling ka tsilag ske	랜카찌 / 락께
7	ཤ་སྟོང་ལུ་ལེན།	sha stodrngul len	샤똥 / 응굴렌
8	སྟོད།	stod	똥
9	ཐགས་སྟེ། ཏེ་སུ་ཐགས། འཇའ་ཅི།	thags stsate su thags'ja' ri	탁짜/떼수탁/자리
10	དུམ་པ། དུམ་པེ།	drum padrum pe	덤파 / 덤페
11	ཀུམ་པ་སྟུ་རགས།	krum pa spu rags	꿈파 뿌락
12	གོ་ལ་ཐ།	g+hol b+ha	골바
13	ར་སམ།	ra snam	라남
14	འབོག	'bog	복
15	རྒྱུད་ཧམ།	rgyud ham	규함
16	གོ་དཀར།	go dkar	고까

06

འབར་ཁམས་སྐྱེས་པའི་གོས་རྒྱ།

마얼캉(马尔康) 남성의 복식

	བོད་ཡིག	ལ་ཟེན་ཡི་གེ	སི་ཁྲེས་དན།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ལོང་ཤག	long shag	롱 삭
2	དུ་ཤུ་ལོ	du shu lco	두슈조
3	ཕུ་སྤུང་།	phu sdung	푸동
4	དུག་རྩ་	dug rtsa	독짜
5	སྐྱག་ཤར་རྩ་	stag shar rtsa	딱샤짜
6	པ་ལག་རྩ་	pa lag rtsa	파락짜
7	རྒྱལ་རོང་འབིག་རྩ་	rgyal rong 'big rtsa	겔롱 빅짜

ཁོ་རྩེ་རྩུང་གི་སྒྲིམ་མའི་གོས་རྩུམ།

대헤이수이(大黑水) 여성의 복식

	བོད་ཡིག	ལ་ཟིན་ཡིག	སྤྲེལ་དན།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ཡེ།	yer	엘
2	ཀུ་ར་དལ། ལ་ལ།	ku rdal/wal	꾸달/왈
3	ཡེ་ས།	ye sa	예사
4	ཤོབ་ཟླ། ཀུ་ར་ཏེ་རྩ།	shob zi/ku rde b+ha	솥찌/꾸데바
5	ཅིག་ལོ་སུ།	cig lgo su	칙괴
6	འགག་ཤིས།	gag shis	각시
7	གོ་ར་ལོ།	gor lo	글로
8	ཀུ་ཤ།	ku sha	거샤
9	ལ་ཀུ་ལ་ད་པ།	la ku lad pa	라꾸래파
10	མོ་ཡོག་ལ་ད་པ།	mo yog lad pa	모옥래파
11	རྩུ་དགོ། རྩུ་ཅ།	rgyu dge/rdzu za	규게 / 주자
12	སྐད་གོས།	smad gos	매괴
13	ཀྲོག་ཀྲོ་རྩ།	krog kro b+ha	쪽조바
14	ཤ།	shal	셜
15	ཀྲིག་ལྷི་སེ།	hrig lji se	락쭈
16	ཁུ།	hur	홀
17	ཡེན་ཀུ་ཅི།	yen kwa tsi	옌콰찌
18	སྒོ་རྒོ།	sgro rgo	드로고
19	ལོ་ནེ།	lo ne	로네
20	ཤེག་ཀ།	phreg ka	텍카
21	ཟི་པ་ད་རུ།	zi pad rdu	찌패디

ཅི་མུ་ལིའི་བུད་མེད་གྱི་གོས་རྒྱན།

헤이수이 즈무린(黑水知木林) 여성의 복식

	བོད་ཡིག	ལ་ཟིན་ཡིག	མི་ཟེལ་དན།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ད་ཀུ།	da ku	다쿠
2	ཀོ་ལོ་ཟི་རུ།	ko lo zi rdu	꼴로수두
3	འཇུ་ས།	ju sa	주사
4	རུ་ཁྲེ།	rdu khre	두체
5	ལ་ད་བ།	wa da ba	와다바
6	ལོ་ནེ་ཏ་ཏོ།	lo ne ta ho	로네 따호
7	ལོ་ནེ།	lo ne	로네
8	མཛོ་ལ་ཕོས།	mdzo la phos	졸라췌
9	སོ་ཕོ།	so pho	소포
10	སྐེ་གོས།	ske gos	깨괴
11	ལོ་ནེ་སྐུ་བོས། ལོ་ནེ་སྐེ་གོས།	lo ne skya bos / lo ne sde gos	로네 까보/로네 데괴
12	ཕུར་སྐེ་གོས།	phur sde gos	푸데괴
13	རུ་རེ།	rdzu rde	주데
14	ཀ་ར་པ།	krad pa	때파
15	ཀོ་དམར།	ko dmar	코마
16	ལུ་པ་ལ།	nu pa la	누팔라
17	འཇའ་བདུན།	ja' bdun	자둥

ཀམ་ཕུ་རྒྱུས་མཐི་གོས་རྒྱན།

리현 간바오(理县甘堡) 여성의 복식

	བོད་ཡིག	ལ་བེན་ཡིག	སི་ཁྲེས་དན།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ཐགས་སྒོར།	thags skor	탁꼬
2	བླ་དཀར།	bla dkar	라까
3	དི་ཡེ།	di ye	디바
4	དེ་ཁམས་བླ།	de khams b+ha	다캄바
5	གཡུང་རྒུང་སུ་ཐགས།	g.yung drung su thags	용등수탁
6	རྒུང་པེ།	drung pe	중페
7	ལྷག་པགས་ཙེ།	ltag pags tse	꾸팍제
8	རྩ་ཟི།	rna zi	나찌
9	དུ་ཤ་སྐ་གཙོ།	du sha sna gco	두샤나쑤
10	དཀ་ཁབ་ཅས།	da khab cas	다캄체

ཐུག་ལེའི་བུད་མེད་ཀྱི་གོས་རྒྱུ།

리현 미야뤄(理县米亚罗) 여성의 복식

	བོད་ཡིག་	ལ་ཐིན་ཡི་གེ	ཨི་ཁྲེས་དན།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དད་སྟིང་རི།	dad snying ri	대닝리
2	དད་སྟིང་ཙི།	dad snying tsi	대닝찌
3	ཁོས་ལྷི།	khos ldi	코디
4	པ་ཐི་ལེ།	pa b+hi le	파빌레
5	པ་ཐི་ཀི།	pha ldi ki	파다끼
6	ཏེ་སུ་ཐག་ས།	te su thags	떼수탁
7	པུ་ངེ་ཇམ་མ།	pu nge chab ma	푸게참마
8	གློ་རོང་།	glo rong	로중
9	ཟི་ལྷེ།	zi lde	찌데

བྱེས་སྒྲོད་སྒྲིམ་མའི་གོས་རྒྱན།

샤오진 베쓰만(小金別斯滿) 여성의 복식

	བོད་ཡིག	ལ་ཐིན་ཡིག	སི་ཐེས་དན།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ཀྲབ་ཀྲ།	krab kra	째짜
2	དད་སྟིང་མཛོ།	dad snying mdzo	대닝조
3	འུ་ཕ།	hru pha	루파
4	དད་སྟིང་སྟེ།	dad snying snye	대닝네
5	སྟོད་ཕོག་	stod phog	퇴폭
6	བྱུང་ཕ།	drung pa	중파
7	དུག་རམ།	dug rtsa	독짜
8	རྩ་ཡུ།	rna yu	나유
9	སྒྱུ་རོ།	sgu ro	구로
10	ཕུ་ངེ་ལྟུ་རོ།	pu nge'i sgu ro	푸게 구로
11	བ་སོ་ལྟུ་རོ།	ba so'i sgu ro	바소 구로

ཆེ་ལུང་གི་སྐྱེས་མའི་གོས་རྒྱུ།

샤오진 자이룽(小金宅堊) 여성의 복식

	བོད་ཡིག།	ལ་ཐིན་ཡི་གེ།	སི་ཁྲེས་དན།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དད་སྟིང་།	dad snying	대닝
2	པོ་ཙོང་མེ།	po tsong me	뽀종메
3	ཐོང་རས།	thong ras	통래
4	ཧ་ཡེ།	ha ye	하예
5	ད་རོ།	da ro	다로
6	རང་གུ་རོ།	rang gu ro	랑구로
7	སྐྱམ་འབུ་རོ།	snam 'bu ro	남부로
8	ཐགས་རྩ།	thags rtsa	탁짜
9	ཏེ་སུ་ཐགས།	te su thags	떼수탁
10	ཚོགས་ལྷམ།	tshogs lham	촉람
11	ཐུལ་པོང་།	thul pong	툄퐁

འབ་རྒྱས་ཀྱི་གོ་ས་རྒྱུ།

바오싱 차오치(宝兴硣磧) 복식

	བོད་ཡིག། 티베트어	ལ་ཟིན་ཡི་གེ། 와일리 전사	སི་ལྷོས་དན། 한국어
1	དད་སྟེ།	dad snya	다쓰네
2	སྤ་ཏན་ཅི།	sma tan tsi	마판찌
3	ཏ་ཀོན་ཙོང་།	ta kon tsong	따곤쑹
4	ཏ་ཀོན་པོ།	ta kon po	따곤포
5	ལེན་ཀྱ་ཅི།	len kwa tsi	랜파찌
6	སྐྱེགས་མོ།	skyegs mo	깨모
7	ཐགས་རྩག།	thags rtsag	탁작
8	སྟག་སྟག་རྩ།	stag sag rtsa	딱작짜
9	ཏན་གོ།	tan go	탄고

བོད་དམག་པའི་གོས་རྒྱ།

제2장. 바이마(白马) 티베트족 복식

16

བོད་དམག་སྐྱེས་མའི་གོས་རྒྱ།

바이마 여성의 복식

	བོད་ཡིག	ལ་ཐིན་ཡིག	སི་ཁྲེས་དན།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ཡ་ཨན།	ya an	야안
2	ཞྩ་འབུས།	zhwa 'bus	샤뷔
3	ཞྩ་ནག།	zhwa nag	샤낙
4	ཞྩ་དཀར།	zhwa dkar	샤까
5	ཁན་སྐྱར།	khan sbyar	칸자 / 칸짜찌
6	ཀྱི་ཡོ་ཅི།	kri yo tsi	찌요찌
7	ཀེར་ཅ།	ker ca	께차
8	སྐུ་རགས། རྩོ་ལེ།	sku rags/hro le	꾸락/롤레
9	པོ་ཀྱི།	po kri	뽀찌
10	པོ་སྐྱོ།	wo sgyo	오교
11	ཡ་ཤོ།	ya wo	야오
12	རྩ་ཡོ།	rna yo	나요
13	སྐེ་ཐག་ཀོ་ཐོ།	ske thag/ko tho	게탁 / 코토
14	ལྷོ་རྩང་།	lto hreng	또렝
15	ཀ་ཏིས།	ka tis	카띠
16	ཙོ་རྩང་།	co hrang	조랑

བོད་དམག་སྒྲིམ་པའི་གོས་རྒྱན།

바이마 남성의 복식

	བོད་ཡིག།	ལ་ཟེན་ཡི་གེ།	སི་ལྷེས་དན།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གསོ་རས།	gso ras	소래
2	ཡེ་རས།	ye ras	예래
3	འབྲུ་རས།	bu ras	부래
4	གསེར་རྒྱུག་གྲ།	gser lcug gu	셀쪽구

ཨིར་སུག་དང་མདོ་གཤིས་ཀྱི་གོས་རྒྱུན།

제3장. 얼쑤, 뒤쉬(尔苏, 多续) 티베트족 복식

18

ཨིར་སུག་བྱུང་མེད་ཀྱི་གོས་རྒྱུན།

얼쑤(尔苏) 여성의 복식

	བོད་ཡིག	ལ་ཐིན་ཡིག	སྤྲེལ་དན།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བོ་ཅུ་ཙ།	bo'u co	보조
2	པོ་པོ།	po po	뽀뽀
3	ཁོ་སྟོད།	kho stod	코뽀
4	ལེ་ཁ་ཙི།	le kha tsi	레카찌
5	ཀྲ།	khra	차
6	དུ་ཀྲ།	dzi kra	지짜
7	དྲོས་དྲོས་ཀ་ཏ།	dros dros ka ta	되되카따
8	ཙ་ཙེ།	za tshe	자치
9	རྩེན་ཕོས།	rmen phos	멘췌
10	ཁྲང་ཀྲ།	khrang khra	창차
11	ལག་བཟུ།	lag bgru	락두
12	ལོ་ཙི་ཀ།	lo tsi ka	로찌카
13	རྩ་ཨར།	rna ar	나알
14	ལིས་དྲོས།	lis dros	리되
15	ལག་དཀྱི།	lag dkri	락디
16	ལན་ཀོར།	lan kor	랜꼬
17	ལ་ཧྲོ།	la hro	라로
18	ཧེ་བཀར་ཏ།	he bkar ta	헤까

ཡིང་སྤྱུག་སྒྲིམ་པའི་གོས་རྒྱུ།

얼쑤(尔苏) 남성의 복식

	བོད་ཡིག	ལ་ཐིན་ཡིག	སི་ཁྲེས་དན།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སྤྱུ་ཇ་ཡ་ལོ།	sna tsha ya lo	나차야로
2	ལ་ལ།	wa lwa	왈와
3	ཀྲི་ཤ།	hri pha	리파
4	ཁོ་ལོ།	kho lo	코로

མདོ་གཤེས་བྱད་མེད་ཀྱི་གོས་བྱུང།

뒤쉬(多续) 여성의 복식

	ཐོད་ཡིག	ལ་ཐེན་ཡིག	མི་ཕྱེས་དན།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ཏ་ཏ་སྐ་མཐུད།	ta ta skra mthud	따따 짜튀
2	ཨར་མ།	ar ma	알마



khenposodargye.org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 가능